



2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2호

(루게 520)



◆◆◆◆◆◆◆◆ 차 례 ◆◆◆◆◆◆◆◆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4
심장에 새긴 일력.....	6
꽃이 고맙고 이삭이 고마워.....	7
위대한 력사가 흐른다.....	8
국제친선전람관.....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인사를.....	9
김정일 동지-세계인민의 행복.....	9
축원의 노래.....	10
희망의 새.....	11
그이께서 고향집을 찾으신것은.....	19
눈은 내려도 (외 1 편).....	19
백두산밀영의 설경.....	20
평양에 옮겨진 비봉폭포.....	21
위대한 사랑의 품.....	22
좋은 동무들.....	23
진달래.....	24
원양의 바다우에 해가 뜰 때면.....	30
하늘가에 높이 솟은 정일봉.....	31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과 흠모의 송가.....	34
청산리 (외 1 편).....	36
새봄맞이.....	36
세기의 념원.....	37

박 동	38
자신에게 하는 말 (외 1 편)	51
사람이 나이들면서	51
백두의 눈보라여	52
붉은기앞에서	52
갈숲의 저녁노을	53
들 새	63
내 고향의 밤	63
아버지의 팔베개 (외 1 편)	64
아버지의 가슴	64
지휘관	65
행복한 저녁에	71
영원히 당을 따라	72
포구로 돌아올 때	73
고전장편소설 《하진량문록》에 대하여	74
나를 알겠느냐	79
피의 웨 침	80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당은 모든 승리의 기치이다.

당이 강하면 인민이 강하고 나라가 강하다.

우리 당은 높은 령도적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새형의 주체형의 당으로 불리우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은 위대한 당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난관을 헤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의 한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길로 억척같이 전진해갈 1990년대.

자기 력사의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이 년대를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환희의 감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른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사상에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적극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더 잘 알고 당을 위하여 적극 일하고 투쟁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오늘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우리의 문학예술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작가들이 우리 인민에게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간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준 당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당의 위대성문제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고 심오하게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다.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문학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당의 위대함은 곧 당을 령도하는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성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는데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생생한 현실로 증명되고있는 사회주의생활의 다양한 모습,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는 우리 당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당이 건설되고 당의 위업이 개척되어왔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당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위대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발붙일 틈이 없으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허물수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안에 확립된 혁명적기풍, 그것은 전당에 당의 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으로 일관되고있다.

우리 문학작품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새로운 인간형상을 더 많이 그려야 한다.

또한 문학작품들은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생활하며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규율은 당에 끝없이 충직한 당원들의 자각적인 규율이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강유력하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학작품들에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사람들로 키우는가를 실생활을 통하여 훌륭히 구현하여야 한다.

군중이 있는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세차게 뛰고있다는것을 형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어야 할뿐아니라 근로대중은 당조직을 통하여 당과 굳게 이어져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어머니당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기적과 위훈을 일으키고있음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가 생활으로써 구현되어 세상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동한 생활적형상을 진실하게 파보여주어야 한다.

90년대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발을 휘날리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과 빛나는 승리가 이룩될 희망찬 년대이다.

위대한 령사는 위대한 체험을 낳는다.

한 나라, 한 인민에게 있어서 10년은 자기의 운명개척과 생활에서 귀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기간이다.

존엄하고도 영광에 넘친 우리 령사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위대한 년대들이 흘러갔다.

지나간 년대에 우리 인민은 혁명하는 인민으로서 이 세상에 소리높이 터쳐놓고싶은 위대한 당에 대한 가슴뜨거움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진 생동한 생활을 폭넓게 형상하여 당이 이룩한 업적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당의 위대성을 우리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생활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정으로 뭉쳐진 사회집단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이다.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다.

당의 위대성은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위대성이다.

일심단결, 여기에 우리 당의 한없는 위대성이 집약되어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생동한 생활적형상을 통하여 일심단결된 우리 당을 소리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은 우리 당의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어가고있는것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위대성을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이끄는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제 정신을 가지고 모든것을 자기식대로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혁명의 주인으로 살수 있는것,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된 우월성이 있고 사회주의생활을 누리는 궁지와 보람도 있다.

위대한 우리 당이 인민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것은 수천년간 온전한 자기 사상을 못가지고 남에게 구속되어 살아온 인민을 정신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주와 창조의 념을 안겨준것이다.

기성의 그 어떤 관념에도 구애됨이 없이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는 당의 위대성을 우리는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력사는 바야흐로 새 세기 2천년대로 향해 내달리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새 령사, 사회주의승리의 빛나는 령사를 펼쳐온 우리 인민은 오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주체의 기치높이 존엄한 령사의 풍운을 헤치며 사회주의 한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우리 작가들은 이 위대한 당을 끝없이 신뢰한다.

우리의 문학은 지난 기간 당의 위대성선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무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문학은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고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창작적열정을 불태우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위대성선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심장에 새긴 일력

류동호

내 정말 몰랐노라

정말 이런 레사로운 날에

소원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소원이 풀릴줄은

아, 나는 오늘

비날론이 쏟아지는 방사기앞에서

우리 수령님을 만나뵈웠다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위대한 그분을 우러렀다

거룩하신 모습

눈부신 빛발

누리에 봄천지를 펼쳤는가

활기에 넘치시여 정력에 넘치시여

비날론구내를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이시다!

뵈옵고싶어 꿈결에도 그리워

그 영상 모시고 지새우던

내 삶의 낮과 밤이여

소원에 넘원으로 이어진 천만리 그 길로

오늘은 수령님께서 오시었다

비내리던 건설의 그날에도

꽃바다 설레던 조업의 그날에도

먼곳에서 우러러 발돋움하며

단 한번만이라도 가까이 뵈옵고싶어

그 얼마나 기다려온 오늘이던가

아, 수령님

우리 수령님 내 손을 잡고 흔드시는듯

비날론숨을 쥐어보고 또 보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 웃고 웃으신다

행복한 순간이여라

영광의 날이여라

이 순간에 다 있었구나

내 삶의 천만날중에

바라고 꿈꾸던 그 모든것이

정녕 이 순간에 다 있었구나

어제도 오늘도 래일까지도...

삶의 상상봉에 내 올라

이 세상 끝까지 굽어보노니

우리 수령님 받들어갈 한마음

하늘땅에 가득차구나

내 탓하지 않노라

오늘만은 정녕 이 순간에만은

하염없이 두볼을 적시는 뜨거운것이여

심장벽을 부딪는 격정의 파도에

그들먹이는 가슴이여

내 마음 언제나

그이 기쁨 비날론숨으로 꽃피워가리라

걸으시는 그 자욱자욱 받들어

따스한 비날론숨이 되리라

자애로운 손길

활기와 정력에 넘치신 그 미소

뜨거운 그 손을 잡고

내 영광의 한길을 가고가리라

아 행복한 날이여

내 심장을 일력삼아 너를 새기노라

심장속에 영원히 번지지 않을 일력

이런 날, 이런 감격속에

언제나 환히 웃으시는 우리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모셔가리라!

꽃이 고맙고 이삭이 고마워

김송남

어쩌면
적동색 내 살빛과 같아
이 땅 이 흙에
뜨거운 땀을 대이면
그 무슨 체온도 느껴질 듯

랭상모 파릇파릇
풍년 봄향기에 목메어
흙갈이 다 끝낸 이 벌을 곱해보니
아, 수령님
오늘도 수령님 생각

어디나 무릎 꿇으면
가슴뜨거이 안겨들듯싶구나
젊으신 날의 우리 수령님
토지개혁의 발머리에 찍으신 그 자욱이
백두에서 안고오신 첫 봄빛인 듯
이 땅에 뿌려주신 환하신 그 웃음이...

봄도 그 몇 번
가을도 그 몇 번
활기찬 대지에 청춘이 오건만
이 땅을 더욱 기쁨지으시려
이 땅에 더욱 큰 풍년을 안아오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수령님

지난해에도 늦가을
농장살림 돌보시려 찾아오실 제
《수령님!》 하며 그 품에 목메이던

이 풍요한 논두렁이
《장군님!》 하며 그 품에 눈물짓던
그날의 그 발머리여서

생각은 깊어지누나
해마다 피워준 꽃
익혀준 열매
땅의 선물이 아닌 줄 알며...

흙에 물으면 흙이 말하리
꽃에 물으면 꽃이 말하리
보습날 깊이 박는 트랙또르 동음에도
이랑에 뿌려지는 한줌의 비료에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수령님 한평생이 다 깃들었다고...

땅이 넓어도 넓단 말 말자
사랑의 그 자욱 한데 모으면
그보다 더 넓으리
어제도 오늘도 이 벌에 넘치는 것
한가슴 못다안을 그 사랑 아니더냐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이삭으로...

아, 그 꽃이 고맙고 그 이삭이 고마워
곱해보니 이 땅은 온통으로 그이의 사랑
그 어디에 발자국 옮겨놓아도
인민의 마음 우러러 뜨거워라
수령님!
어버이 우리 수령님!

위대한 력사가 흐른다

서봉제

하얀 은부석마당가
한송이 금전화를 손에 드시고
어버이수령님
간백산밀영사령부 트랙을 거니신다

처마우에
조용히 흔들리는 붉은기
추녀끝에
조용히 날아왔는 메세

그 몇십년만이신가
가문비숲은 변함없이 푸르려도
세월을 넘어 멀리도 이어오신
수령님의 자욱자욱-

이 트랙이 아니었더냐
남북만주, 드넓은 백두광야
총잡고 뿔던 단가슴들에
일제격멸의 최후명령 내리신곳

저 숲푸른 산밭이 아니었더냐
하늘이 들리도록 전민항쟁포성 울리며
멸적의 총검 설레던 밀림우에
폭풍쳐 화답하던 병사대회의 그 환호

온 강산을 흔들어깨우던

그 함성 귀전에 울리시는듯
잊지 못할 감회에 묻히시여
간백산을 근엄히 바라보시는
우리 수령님!

천리 만리
광야의 우등불로 터친
백두의 세찬 눈석을 안고 떠난 대오
리별의 눈물로 헤어진 고향의 동구길에
광복의 봄을 안고 달려가던
그날의 그 환희를 그리시는가

조용히 옮기시는 걸음걸음에
아득히 흘러간
그 세월을 다 불러오고
못잊을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어가시는
사령부의 이 트랙-

아, 트랙은 넓지 않아도
어버이 우리 수령님
추억을 안으시고 걸고걸으시는 자욱자욱에
밀림의 력사가 따르고있어라!
위대한 세월이 흐르고있어라!

-간백산밀영에서-

국제친선전람관

징 창

동방과 서방에서
대륙과 대양을 넘어
금은주옥 이곳에 올렸으니
눈부시게 빛나는 그 모습 놀랍구나
5대륙에서 전해온 친선의 정은

온 지구를 감돌아 장성을 쌓아
4대양 련결하고
친선의 꽃 만대에 길이 피어나리

(필자는 중국사람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사를

싸이다 라쉬다 아비디 니잔

당신의 이름은 민족의 자랑이고
당신의 명성은 영원불멸하거니
당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당신은 꺼질줄 모르는 등불이여라

당신의 용맹과 인자함
굳센 결심
당신의 그 열정과 념원은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렸어라
당신께서 지니신 숭고한 정신은
향기되어 정원가득 넘쳐나거니
당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당신은 꺼질줄 모르는 등불이여라

장엄하도다 이 세기여
이 세상에 당신을 모셔왔기에
어린 시절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시대의 봉화를 높이 드시고
원썬들을 전몰케 하시었으니

당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당신은 꺼질줄 모르는 등불이여라

다가오는 통일의 려명
그 희망 영원토록 꽃피워주시고
그 희망 영원토록 지켜주시리
당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당신은 꺼질줄 모르는 등불이여라

아 인사드리네
천재적인 사상을 안아오신 당신께
전쟁과 참화를 밀어내신 당신께
내 이 글줄마다에서
만민의 말을 빌어
기쁨속에 한껏 웨치노라
당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당신은 꺼질줄 모르는 등불이라고
(필자는 파키스탄 알리알리학교 종교장임)

김정일동지-세계인민의 행복

시라즈 초우드리

2월 16일은
조선인민과 인류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여라

2월은 우리 방글라데슈에서
민족해방의 씨앗을 뿌려준
력사적인 언어운동이 시작된 달
이 뜻깊은 2월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세계해방의 향도성으로
백두산에 높이 솟아오르셨어라

위대한 태양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낳고
2월의 향도성
온 누리에 빛을 뿌리며
주체의 혁명위업 이어가나니

오, 조선아
너는 향도성 찬란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이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세계의 탁월한 사상리론가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높이 자랑하고
우리 방글라데슈사람들
행복속에 그이를 노래할제
세계해방력량과 혁명가들
우리와 함께 기쁨속에 노래하네

방글라데슈의 우리들도
온 세계 모든 혁명가들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그이께 큰절을 드리며
만수무강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방글라데슈라지오방송국 기자임)

축원의 노래

김철민

김정일 동지!

그이는 만민의 지도자

나는 그저 평범한

그이의 전사

내 한편의 작은 시를 두고

모지름을 쓸 때

그이는 세계를 안으시고

력사를 개척하시는분

참으로 그이께서

저 아아한 백두의 산악같으시다면

나는 그 무연한 기슭에

소리없이 놓여진 가벼운 부석

오오, 생각인들 할수 있으라

시대와 혁명이 분초를 세이는

그이의 숭엄한 집무탁우에

삼가 내 작은 시가 놓여지는것을

누리에 빛나는 그 이름

세기가 받들어올린 그 거룩한 존함이

내 미숙한 시편우에

태양인듯 뜨겁게 놓이나니

한편 또 한편...

향도의 해발이 어린 시작품을

내 꿈같이 받아안을 때

가슴속에 깃드는 오, 깃드는 생각

지금은 곁에 없으신 아버지

내 처음 쓴 서투른 시편을 들고

작가들에게 보이겠노라 뛰어다니던

그 아버지가 이것을 아신다면...

내 문득 머리들어 우러르노라

하면 친애하는 그이는

아득히 우러러보이던 그이는 더없이 가까워

내 마치 위대한 그이의 곁에 서있는듯

진정 그이께서

지상의 어느 한 지점에 계시는가

낱아 길러준 부모만이 자리잡을수 있는

이 마음속 가장 귀중한곳에 친근하신 그이

진정 이러하리라

이 나라 사람들 그 누구나

그이를 마음속에 것처럼 한결같이 모시고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살아가나니

이 땅우엔 그렇게 날이 밝고

쇠물이 끓고

거리가 일떠서는것이리

생활이 흐르고 노래가 울리는것이리

아, 노래여 내 소박한 노래여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러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꽃다발속에

너 한송이 꽃인양 깃들여 향기를 뿌려다오

인민의 마음속에 계시는 지도자

인민의 어버이로 위대한 지도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희망의 새

김원종

1

바다가에서 갈매기들이 자유로이 날고있다.

여름날의 정오.

태양은 머리위에 이글거리고 잔물결 이는 바다는 수평선 아득히 은비늘로 부서진다. 큰 배들은 아침에 다 떠나가고 점점이 보이는 사돌배들만이 갈매기를 벗삼아 도래굽이를 감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다바람이 백사장을 지나 애솔나무숲을 쓰다듬고 하얗게 뻗은 큰길을 건너 강냉이밭의 개꼬리를 흔들면서 집앞에까지 달려와 울바자에 무성한 줄당콩잎에 매달려 재롱을 부린다.

조만덕로인내외가 호젓하게 사는 이 집은 다락과 수발을 등지고 록음속에 외따로 들어앉은 그림같이 아담한 문화주택이다.

반농반어를 하는 수산협동조합에서는 만덕로인이 칠순이 가까와 배에서 내리게 되자 이 집을 새로 지어주고 과수원지기라는 한가한 일감을 맡겼다. 아이들도 손대지 않는 조합의 과수나무를 종일 지키고있다는것은 실로 부질없고 맹랑한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저것 일감을 만들어 아카시아울바자도 고치고 물도랑도 깊이 찌고 다락밭의 돌담도 다시 쌓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길은 언제나 수건바위가 우뚝 솟은 도래굽이 저편에서 훨훨 날아오는 갈매기떼를 좇고있었다. 그러면 만선기날리며 갈매기와 더불어 포구로 돌아오던 지나간시절이 생각나서 마음이 쓸쓸해졌다. 그때는 사는 맛이 있었지. 사람들앞에서 늘 버젓하고 희망도 있고... 희망없이 사는건 고통이야... 하긴 일흔도 넘은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한담! 누가 알면 분수없다고나 할걸 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만덕로인은 시름겹게 한숨을 내뿜고는 갈퀴진 손으로 담배를 정어리만큼 굵직하게 말군했다.

그러던 그에게 요즘 갑자기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 그것은 성가신것 같으면서도 성수가 나고 피곤한것 같으면서도 힘든줄 모르게 되는 일이었다. 철부지 손자애의 단련을 받게 된것이다.

멀지 않은 도소채지에서 방학을 하고 할아버지네 집에 온 손자녀석은 제세상을 만났다고 들락거리

며 이 호젓한 집의 안정을 깨뜨려버렸다. 첫날은 뒤산 다락밭의 돌담에서 다람쥐를 발견하자 그것을 잡느라고 콩밭을 으깨여놓더니 다음날은 쓰르라미장을 만든다고 마당을 너저분하게 해놓았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것 만들어달라 저걸 해달라 할아버지를 못견디게 들볶아댄다.

《오냐, 오냐... 그녀석 뒤시중에 담배 한대 편안히 못피겠군.》

귀찮다는듯 이렇게 대꾸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양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로친네는 장난국은 손자녀석때문에 늘 안절부절을 못했다.

《제 애비 절반만큼이라두 착실한 배군이나 되었으면... 굴레벗은 망아지라더니만 자식 귀한 이 집안에 어찌다가 외톨이 손자녀석이 저런 발가돌이가 기여나왔담.》

《이제 열한살 먹은게 고만큼두 별차지 앓을라구, 애들을 골방샌님처럼 길러선 뒷에 쓰겠나. 하지만 해남인 여기 와서두 이 동네 학습반엘 딱딱 가지 않소. 내가 잔소리 한번 안했는데두... 그만하면 기특하지, 안그런가 노친네?》

《모르겠수다. 지에미두 해남이가 최우등생이요 뭐요 하면서 입이 메지게 자랑만 하다가 갔지만 저렇게두 세찬 녀석일줄이야... 그러니 령감은 너무 으자으자하지 말라는거우다.》

《걱정마우, 얌전한놈은 배가 얹어져두 겁이 나서 제 살구멍만 찾더군. 보아하니 저녀석이 장차 한몫 할것 같애, 제애비 못지 않게 될것 같단말이야.》

만덕로인은 늘 이렇게 손자를 두둔하곤하였다.

오늘도 그는 일감을 손에 친채 마루에 앉아서 또 목을 빼고 큰길쪽을 내다보았다.

조무래기 서넛이 채깎거리며 이 집 담장결로 달려오고있었다.

《우리 해남이녀석이 돌아오는군...》

그의 두툼한 입술가에 미소가 느슨히 배어나온다. 이제 해남이녀석을 점심상에 마주앉히고 새벽닭시질로 잡아온 놀메기반찬에 풋마늘장아찌를 곁들여 먹이며 밥 흘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것이 환락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마당으로 우르르 끌어드는 아이들속에는 해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해남이와 제일 친하게 지

내던 용남이라는 머리가 큼직한 아이가 성큼 나서며 숨이 차서 말했다.

《할아버지… 해남이가 오늘 학습반에 오지 않았어요.》

《?!…》

만덕로인은 어지간히 놀랐다.

《그럼 그녀석이 어디로 갔단말이나?》

《오늘두 수건바위쪽으로 놀러 간것 같애요.》

《수건바위쪽으루?》

만덕로인이 기가 막혀 중얼거리는데 고추장을 뜨러 헛간에 들어갔던 로친이 해남이가 감춰두었던 책가방을 꺼내가지고 나오며 혀를 끌끌 찼다.

《그러게 너무 으자으자하면 아이를 망친다지 않습디까. 공부 전폐하구 나다니는 녀석이 후에 사람질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수.》

《음… 못난녀석같으니!》

만덕로인은 놀라움이 곧 울화로 뒤바뀌어 다래끼를 걸던 손칼이며 찌리가치를 책 집어던지고 마루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바람에 추녀끝에 매달았던 풀대로 엮은 쓰르라미장이 그네뿔을 하다가 마당에 떨어져 덩굴었다.

도대체 해남이녀석이 수건바위에 가서는 또 무슨 장난을 하누! 공부하기 싫어 빈둥거리는 녀석의 앞날이란 볼보듯 뻔하지 않는가… 그래도 그녀석이 학문을 착실히 터득해서 제 애비보다 더 훌륭한 배사람이 되어지라 속으로 기원하지 않았던가!

그는 바다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선창우에서 맴돌던 갈매기 한마리가 깃을 찾아 도래굽이쪽으로 날아간다. 갈매기떼가 등지틀고 번식하는 그 수건바위벼랑에서는 하얗게 부서지는 잔파도가 무지개빛을 뽐고있다. 하지만 이 순간 만덕로인에게는 그 짜디짤 비밀이 제 얼굴을 뒤덮어 눈을 쓰리게 하는 것만 같았다. 해남이가 의젓한 배사람이 되어 이 바다를 지키고 이 고향바다의 주인구실을 할수 있다면 즐거운 희망속에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저예망선의 모범선장으로 고기배를 타던 외아들이 우리측 명해를 불법침입한 미제함정과의 싸움에서 희생된후 유복자로 남은것이 바로 해남이었다. 그후 머느리는 당의 배려로 대학을 졸업하고 도소재지에 있는 큰 기계공장의 녀성직장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머느리가 녀자의 몸으로 남자들도 감당키 조련치 않은 책임을 지고 나라앞에 구실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사람이란 자식들과 더불어 미래에 사는 법이다.

해남이는 로인의 더없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그림자같았다.

《옛날에는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만 없었으면 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야… 어떻게 하나 해남이녀석을 애비 못지 않게 키워야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 한몸 편안히 지내다가 죽는게 무슨 값이 있겠는가…》

만덕로인은 이렇게 화풀이하듯 중얼거리고나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런 다음 주먹을 부르쥐고 걸음을 재우쳐 헐썩헐썩 큰길을 건너 수건바위산으로 오르는 가파로운 오솔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얼마오르지 못하여 숨이 차고 무릎고대가 후들후들했다. 몇해전만 하여도 그닥 힘든줄 모르고 올라다녔는데 먹은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그는 바위사이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돌리고는 입가에 손나발을 대고 애타게 불려보았다.

《해남아!- 해-남아-》

가까운 메아리의 짧은 여운이 파도소리에 삼켜질 뿐 기다리는 대답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또다시 기운을 모아 돌부리를 거머쥐고 바위산꼭대기를 향하여 한걸음한걸음 올라갔다.

정오의 바다는 여전히 눈부신 태양아래 잔파도로 부서지고있다. 수평선끝까지 유리조각을 휘뿌려던 진돗 제멋대로 반짝인다. 아직 두려움을 모르는 어린 갈매기 한마리가 낮추 떠오다가 푸드득 방향을 꺾어 선창쪽으로 날아간다. 다음순간 오른편 가까운곳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구뿔하게 자란 애솔포기밑의 바위틈에서 해남이의 동그스름하고 감실감실한 얼굴이 반짝 내다보고있다.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여 만덕로인은 꾸지람을 퍼붓기전에 늘 그렇게 하듯이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문채 한참이나 쏘아보았다. 해남이의 머루알눈이 몇번 깜박거리다가 얼굴과 함께 바위뒤로 숨어들어갔다. 만덕로인은 애솔포기를 휘여잡고 바위등을 넘어갔다. 해남이는 자라목이 되어 솔가리우에 꼬부리고 앉아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아무말도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며 두리를 살펴보니 이녀석이 제법 묘한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남박처럼 오목하게 패운곳에 삭정이와 솔가리가 폭신하게 깔렸는데 여기에 엎드려 바위틈으로 내다보면 갈매기등지들이 먼바로 바라보인다. 그러나 애솔포기들이 좌우에 서있어서 상대쪽에서는 이곳의 움직임이 잘 보

이지 않게 돼먹었다.

만덕로인은 숨을 다 돌리고 나서 묻기 시작했다.

《이녀석아, 여기 숨어서 하는짓이 무어냐? 학습반 뚜꺼먹구 놀기만하면 장땅이냐?》

《할아버지, 난 여기서 공부해요…》

《허튼소리 말어! 네가 책가방 감춰놓은델 모를줄 알구, 집에 가서 회초리맛을 줌 봐야겠다.》

이 말에 해남이는 드디어 울상이 된 얼굴을 쳐들더니 억울하다는듯 말했다.

《안맞을래요. 난 잘못된게 없어요. 방학숙제두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무슨 〈공부〉를 한다는거냐?》

《난 갈매기를 자세히 못봤어요. 주둥이랑 발가락이랑… 가까이에서 푹푹히 보구싶어서 그랬는데, 씨!》

만덕로인은 대답이 막히는가싶었다. 그렇다고 한 걸음이라도 양보하면 이 엉뚱한 녀석에게 열려넘어갈수 있다. 그래서 벌컥 소리쳤다.

《그렇게 보구싶으면 진작 동물원에서 볼것이지. 밤낮 거기 가서 논다면서 무슨 거짓부리냐!》

그랬으나 해남이는 조금도 숙어들지 않는다.

《우리 동물원엔 갈매기가 없어요!》

《동물원에 갈매기가 왜 없어. 보기 드문 남의 나라 잔나비까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제일 흔한 새가 없어?》

《정말 없어요!》

해남이는 눈이 뚱그래서 대꾸한다.

《이녀석, 그렇게 우겨대면 할아버지가 속아넘어갈줄 알구? 아무리든 바다를 낀 우리 도의 동물원에 갈매기가 한마리 없을라구. 너 거짓부리한 죄로 매 한개 더 맞아야겠다.》

《없어요! 할아버지… 정말 없다는데…》

드디어 해남이는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한 나머지 돌아앉아 쿵쾅쿵쾅 울기 시작했다.

만덕로인은 기분이 언짢아졌다. 동물원에 갈매기가 있는것을 제가 못보고 그럴수도 있다. 숙제를 다 했다는걸 보면 막무가내는 아닌것 같기도 하다. 더구나 서럽게 우는것을 보니 손자앞에서 여린 마음이 당황해진다. 하긴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촌에 나와서 책을 덮고 좀 놀지도 못하게 하면 장차 글뒹주를 만들겠는가? 잘 뛰놀아야 밥도 잘먹고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잘하지. 아이들을 가두어 길러선 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자, 그럼 래일부터 꼭꼭 학습반엘 가야 한다, 갈

매기니 뭐니하며 핑계를 대구 노는데만 정신을 팔면 못써!》

해남이는 여전히 뽀로통하여 고개를 외로 돌리고 있다. 만덕로인은 얼리기 시작했다.

《내 옛말 하나 해줄라… 너 이 바위를 왜 수건바위라고 하는지 아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들여다보면 이 바위가 수건을 걸어놓은것처럼 넘적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데 그건 모르구 하는 소리고…》

만덕로인은 해남이의 손목을 쥐고 바위산을 천천히 내리면서 진짜 옛말을 해주었다. 옛날에 이 산 밑에 살던 가난한 배군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외진섬에 홀로 남았다. 물에서는 불쌍한 식구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다못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 철부지 어린것이 이 바위산에 올라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고 목메이게 불러보는데 문득 머리우에 갈매기 한마리가 나타나더니 흰 무명수건을 떨구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머리수건이었다. 이튿날 동네어부들이 배를 몰아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는데 갈매기가 배머리를 오락가락하며 길잡이를 하였다. 어부들은 드디어 외진섬에서 거의 거의 죽어가는 아버지를 구원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때부터 이고장 어부들은 이 비위를 수건바위라 불렀고 여기에 사는 갈매기들을 귀중히 여기었다. 그래서 이 수건바위에는 어느곳과 달리 갈매기들이 더욱 번성을 하는것인지도 모른다…

바위산을 다 내려와 큰길을 건너서려는 때였다.

《할아버지, 자동차!》

해남이가 소리치며 손목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만덕로인은 얼른 뒤걸음질을 쳐 다시 길아래로 내려섰다. 도소재지쪽의 굽인돌이에서 따름따름 몇대의 까만 승용차가 달려오고있었다.

《더 내려서라, 이녀석!》

그러나 해남이는 차들이 자기앞을 지나갈 때 깎듯이 소년단경례를 했다. 그러나 차들은 멀리 가지 않고 서서히 멈춰섰다. 잠시후 앞선 차에서 젊은 군관이 내려 만덕로인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습관처럼 혁띠밑의 옷주름을 바로 펴고 군인경례를 붙였다.

《할아버지, 이고장에 사십니까?》

만덕로인은 우선우선한채 대답했다.

《저기 저 다락과수밭밑의 외딴집이 바로 내 집이외다. 평생 여기서 살지요… 혹시 길을 물으시려우? 읍으루 가는 길이야 외통길인걸.》

젊은 군관은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나이에 비해 무척 사려깊고 세련되어보인다.

《하긴 길을 묻자고 그럼니다… 저 바위산앞으로 나가는 차길이 있습니까?》

《거긴 벼랑인걸, 차는 못나갑네다. 길이라는데 그저 이 오솔길뿐입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젊은 군관은 돌아섰다. 만덕로인은 다시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 앞차의 뒤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분이 내리며 두손을 허리에 가볍게 얹은채 보호안경을 끼고 바다 멀리를 바라보고있었다. 군관이 총총히 다가가 무슨 보고를 드리자 그분께서는 안경을 벗고 만덕로인에게로 다가오시었다. 곧 뒤차들에서 내린 사람들과 한 중년의 장령이 그분의 뒤를 따라왔다.

흰 남방샤쓰에 회색바지를 입으시고 운동화를 신으신 수수한 차림새이나 활달하신 걸음걸이와 환하게 트인 안광이 만덕로인으로 하여금 제 몸가짐을 살펴보게 하였다.

《할아버지, 지도자선생님이예요!》

해남이가 손목을 꼭 쥐었다 놓으며 흥분해서 속삭였다.

《!…》

로인은 밀물처럼 흘러드는 감격에 젖어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2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씩씩하게 소년단경례를 올리는 해남이의 머리를 다독여주시고나서 보안경을 잠시 벗으시며 만덕로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시었다.

《…저 바위산에 갈매기들이 유별하게 많습니다.》

그이께서 수건바위를 가리키시며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만덕로인이 두손을 모아 쥐고 허리를 약간 굽히었다.

《에… 선조때부터 이고장 갈매기는 다 여기서 날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조상을 가진 우리 나라 갈매기란 말씀이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풍에 그을은 로인의 얼굴을 따듯한 시선으로 일별하시었다.

《할아버지는 이전에 배를 타시지 않았습니까?》

《에… 얼마전까지만해도 배를 탔습니다…》

만덕로인은 이름 못할 감회에 목이 메었다.

머리우에서 갈매기 한마리가 살같이 날아예며 드넓은 바다에 그 어떤 삶의 노래를 읊조리고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갈매기와 바다와 로인의 한생을, 바다사람들의 희망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음미하시듯 한동안 바다기슭을 거니시더니 로인에게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할아버지도 갈매기에 퍼그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배사람들은 누구나 갈매기를 좋아합니다.》 하고 로인은 성수가 나서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갈매기란놈이 좀해서는 사람들한테 곁을 주질 않습니다. 한평생을 바다우에서 늙은 저희들도 가까이에서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깊은 새이지만 기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인의 이야기를 긍정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얼마전에 이곳 도소재지의 동물원을 돌아보니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 나라의 갈매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래굽이를 지나다가 견물생심이라고 갈매기를 한마리 사로잡아 동물원에 보내 주자는 생각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만덕로인은 아직 그이의 깊은 심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 어떤 크낙한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곁에 서있던 해남이는 그것보라는듯 할아버지를 뻔히 쳐다보았다. 로인은 꿈을 꾸는듯했다. 마치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금전에 해남이가 동물원에 갈매기가 없다고 하던 말을 지지해주시려고, 그의 어린 마음에 나래를 달아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것만 같았다.

로인은 편뜻 정신을 차리며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드렸다.

《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는지… 갈매기를 사로잡아본적이 없어와서… 그렇지만 길안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사의를 표하시었다.

그리하여 만덕로인은 방금 내려온 길로 허둥지둥

되돌아서고 해남이는 신바람이 나서 깡충 따라섰다.

이때 저쯤 서있던 장령이 부관인듯한 젊은 군관과 함께 차 있는곳으로 되돌아가 사냥총과 자동보총을 가지고 따라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덕로인의 뒤를 바투 따르시며 장령에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 사냥총은 괜히 가져왔습니다. 자동보총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로잡자는건지 짐작이 갑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짐승중에두 날짐승을 사로잡는게 제일 어려운데…》

장령은 검심검실한 얼굴에 난처한 웃음을 담고 뒤따라선 수행원들을 돌아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둘째손가락을 곧추세우시고 말씀하시였다.

《군대가 적을 잡자면 적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하는것처럼 갈매기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날짐승들은 일반적으로 겁이 많고 몸을 여간 아끼지 않습니다. 갈매기라고 다들바가 있겠습니까. 그건 할아버지가 더 잘 아시겠는데 어떻습니까?》

만덕로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씀드렸다.

《정말 그렇습니다. 워낙 갈매기라는놈은 겁이 많아서 배전에 앉았다가도 사람이 가까이 가는 눈치만 보이면 인차 날아가버립지요…》

《그것 보시오… 우리는 바로 그 약점을 리용하는겁니다. 총알이 옆을 스치고 가까이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리면 얼이 빠져서 한동안 날지 못합니다. 그때 날새게 던지면 됩니다.》

《정말 신통한 묘수입니다.》

장령이 경탄하여 말씀드렸다. 만덕로인은 파시비범하신분이라는 생각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파로운 바위사이의 오솔길을 가볍게 뚫아오르시며 뒤따르는 장령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기도 하시면서 여전히 재미나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정통으로 맞는것보다 훨씬 어려울겁니다. 자칫하면 갈매기를 죽일수 있는데 군단장동무, 자신이 있습니까?》

《좀 떨립니다… 이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사격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아직…》

《그건 아마 헛소문일겁니다. 총이야 군대가 더

잘 쏘기마련이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장령은 무릅없이 거들 청을 드린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웃으시였다.

《하긴 갈매기는 내가 필요해서 잡는거니까 내가 쏘아야지요.》

이윽고 바위산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자동보총을 잡으시고 갈매기네가 앉아있는곳을 향하여 살금살금 다가가시였다. 해남이가 성수나서 그이의 뒤를 바투 따랐다. 부관과 몇몇 수행한 사람들은 잠시뒤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느새 기미를 알아챈 갈매기들은 그이께서 사격자세를 갖추시기전에 날아나버렸다. 그이께서는 몇번 시도하시였으나 맞춤형 기회를 얻지 못하시였다.

《안되겠군, 좀 어려워도 먼볼질을 해야지…》

이 혼자말씀을 들은 해남이가 얼른 말씀올렸다.

《저쪽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봐둔 자리냐?》

《예… 솔포기에 가리워져서 숨어서 쏘기 좋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남이를 앞세우고 그가 보아둔 자리로 옮겨가시였다. 젊은 군관이 조심조심 뒤따랐다.

이남박처럼 움푹한데다가 바위틈으로 묘하게 사계가 트인 자리를 보시자 그이께서는 해남이가 하두 기록하시여 뒤통수를 다독여주시였다.

《네가 정말 멋진 자리를 봐뒀구나.》

《이렇게 멀어두 일없습니까?》

해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이를 가까이 모시고 지내온것처럼 자연스러운 친숙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솔가리우에 자리를 잡으시며 속삭이듯 말씀하시였다.

《이 총으로야 문제가 없지. 자 너두 옆드려라. 그리구 이제부터 갈매기들이 날아와 앉을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한다.》

《예!》

해남이는 그이의 곁에 엎드려 벌써부터 손가락으로 두귀를 막고 숨을 죽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방향을 약간 바꾸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윽고 겨냥을 하시였다. 목표까지의 거리는 어지간히 멀었다. 그러나 어느

새 그이께서는 날아오른 무리와 동떨어진 큼직한 갈매기 한마리가 바위우에 나타나 태연히 깃을 다듬는것을 발견하신것이다. 그놈을 정확히 겨누자면 숨을 몇번 더 쉬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총소리가 울렸다.

순간 수건바위산의 여기저기서 일시에 갈매기들이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그런데 바위우에 앉아있던 큼직한놈은 솟구치듯 약간 뿔뿔이 도로 제자리에 떨어진다. 짧은 군관이 총알처럼 달려나가 그놈을 덮쳤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성을 올린다.

《...한치가랑 내려 겨누기는 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셨다. 혹시 총알에 맞은 바위돌이 부서지면서 상처라도 입히지 않았는지 걱정되시였다. 해남이도 속이 조마조마했다.

잠시후 짧은 군관이 살아서 퍼들쩍거리는 갈매기를 꼭 부둥켜안고 다가왔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전부 모여들었다.

《어디 봅시다. 다친데가 없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갈매기의 날개죽이며 몸통과 다리를 조심조심 만져보시고 깃털을 쓰다듬으시더니 상한데가 없다는것을 확인하시고서야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람들을 둘러보시였다.

《지금 좀 열렸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릴겁니다.》

장령은 그이의 뛰어난 명사격술을 두고 거듭 감탄할뿐이였다.

이 모든것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던 만덕로인은 자기가 지금 대낮에 꿈을 꾸고있는게 아닌가싶어 슬그머니 자기의 넓적다리를 꼬집어보기까지 하였다. 타고난 인품과 재기가 과연 출중하신분이다! 어쩌다 내가 늘그막에 그분을 몸가까이 모시는 행운을 만났는가. 해남이녀석이 좀 버릇없이 굴가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도 그이께서 너무나 소탈하시고 허물이 없으시니 그저 가슴이 울렁거릴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뒤에 서있는 해남이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어서 와서 자세히 구경해라. 너도 아마 갈매기를 먼뼉으로나 보았겠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한평생을 갈매기와 함께 지내오면서도 이놈이 곁을 주지 않더라지요?》

만덕로인은 어쩔바를 모르다가 뒤걸음 나서는데 앞질러 해남이가 바싹 다가서며 본격적으로 갈매기

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방 조잘거린다.

《야, 오리발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는데 오리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구 이 주둥이두...》

《너 지간막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그이께서 해남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물으시였다.

《예... 그제 없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잘 못친대요.》

《맞았다. 인젠 갈매기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만하냐?》

《예!...》

갈매기를 안은 해남이의 두눈은 새별같이 빛났다.

3

머리우에서는 여전히 8월의 뜨거운 태양이 빛나고있었다. 총소리가 울린지도 이속했건만 수백수천을 헤아릴듯한 갈매기들은 수건바위우와 드넓은 바다우의 공간을 가득히 메우며 소란스레 우짚어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남이의 좁은 어깨를 껴안으시고 가까운 바위우에 오르시여 먼바다 수평선끝까지 눈길을 던지시였다. 조국의 바다는 볼수록 아름답고 장엄하고 소중하시였다. 그것은 언제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끝없는 신념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것 같기도 하시였다. 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싱그러운 해풍에 몸을 적시고 담속한 애솔포기를 쓰다듬으시며 여러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나신 그이께서는 덧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듯하시였다. 더군다나 갈매기 한마리를 사로잡아놓고 바다가에서 만난 나 어린 소년과 함께 조국의 대자연의 한가슴에 안아보시는것이 더없이 만족하고 즐거우시였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달동안은 전에없이 분명한 가운데 흘러갔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투쟁의 나날이였다. 특히 적들의 군사적도발이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기로 결심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지난달에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16차전원회의가 열렸었다. 온 나라에 다시한번 대고조의 불길을 일으켜 폭풍우를 헤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불굴의 의지, 그것이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여야 할 것인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전원회의결정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요구를 간파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부지구에서 동부지구의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들, 수산기지들을 찾으시며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먼길을 걸어오시었다.

가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은 당의 부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었다.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어 생산이 늘어나며 사람들의 일본새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있었다. 이 양양된 기세가 오분열도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우리 일군들이 만사람의 가슴속에 이 시대의 폭풍을 끄떡없이 헤쳐나갈수있는 주체의 진리를 심어주어야 하며 그것이 순결한 혈통으로 후대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를 더 깊이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게 할것인가...

깊은 사색에 잠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푸드덕거리는 갈매기를 담썩 안고있는 해남이를 바라보는 만덕로인의 가슴은 몽클해졌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지키던 저 푸른 바다위로 내려치는 해남이의 소중한 뱃을 보지 못하고 한갓 철부지 장난으로 책망하던 자기가 스스로도 낮이 뜨거워졌다. 나중에는 종아리를 치겠다고까지 울려했으니...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방금전에 있는 일을 떠껌떠껌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해남이의 어께를 다독여주시었다.

《할아버지, 해남이의 꿈을 키워줍시다. 이 애들에게 드넓은 창공을 열어주고 갈매기처럼 억센 나래를 달아줍시다!...》

뜨거움에 젖은 로인의 눈앞에는 수천만마리의 갈매기들이 꽃보라처럼 풍겨 노을비낀 하늘가로 날아오르는것 같았다. 바다의 넓이며 무한한 희망의 상징인 갈매기들이!...

주위에 둘러선 수행일군들도 깊은 감동에 잠겨있었다.

《저희들이 동물원을 잘 꾸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자금을 들였다는것만 생각하고...》

도의 책임일군이 자책감에 말끝을 흐렸다. 수행원들가운데는 한개 도를 책임진 일군들도 있었고 장령도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바다가 동물원에 갈매기가 없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며칠전 우리가 찾아갔던 시계공장에서 녀성직장장동무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동무는 이번 전원회의결정

을 받들고 일부 불합리한 설비공정을 대담하게 개조하여 생산능력을 두배로 올려세웠다고 합니다. 녀성들이 많은 직장에서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해제낄수 있었는가하고 하자 그 동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남의 힘을 바랄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저앉아있을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나는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고 우리 당의 의지가 아니고 뭘니까. 그 녀성직장장동무는 전후에 바다를 지켜 싸우다가 희생된 저예망선 선장의 유가족인데 우리 수령님의 사상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었습니다. 그 동무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기에 잘 키워서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녀성직장장동무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이의 절절하신 말씀에 만덕로인은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쥔채 그이를 우러러 한결을 나서다가 그만 목이 꺾 베여버렸다. 그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그 녀성직장장이 바로 자기의 며늘애기라고 말씀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었지만 한 가정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그 무엇이 느껴져 감히 입을 열수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형언할수 없는 걱정이 산악같은 멀기처럼 가슴에 밀려와 진정할수가 없었다. 머느리와 해남이의 장래를 두고 혼자서 걱정하던 생각 그리고 자기 여생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던 그 모든것이 가슴치는 그 파도에 휩쓸려 물보라처럼 부서지고 휘뿌러지는것이였다. 그는 건잡을수 없이 뒤설레는 마음을 안고 친애하는 그이의 곁에 서있는 해남이를 바라보았다. 눈물을 닦고 또 닦으며 바라보았다. 해풍에 타고 물이랑같은 주름이 패인 그의 구리빛얼굴에 눈물이 얼룩져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 바다에 넣어놓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한생이 여기에 모여와 꿈같은 축복을 받아안은듯이 느껴졌다.

이윽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남이의 손목을 잡으시고 수행원들에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수산부문 일군들을 내가 만나자고 한것도 당면한 물고기잡이와 가공문제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룩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후대들도 제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도록 하겠는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자는것입니다.》

그이께서 바다쪽으로 또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발아래 수건바위의 벼랑에서는 오후에 접어들어 점점 높아지는 파도소리가 흥분된 가슴들을 세차게 두드리듯 웅글게 들려오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곳을 떠나시기 아

쉬우신듯 거둬 눈길을 던지시여 장쾌하고 드넓은 바다와 억센 바위벼랑 그리고 새집들이 줄지어 반짝이는 어촌과 아늑한 포구를 한품에 껴안듯이 바라보시었다.

그 숭엄하고도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르는 만덕로인은 불현듯 가슴속에서 생의 희열이 용솟음치는것을 느꼈다. 젊어서 홀로 나왔던 며느리가 한없이 측은하여 뒤꼍방을 담배연기로 꽉 채우며 지새운 밤은 얼마였던가. 그가 당의 배려로 대학공부를 떠나던 날에도 오늘과 같은 이런 행복이 차례질줄은 몰랐었다. 이 숨가쁜 삼복더위에 먼길을 걸으시며 어제는 며느리의 소박한 심정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고 내세워주시었으며 오늘은 철부지 손자녀석을 품에 안으시고 온갖 애정을 다 쏟아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래 살면 락을 본다것이 바로 나를 두고 한말이다. 정말 삶이란 기쁘고 즐거운것이다. 저바다가 제아무리 넓고 깊다고 하여도 우리 인민모두를 저렇게 한품에 안아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끝없는 사랑에 비길수가 있겠는가!

만덕로인은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갈매기처럼 자유롭게 나래치며 새 시대의 희망찬 앞날을 향해 마음껏 달음쳐갈 며느리와 해남이를 보았다. 그 아름다운 미래속에 자기도 영원히 살것 같았다. 희생된 아들이 길이 살아있을것이라고 하던 수산협동일군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그 말이 정녕 옳았다...

바위우에서 내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핏 손목시계를 보시더니 수행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벌써 세시가 다 되여오누만... 수산부문 일군들이 오래 기다렸겠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봅시다.》

모두들 그이의 뒤를 따라 바위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난처한 기색이 되여 시계를 자주 보며 조급증을 누르고있던 부관이 이제야 기회를 만났다는듯 그이께 말씀드렸다.

《점심식사를 아직 못하셨습니다. 여길 떠나면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것 같은데 여기서라도 잠깐...》

그러자 그이께서는 다시금 손목시계를 보시더니 고개를 기웃하시였다.

《이 경치좋은곳에서 쉬고 가자는건 참 좋은 생각인한데... 그 동무들을 너무 기다리게 해서 안됩니다. 약속대로 협의회를 하고 일찌감치 저녁이나 먹읍시다.》

만덕로인은 가슴이 저려드는 느낌이었다. 점심을

건느시다니! 동물원에 갈매기가 없는것이 종내 마음에 걸리시여 이렇게 손수 잡아주시느라고 점심시간을 빼앗기신 그이를 어떻게 그냥 바래울수 있랴. 울먹거려지는 목소리를 겨우 다잡으며 만덕로인은 그이앞에 나섰다.

《지도자선생님!... 진작 동물원에 갈매기를 보내주지 못한 이 늙은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이날을 어떻게 잊을수가 있겠습니까. 변변치는 못하지만 저희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떠나주십시오.》

로인의 이 소박한 청에서 인민의 진정을 헤아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시였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후에라도 지나다가 틈이 있으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손자들이 우리 바다의 당당한 새 주인이 되는걸 보셔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해남이를 향해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갈매기를 동물원에 가져다놓고 모두 함께 보아라.》

《지도자선생님!...》

해남이가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만덕은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던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 전딜수가 없었다. 이것이 정녕 그가 바라던것, 슬픔을 모르고 여생을 마칠수 있는 희망이라는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먹은 나이도 다 잊어버리고 조글조글한 손등으로 연방 감격의 눈물을 찍어내며 앞장서서 오솔길의 돌맹이들을 조심조심 치우며 내려갔다...

그날 해질무렵 만덕로인이 만든 새조룡에 넣은 갈매기는 장령의 승용차에 실려 동물원으로 떠나갔다. 교복을 단정히 차려 입고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책가방을 든 해남이도 갈매기와 함께 승용차에 앉아 집으로 갔다. 그는 차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손을 흔들며 뚝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할아버지, 여기 동무들한테 말해달라요- 다음 방학때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요- 내가 동물원구경시켜준다구요- 용남이랑 꼭 오라고요-》

《오냐, 오냐!...》

《떨어질라, 조심해라... 갈매기밥을 꼭 주어라... 아이구, 녀석두, 좋아하는 한다...》

령감을 밀어젖히고 앞에 나서서 따라오며 이렇게 소리친 로친은 한껏 웃으면서 코물을 훌쩍 삼켰다.

만덕로인은 저녁노을에 비껴 분홍빛으로 물든 갈매기들이 수건바위산우에 꽃잎처럼 나뭇기느것을 이윽도록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이께서 고향집을 찾으신것은

리 준

오셨다고

귀하신 그분 오시였다고

고운 새들 바삐 날며 은방울 굴리고

소백수 맑은 물 춤추며 흐르는데

고향집 트랙에 들어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감회도 깊으시여라

풍풍 솟구치는 박우물

두손으로 정히 떠드시고

통마바위도 마음속에 안아보시여라

못잇을 어린 시절 추억하시며

쌍안경 높이 드시여

폐창가 멀리 산밭을 바라보시고

어머님 부르시던 자장가소리 새기시며

쪽무이포단도 살펴보시여라

오 그 한겹 포단으로

자신은 백두의 설한풍 이겨내셨어도

온 나라 인민들에게

세상좋은 집을 주시고

비단이불 포근히 덮어주시고

밤마다 광술불 밝혀들고

마음속에 익히시던 조국의 지도우에

락원의 기념비

수풀처럼 일떠세우시였건만

어린 시절

첫걸음을 떼시던 그 마음으로

고향집앞에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백두에서 시작된 그 길

아직은 만리로 멀고

백두의 붉은기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할

준엄한 시대의 사명이 그이를 부르거니

그이는 고향집과 뜨겁게 이야기하신다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고향아, 언제나 너를 찾아오리라

너의 정갈한 박우물로 목을 추기고

너의 청신한 정기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오오, 그이께서 고향집을 찾으신것은

어린 시절 추억을 못잊어서가 아니였구나

가슴속에 때없이 서려드는

그리움을 가시기 위함이 아니였구나!

헤쳐갈 혁명의 만리길

성스런 위업을 꽃피갈

신념의 맹세, 철석의 각오가

다시 또다시 그이의 가슴속에

백두의 산악처럼 솟아오르고있어라!

눈은 내려도 외 1 편

리건구

자정도 넘어

밤은 깊어가도

눈은 내리고 또 내리고

고향집을 그냥은 떠날수 없어

밀림엔 때아닌 말소리 웃음소리

생눈길 헤쳐 10리를 걸어

답사온 대학생들 여기에 왔네

무엇이나 여기에 남기고싶어

이밤 프락의 눈을 친다네

그들이 떠나가자

이번엔 농장원들

농장원들 돌아가니

원산의 소년단원들

이렇게 그 몇번

런이어 또 몇번

눈은 내려도

눈은 내려도

끝없이 달려오는 만사람의 그 마음

고향집을 받드는 뜨거운 한마음

그 마음 프락에 가득 넘치여

그 마음 너무도 뜨거워

높은 산 넓은 들을 한시에 덮는

흰눈도 이 프락은 덮지 못하네

크지 않은 이 프락을 덮지 못하네

백두산밀영의 설경

해돋이 바위에 아침해 솟아

해살이 가득 퍼지는 푸른 하늘

정일봉마루에 밝은 빛 비치더니

바위벼랑으로 나무숲으로

내려오는 아침해살

내려오는 아침해살

아름다운 백두설경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숭엄하여

절로 숨막찬 이 가슴

백설이여 너처럼 정결할수 있을가

이처럼 밝은 빛이 있었던가

이처럼 눈부신 빛이 있었던가

빛을 안고 활짝 펼쳐지는

아 밀림의 눈꽃바다

백두밀림의 흰꽃바다

한점 티도 없는 가슴으로만

한오리 얼룩도 없는 마음으로만

여기에 들어설수 있으리

기쁘게 마주 설수 있으리

청청한 나무가지의 소담한 백설

흰빛이 이리도 희며

나무가지 이리도 푸른줄

내 정녕 알지 못했구나

아 순결의 절정

아름다움의 한복판

억만보석 백설의 한가운데

아침해살 받아 빛나는 귀틀집

금빛을 뿌리는 백두산의 고향집이여

귀틀집 지붕에도

샘터길에도

포근히 내린 흰눈이 너무 고와

차마 밟길 떼지 못하는 이 마음

이 손 대기조차 송구하구나

정녕 하늘이 정한 계절에

하늘이 정한 자리로구나

세기의 위인이 탄생하신 여기

백두산고향집은 절경의 절경

천하제일 설경이여라

평양에 옮겨진 비봉폭포

어느 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금강산에 들리신 일이 있었다.

천하절승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유원지로 더 잘 꾸려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날 옥류동을 지나시고 가파로운 산길을 오르시여 비봉폭포앞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마치도 봉황새가 깃을 치며 날아가는것만 같은 폭포의 기묘한 절경을 오래 바라보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봉폭포는 언제 봐도 좋다고 하시며 손수 물온도를 재어보시더니 여기서 한번 목욕을 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때 수행하던 촬영가들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무한한 긍지와 희열을 느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밝으신 모습을 사진화면에 수록하였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발기와 지도밑에 평양에는 어느 한 중요한 국가건물이 건설되고있었다.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그 건물을 돌아보시다가 몇해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수행하였던 촬영가들을 급히 찾으시였다. 촬영가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휴계실에 황급히 들어서자 그곳에서 동행한 일군들과 무엇인가 말씀하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반색하시며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였다.

그들은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채 그이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바로 이 방이 앞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 손님들과 담화도 하시고 기념촬영도 많이 하실곳인데 여기서 일하게 될 동무들의 의견을 듣자고 불

렀다고 하시면서 기념촬영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물으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건물의 우아함과 장중함에 탄복을 금치 못하던 촬영가들이였기에 무엇이라고 따로 올릴 말씀이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심중을 헤아려보신듯 너그럽게 웃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념촬영을 하실 때 배경으로 될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어디 한번 같이 보자고 하시면서 벽면의 포장을 벗기도록 하시였다.

순간 촬영가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흰 벽면인줄로만 알았던곳에서 금시 쏟아져내리는듯한 금강산의 비봉폭포가 눈앞으로 확 안겨왔던 것이다.

어리둥절해있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히 이 비봉폭포는 매우 의의깊은곳이라고, 수령님께서 금강산의 절경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시는곳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렇기때문에 기념촬영장에 비봉폭포의 풍경화를 걸려고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촬영가들의 눈앞에는 불현듯 몇해전 비봉폭포앞에서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밝은 미소가 새삼스레 어려와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비봉폭포를 평양에서도 자주 보실수 있도록 그 풍경을 그대로 옮겨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마음앞에 과연 무슨 말씀을 더 드릴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비봉폭포보다 더한것이라도 옮겨오고싶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정이 그대로 헤아려져 촬영가들은 그저 가슴만 뜨거울뿐이였다.

위대한 사랑의 품

박재우

아마도 사람들은 두팔이 없고 두눈이 실명된 특류영예군인이 소설을 쓴다면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몹시 놀랄것이며 어떤이들은 반신반의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나는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진정을 가라앉히며 이야기하고있다. 앞에서는 안해가 나의 눈과 손을 대신하여 원고지에 글을 올린다.

일찌기 홍안의 청춘시절에 멸적의 총창을 비껴들고 원썩와의 결전에 나섰던 나는 어느 습격전투에서 두눈과 두팔을 잃었다.

그후 전승의 축포소리를 먼 후방의 전상자병원에서 들었고 재더미를 헤치며 불사신마냥 일떠선 조국땅에 올려퍼지는 창조의 노래소리도 침상에서 들으며 살아왔다.

그 벽찬 나날들에 나는 내 손으로 번영하는 조국에 보탬이라곤 준것이 없다. 하지만 생활은 제나름이어서인지 지금껏 나는 불행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었다.

이제는 내 나이 예순이다. 예순이 되도록 나라의 혜택만을 받아안고 살았다.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보살피심만을 받으며 오늘에 이른것이다.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 그 은혜에 만분의 일도 보답 못한 불효자식이다.

원썩을 물리치는 성전에서 한몸바쳐 싸운 전사라고 날이면 날마다 철이면 철따라 나의 신상에 겹쌓여지는 배려, 그것을 글로 적으려면 끝이 없다.

계절이 바뀌어질적마다 나를 이끄는 료양소, 다심한 담당의사의 손길, 식욕이 떨어질세라 끼마다 구미를 돋구는 풍성한 식탁...

현대식고층살림집의 넓은 방에 그쫌히 자리잡고 있는 가구들과 비품들... 참으로 한 영예군인을 위해 당에서 베풀어주는 은정과 사랑은 끝이 없다.

하여 나는 내 있는 힘과 지혜, 기능의 모든 가능성을 다해 이 사연을 글로, 노래로 세상에 남기려고 결심다졌다.

나의 문학수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두팔과 두눈이 없는 사람도 성한이들 부럽지 않게 인생의 모든 락과 행복을 향유하는 이런 우리의 밝은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물론 문학잡지들과 도서들에 나간 나의 작품이 지금 생각해보면 미숙한것이 너무도 많다. 또 특류영예군인이 들끓는 사회주의대전설장들에 나가 시

를 읊고 경제선동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랴.

그런데 뜻밖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분망한속에서도 한 이름없는 영예군인의 생활과 창작활동을 깊이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에 이런 훌륭한 인간이 있다시며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해하셨다니 그 은정어린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나는 그만 목이 꺾매였었다.

감격도 새로운 1990년 4월 26일, 나는 이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안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도당회의실에 간 나는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둬되는 치하의 말씀을 전달받았다.

그이께서는 청진시 청암구역 해방동 34반에 사는 영예군인박재우동무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해역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도와 가정을 잘 꾸리고 아들딸들을 훌륭하게 키워 나라의 일군으로 내세웠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과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던것이다.

나는 꿈속처럼 회의장에 서있었다. 꿈이라면 영영 깨어나고싶지 않았고 생시라면 이 한없이 거룩한 품에 안긴 행복에 그대로 노그라들고싶었다.

그러나 감정의 표현은 너무 없어 그저 떠듬떠듬 중얼거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뭐 한게 있다고... 이렇듯...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가 나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어서 연단에 나가자고 재촉해서야 간신히 발을 옮겨짚었다. 하지만 말보다 나는 연락에 뜨거운 눈물만을 쏟았다...

그날저녁 우리 집 창문가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딸애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온 가정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청암골의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

당이어 다정히 그 이름 부르면
이 가슴 바다처럼 끝없이 설레이네
오늘의 이 행복도 그대 주었고
희망찬 미래도 그대 주었네

...

다음날 아침 나는 안해와 아들딸들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꽃바구니를 아버지수령님동상에 드리였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가족결의모임을 가지였다.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준 당에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하자 맹세를 다지였다.

그날부터 나는 창작기지를 들끓는 사회주의건설

장으로 옮기었다. 시와 노래로 경제선동도 하고 현장에서 만난 혁신자들과 같이 생활체험을 하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나의 창작적고충을 헤아려 속필기 능이 있는 필사원을 보내주었고 고마운 이웃들과 학생들이 나의 눈과 팔을 대신하고자 매일처럼 찾아온다.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의 방조속에서 어찌 소설이 나오지 않으랴!

아직도 나의 문학수준은 어리고 기교도 어리다. 하지만 물려서지도 주저앉지도 않겠다. 이 세상 모든 행복과 영광만을 받고 살아온 내가 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이 땅에 생의 뿌리를 둔 인간이겠는가.

나의 심장에 더욱 뜨거운 충격을 불러일으킨것은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회답서한이었다.

서한의 구절구절을 음미할수록 그이의 전사된 영예와 궁지감에 가슴은 마냥 설레인다.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의도대로만 살면 불가능한것이란 있을수 없다. 그이의 령도따라 나가는 앞길에 돌과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다. 이것은 나의 신조이며 앞으로 나의 창작결의이기도 하다.

지금은 서리꽃피는 2월, 백두산 어느 골안에서 봄우뢰소리가 지심을 울리며 들려오는가싶다. 이를 데없이 따사로운 훈향이 한가슴 몽클 스며든다.

아, 복받은 이 땅에서 한없는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인간의 심정을 옮겨놓기에는 원고지가 너무도 제한되었구나. 그것이 비록 수천수만장일지라도!...

좋은 동무들

송천구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조국땅 곳곳에서 날마다 태어나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두고
자애롭게 하시는 그 말씀
-좋은 동무요!

당을 따르고 받드는 한길에
남모르게 묻어가는 보석같은 마음들
하나하나 찾아내어
영광의 인덕에 내세워주시며
그렇듯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는가
-좋은 동무요!

아, 긴긴 세월
열도 넘는 고아들을 맡아키운 어머니
한몸으로 렬차를 구원하고
이름도 주소도 사양하며
고개숙인채 사라진 한 녀인의 소행에
그리도 기뻐하시고

가슴속에 피어나는 꿈도 많았건만
앞뚫보는 영예군인의 눈이 되어
스스로 안해가 되어준 처녀
당이 부르는 대흥땅에 영원히 뿌리내린
미더운 새 세대들을 두고
그처럼 대견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와 집단을 위해 더 마음쓰고
혁명을 먼저 생각하며
참된 삶을 다 바쳐가는 그 진정
소중히 소중히 여겨주시는 말씀이여

정녕
얼마나 많은가 내 조국엔
친애하는 그이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동무들

하나의 일을 펼치여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만 펼치는
당의 품 넓고넓어
저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수 없으랴
좋은 동무들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받들어주시니

아, 은혜로운 인민의 어버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위대하시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 제일 좋은 인민이여라

진달래

신영근

때-현재.

곳-평양산원.

△ 나오는 사람들.

링다 외국인 여성

빌라니 우리 나라 주재 xx 대표부 대표

야즈민 대표부 번역원(빌라니의 안해)

련심 의사

장미 간호원

녀성일군 당중앙위원회 과장.

길녀 산원 요리사.

기타 1, 2

△ 무대, 산원 입원실과 잇닿아있는 응접실이다. 응접실 원탁우에는 전화기가 놓여있고 꽃병에는 탐스럽게 핀 진달래가 향기를 풍기고있다.

그리고 고급의자들과 장식용가구들이 적당히 놓여있으며 무대 랑쪽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의 사실과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

응접실(휴게실)창문너머로 강을 끼고 일떠 선 웅장화려한 주택들과 기념비적건물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바라보인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칭송하여 부르는 외국인 가수의 흥모에 찬 노래가 절절하게 울리는 가운데 막이 열리면 국부조명이 책상등 밑에서 기타를 타며 정열에 넘쳐 작곡을 하는 링다를 비친다.

링다 (작곡한 노래를 불러본다.)

조선의 봄 인류의 봄을 안고
백두의 2월에 탄생하신분
그이는 동방 조선의 새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각하!

△ 그는 흥분에 휩싸여 웨친다.

링다 김정일! 김정일! 향도의 별님이시여!

그이는 인류의 새봄을 꽃피우시는
태양이시여라, 태양이시여라

△ 음악이 흐르면서 국부조명이 꺼지고 자막판에 단막극 《진달래》라는 제명이 새겨진다.

△ 녀성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무대 전반적으로 조명되던 노을이 붉게 타는 아침녘이다.

△ 무대는 비어있는데 창문밖에서 승용차가 달려와 멧는 소리가 들린다.

△ 동시에 입원실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타를 든 링

다가 급히 나온다.

링다 (창밖을 살피다가 락심한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웬일일까? 우리 대표부에서 차를 보내온다더니... (시계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전화기의 번호를 돌린다.) 안녕하세요? 아이 짜마라! 나 링다예요. 그러므로. 건강해요. 애기 두 나두... 그런데 짜마라, 여기로 온다던 승용차는? ...네? 야즈민이 이리루 떠났다고요? 짜마라,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 우리 그이가 도착한다는거지요? 됐어요. 비행장에 가서 다시 만나자요.(수화기를 놓고 기쁨에 넘쳐서) 아, 짜파라트. 몹시 기다렸어요.(손벽을 치듯 두손을 합치며 돌아친다.)

△ 링다 서둘러 입원실로 들어가려는데 갓난아기를 안은 산모가 입원실 문가에 나타난다.

기타1 (뭔가 한가방 메고 들어오다가 산모를 발견하고 속삭이듯 찾는다) 여보!

기타2 오셨어요.(인사한다)

기타1 인사야 내가 해야지. 하하.(다가가 정답게)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저... 아들이라지?

기타2 아이참! 아들이면 어떻게 딸이면 뭐래요. 이름이나 지어왔으면 빨리 말해요.(밧지 않게 눈을 흘긴다.)

△ 그들을 지켜보는 링다의 부러운 눈길.

기타1 (웃다가) 여보, 《충성》이라고 이름 지었소. 오충성!

기타2 아이 좋군요. 오충성! 내 마음에도 들어요.

기타1 그럼 우리 합의가 된셈이요. 하하. (포단을 헤집고 애기를 들여다 보며)충성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손가락으로 다치려다.)

기타2 여보, 아직은 손을 대지 말구...

△ 웃음.

△ 링다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린다.

기타1 가만. 요게 100프로 나를 닮았구만.

기타2 아이참, 지금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좀더 커야지.

기타1 여보 요 사자코랑 언덕이마랑 날 신통하게 닮지 않았소 그렇지 잉? (애기의 입을 맞추려다.)

기타2 아이 아직은 그러면 안된다지 않아요.

기타1 하하(가방을 주며) 자 수고했는데 영양보충을 하오!

기타2 도루 가지고 가세요. 산원에서 주는것도 다 못먹는데요 뭘.

기타1 여보, 이 가방속엔 꿀이 있단말이요. 그러구

닭알두.

기타2 우리 꿀중에서도 제일 좋은 왕벌꿀을 먹어요.

그리구 응답두...

기타1 뭐 응답까지?...

기타2 정말 우리 산모들에 대한 당의 배려가 얼마나 크고 지극한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거예요.

기타1 (뜨거움을 삼킬뿐)

기타2 제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세요.

기타1 그럼 몸을 잘 돌보오. 바람을 주의하란 말이요. (나가다가) 참. 퇴원하는 날 승용차를 가지고 오겠소. 충성아, 아버지 간다.(또 애기에게 입맞추려다.)

기타2 충성이 아버지. 아직은 참으라는데두 자꾸 그러시네.

령다 (소리내어 웃다가 그들결으로 다가서며) 정말 기쁘겠어요. 아들이라지요?

기타2 네, 부인은 딸을 낳았대지요 딸딸을...

령다 네, 나도 그렇구 저의 남편도 딸을 더 바랬어요.

기타1 하긴 우리 나라 속담에 딸딸은 금딸이라고 했습니다.

령다 그렇습니까. 그럼 말씀들 하세요.

기타1 건강하십시오.

령다 감사합니다.(인사를 하고 입원실로 들어간다.)

기타1 (령다를 지켜보다가)어느 나라 사람인가? 아랍녀성같기도 하구...

기타2 나라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구 지금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나봐요.

기타1 그렇소?... 그런데 어떻게 평양산원에 와서 해산했을까?

기타2 남편과 함께 우리 나라 주재 대표부에서 일을 본대나봐요.

기타1 음!...

기타2 의사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저 링다부인은 결혼을 해서 10년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의학이 발전했다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술한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허사였대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와서 평양산원 의사선생님들의 치료를 받구 저렇게 첫딸을 보았다지 않겠어요.

기타1 그것 참 기쁜일이구만.

△ 그들 이야기를 하며 출입문쪽으로 나간다.

△ 무대 잠시 사이.

△ 련심이 의사실쪽에서 나오는데 입원실문가에 장미가 나타난다.

련심 간호원동무, 일찍 출근했구만.

장미 (인사한후)선생님을 찾아가던 참이었어요.

련심 왜?

장미 글썄 외국인 호실 링다부인말입니다. 수직간 호원의 말에 의하면 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질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식산 몇술 뜨다가 말구 오늘 아침식산 전혀 하지 았구말입니다.

련심 (근심에 잠겨) 무슨 일인가? 어제 내가 퇴근할 때도 별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본국에 출장을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았아 근심인가?

장미 글썄...

련심 링다부인이 방에 있던가요?

장미 네, 지금은 화장을 하면서 코노래까지 부르질 았겠어요?

련심 그렇다면 기분상태는 좋다는건데...(거닐며) 무슨 까닭으로 식사도 하지 았고 밤잠을 자지 못했을까?

장미 저, 애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닐가요? 글썄 애기가 태어난지 20일이 가 까와오도록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으니...

련심 ...

장미 결혼해서 10년만에 첫딸을 보았다는데 오죽 이나... 선생님, 우리가 대중토의에 붙여서 이름을 지어줍시다.

련심 요전에 내가 그런 의견을 비쳐보았는데 애아버지와 꼭 의논해서 딸의 이름을 짓겠다고 했어요.

장미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련심 (약간 사이를 두었다가) 장미동무, 링다부인의 애긴 어떻든가요?

장미 갓난애기는 아주 정상이에요.

련심 알겠어요. 내 이제 곧 링다부인을 만나보겠어요. (입원실로 들어가려다.)

△ 이때 링다가 민족옷차림을 하고 나타난다.

련심 (반기며 맞이하던 그의 표정은 의혹으로 변한다) 부인?...

령다 의사선생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미안하지만 내 옷차림을 좀 봐주세요.(저쪽으로 물려나서) 어때요? 이 옷이 나의 몸에 어울리는가요?

련심 저...

령다 아이, 왜 그렇게 쳐다만보시나요? 선생님, 이런 옷차림이 마음에 안드시는가요?

련심 (링다의 손을 다정히 잡고 어루만지다가 의자에 앉히며) 그렇게 입으니 더 아름다와요.

령다 아이 좋아! 호호.

련심 그런데 부인은 어째서 식사도 하지 았고 밤잠도 자지 았았어요?

령다 네? 그건 어떻게?

련심 (링다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다가) 진찰실로 좀 가자요. (일어선다.)

령다 선생님, 전 일없어요. 이제 내 걱정은 하지 았아도 되겠어요. 난 이렇게 건강하거든요.(춤추

듯 돌아간다)

련심 (좁 업하게)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 고민이나 아픔을 숨겨서는 안됩니다.

령다 저를 믿어주세요. 선생님, 제가 잠을 못잔건 어디 불편해서가 아니예요.

련심 그럼, 우리들의 치료에서 혹시 미흡한데라도... 그렇다면 의견을 말해줘요.

장미 어서 말씀하세요.

령다 선생님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전...

길녀 (뭔가 쟁반에 담아두고 허둥지둥 달려들어와서) 마침 다들 계시는군요.

장미 요리사어머니가 어떻게?

길녀 (련심에게) 홍선생, 내 주방안에서 듣자하니, 저 링다부인이 오늘 아침식살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접대원의 말을 듣구 걱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지요.

련심 그렇습니까.

길녀 (원탁우에 쟁반을 놓고)글쎄 그렇게 식사를 잘하던 애기엄마가 갑자기...(링다의 손을 잡고 뜨겁게) 뭘 자기고싶은지 어려워말구 말을 하시우. 나를 친어머니처럼 믿구.

령다 어머님 전...(말끝을 흐린다.)

길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요? 뭘 그러시우. 어떤 요리든지 말을 할것 같으면 내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내 이래봐도 일류급요리사라우. 허허... 참. 이걸 자서보라구.(쟁반걸로 가른다.)

령다 (길녀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어머님! ...의사 선생님! 고마와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들 친절육처럼 보살펴주시니 뭐라구...(목이 메어 잠시 말을 못하다가) 글쎄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애를 낳지 못해 그처럼 마음고생을 하던 제가 조선동지들의 극진한 치료의 혜택으로 딸을 보았는데...

길녀 그렇다면 어째서 식사를 하지 않는지 우리로서야...

령다 어머님, 이렇게 된바엔 다 말씀 올리겠어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귀한 자식을 보면 가장 학식있고 가장 존경하는분을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답니다.

길녀 음, (머리를 끄덕인다.)

령다 그래서 전 우리 사령부에 출장을 간 애아버지한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했어요.

저의 간절한 요청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통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이였어요. 내가 대표부에 전화를 거니까 우리 그이가 오늘 도착한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무 기쁘기두 하구 나의 간절한 요청이 실현되겠는지 궁금해서 어디 잠을 이룰수 있겠더라고요.

련심 그런걸 우린 부인이 어디 편치 않아서 그러는 줄 알구...

길녀 그렇다니 나두 마음이 놓이누만, 허허.

령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인제 대표부에서 차가 오면 비행장으로. 나가야 해요. 애아버지를 마중하러...

장미 그러니까 갓난애기도 함께 데리고 비행장에 가야겠지요?

령다 예, 그인 나보다 자기 딸을 더 보고싶어할테니까요.

장미 야 오늘이야 갓난애기에게 진짜 이름이 생겼네. (령다를 붙들고) 야 뭐라고 이름 지었가요?

길녀 간호원이 더 좋아하는군, 허허...

장미 글쎄 애기 이름이 없다니니 갓난애기건강관리부엔 아직도 엄마의 이름이 적혀있다니깐요.

《링다》라구 호호.

길녀 뭐 어머니 이름을?... (웃는다)

장미 글쎄 한번은 내가 애기를 얼리노라고 《링다. 링다!》 하니까 복도를 지나가던 부인이 《예!》 하면서 애기방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겠어요.

△ 모두 웃는다.

장미 (링다에게) 애기웃은 내가 입힐래요.

령다 고마와요.

△ 링다, 장미에게 끌려 입원실로 들어가고 그들을 지켜보던 련심과 길녀는 제각기 나간다.

△ 잠간 사이

△ 이윽고 군복차림에 위생복을 걸친 빌라니와 그의 안해 야즈민이 들어선다.

빌라니 (입원실쪽을 살피며 머뭇거리다가) 야즈민 들어가 링다를 여기로 좀 불러오우.

야즈민 (주저앉으며) 여보. 당신이 들어가세요. 난 링다를 불러낼것 같지 못해요.

빌라니 여보, 그러지 말구 어서!...(떠민다)

△ 야즈민 마음을 진정하고 입원실로 들어간다.

△ 빌라니, 불안을 안고 야즈민 들어간쪽을 지켜보고 섰다.

△ 야즈민 들어갔던쪽에서 쫓기듯 달려나온다.

빌라니 ?? 여보? 야즈민...

야즈민 빌라니!(안긴다)

빌라니 왜 그러우? 무슨 일이요?

야즈민 링다가 글쎄 애기에게 새옷을 입히고있어요. 비행장으로 남편 마중갈 차비를 하는거겠지요.

빌라니 ... (담배를 꺼내들뿐)

야즈민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싸파라트가 행방 불명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링다는 아마 기절할거예요.

빌라니 (생각끝에)여보, 그렇다면 오늘은 그 애긴

하지 맙시다.

야즈민 안돼요! 그래선 안돼요. 당신이 그 소식을 안고 사령부에서 돌아온지가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오늘도 말을 안하고 지내면 그건 더 큰 죄악으로 될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녁 링다에게 거짓말을 한것이 후회돼요. 오늘쯤 남편이 돌아올거라구...

빌라니 참 당신두 그런 말은 왜?...

야즈민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을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는데.

빌라니 (한숨끝에) 산모가 그러면 병이 생길텐데...
야즈민, 우선 담당의사선생을 좀 만나야겠소.
(의사실쪽으로 간다.)

야즈민 여보, 같이 가자요.(따라나가려ندا.)

△ 이때 링다가 입원실문가에 나타난다.

소리 링다아주머니!-

링다 좀 기다려요. 기타를 가지고오겠어요.

야즈민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웨치듯) 링다!-

링다 (반갑게)야즈민! 네가 왔구나! 나의 친구! 대표사모님! (야즈민을 불안고 입을 맞춘다.)

야즈민 ...

링다 기다렸어. 눈이 빠지도록... 그래 승용차는 왔겠지?

야즈민 (머리를 끄덕일뿐)

링다 고마와, 참 야즈민 내 옷차림이 어땠니? 오늘은 우리 싸파라트가 오면 나를 곱다구 품에 안아줄것 같애?(웃다가) 아니, 넌 갑자기 병어리가 됐니? 아니?!...

야즈민 (울먹이며)옷색같이 계절에 맞추... 링다의 몸에 꼭 맞는다 맞아...

링다 그래?(춤추듯 돌아치다가) 그런데 야즈민, 네 눈이 왜 그렇니?

벌겋게 충혈이 진게... 너 혹시 빌라니와 다투고 울잖았니?

야즈민 다투긴?... 어제밤 일이 ...좀 생겨 잠을 설쳤더니...

링다 일이 몹시 바쁜 모양이구나. 대표부 통역관일이 힘들거야.

야즈민 (끌어안을뿐 말은 못한다.)

링다 야즈민, 긴 애긴 비행장으로 가면서 하기로 해. 우리 싸파라트 랑군님이 비행길 타고 비행장에 먼저 오면 날 얼마나 원망하겠어. 내 애길 안고 나올게!

야즈민 링다! (끌어앉히며) 저... 인제말이야 오늘은 비행장에 가지 않아도 돼!

링다 (놀라서) 뭐?! 너 또 남의 속을 태울려고 거짓말을 하는거지 그렇지?

야즈민 아니야. 그렇게... 연락이 왔다니까.

링다 그렇다면 그이가 언제 오신다는거니?

야즈민 저... 인제 곧... 정확한 날짜를 알려줄거야, 사령부에서...

링다 그러니 대표동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겠구나?

야즈민 ...응?!

링다 너의 빌라니말이야.

야즈민 빌라니...

링다 아직 안돌아왔니?

야즈민 (얼결에 머리를 끄덕인다)

링다 안됐어, 대표동무모구 버릇없이 빌라니라고 불려서...(맥없이 주저앉는다.)

야즈민 별 소릴 다... 우리 넷이야 한고향에서 태어나 같이 자랐는걸 뭐.

링다 (한숨을 짓는다.)

야즈민 링다, 너무 피로와하지 마. 너희 남편이야 말은 임무가 중해서 약속한 날짜에 오지 못할 수도 있는거구...

링다 야즈민, 네 말이 옳아. 난 그저 내 생각만 하다 나니. (가볍게 웃는다.)

야즈민 참 링다, 내가 어떤 기쁜 소식을 갖고 왔는지 알아?

링다 뭘가?!... 아이 속상해. 어서 말해?

야즈민 (들고 온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주며) 링다가 쓴 시가 조선잡지에 실렸단말이야.

링다 뭐?! 어디?...

야즈민 (책장을 번치다가)이거!

링다 아이 정말...(읽는다.)

야즈민 (일어나 저쪽을 살피며 불안에 싸인다.)

링다 야즈민 누구와 같이 왔니?

야즈민 아... 아니... 저 좀 크게 읽으렴, 나도 좀 듣게.

링다 이미 읽어보구선...

야즈민 허지만 시인선생이며 작곡가인 네가 읽는걸 듣기야 다를게 아니겠니.

링다 그렇다면 내 읊겠다.(감정을 내어 읊는다.)

오 향도의 별 김정일동지

내 비록 그이를

가까이 모시지 못해도

그이를 우러르고

그이를 따르노라!

하늘의 못별들 총총해도

향도의 별은 오직 하나

그 별은 나의 별

희망의 별

그 별빛은 등대의 빛과 같아

어둠속을 헤매이는 사람들
그 빛발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거니

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희망의 빛발
그이께서 찾았거니
그이는 향도의 별
내 그이께 영원토록 충성하려는
오직 한마음뿐

이 한몸 정원의 꽃잎되어
그이를 기쁘게 헤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라

영원히 빛나라 향도의 별이어
김정일 각하이시여
우리의 앞길 밝히시며

우리 중심으로 인사를 드리노라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야즈민 (흐르는 눈물을 수건으로 닦더니 가볍게 손
벽을 친다) 정말 잘 썼어! ...축하해 링다!

링다 아니야, 아직은 내 시가 너무도 미숙한걸. 존
경하는 **김정일** 각하! 그이의 위대한 사상은 찬
란한 아침노을처럼 온 세상에 빛나고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품은 봄날의 해
빛처럼 따뜻해.(더욱 정열에 찬 목소리로) 그
이는 평화와 정의의 화신이지구 단결의 중심이
지구 인류 행복의 상징이신데 내가 쓴 시야 어
디...

야즈민 (링다를 껴안고) 옹게 말했어. 그이는 우리
희망의 전부이지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
쟁의 기수이서! 우리 언제나 그이를 위대한 령도자
로 높이 모시구 원수놈들과 싸워이기자!
그래서 빼앗긴 우리 조국을 꼭 다시 찾자!
그 길에 시련이 많고 슬픔이 겹쌓여도 견디면
서 기어이...

링다 (야즈민을 힘껏 껴안으며) 야즈민, 좋은 말을
해줘서 고마워. (주사기를 든 련심의사와 빌라
니가 들어오는것도 모르고) 야즈민, 내가 요즘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기타를
잡으며)...
이니 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니?
들어보겠어. 안들어보겠어?
야즈민 어서... 불러봐!
링다 (정열에 넘쳐 기타를 타며 노래를 부른다.)

조선의 봄 인류의 봄을 안고
백두의 2월에 탄생하신분

그이는 동방 조선의 새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

빌라니 (더 참지 못하고 나서며) 링다!

링다 (놀라며) 어마나! 대표동무가?!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돌아오셨군요. 먼길을
다녀오시노라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야즈민에
게) 대표동무와 같이 오구선 감쪽하게 날 속였
네.(웃다가 야즈민에게 달려들어 아프지않게
때린다.)

야즈민 링다!...

링다 (빌라니에게 다가서며) 우리 그인 언제 오서
요. 같이 왔나요? 왜 말이 없어요.

빌라니 (링다를 의자에 앉히고나서) 링다, 마음을
굳게 먹구 내 말을 듣소.

링다 ...?!

△ 련심, 걱정되어 링다결으로 다가선다.

빌라니 싸파라트는 돌아오지 못했소.

링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싸파라트가 잘못했
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빌라니 (사이를 두었다가) 5일전이었소. 싸파라트
는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고 부대로 돌아가던 도중 적들로부터 불의에
추격을 받게 되었소.

링다 네?! 그래서요?

그는 놈들과 결사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다가 몸
을 겨우 피했는데 일이 잘 안될세라 강 절벽이
였다오. 놈들은 싸파라트를 생포하려고 투항할
것을 강요했지만 그는 장렬한 최후를 각오하고
절벽아래로 떨어졌는데...(더 말을 못한다.)

링다 그래서 희생됐단말인가요?

빌라니 그 소식을 듣고 사령부에서는 전투원들을
과건하여 찾아보았지만 아직 그의 행처를 찾지
못하였소.

링다 (떨리는 소리로) 그럼 시체도? ...싸파라트!

-(두손으로 얼굴을 싸진다.)

△ 이때 장미가 링다의 딸을 안고 임원실문가에 나
타난다.

빌라니 링다 진정하오! 정말 미안하게 됐소. 내가
싸파라트의 생사여부를 알아가지고 돌아와야
하겠는데 대표부에 급한 일 이 제기돼서... (편
지를 꺼내들며) 링다, 이걸 받소. 싸파라트가
새 임무를 받고 떠나가면서 동무에게 보낸 편
지요.

링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쳐본다.)

△ 싸파라트의 음성이 확성된다.

《링다! 나의 전우이며 사랑하는 안해인 보고실

은 링다! 요즘 나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소. 그것은 나에게 딸이 생겼다는 기적같은 소식이 평양에서 전해왔기때문이였소. 그 기쁨은 나뿐 아니라 우리 사령부 전체 성원들의 기쁨이기도 하였소. 끝새 온 사령부가 우리 딸의 이름을 짓노라 며칠간이나 야단법석이였었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것이였던가를 짐작할거요. 그렇지만 링다, 나도 사령부성원들도 얼른 딸의 이름을 지을수가 없었소.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여 10년만에 딸을 본데도 있었겠지만 조선-평양에서 태어났기때문이였소. 그런데 마침 빌라니가 사령부에 도착하여 당신의 편지를 전해주었소. 당신의 편지는 나를 무척 기쁘게 하였소. 더구나 편지에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여마지 않는 **김정일**각하께 우리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되었을 때 난 정말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가 없었소. 그렇지만 여보! 우리 나라 풍습대로 귀한 자식을 낳으면 가장 학식있고 가장 존경하는분을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다지만 온 세상에 그처럼 명망이 높으신 **김정일**각하께 하잘것없는 딸자식의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어떻게 요청을 하겠소. 링다, 우리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다시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링다 (편지를 더 읽지 못하고) 싸파라트, 당신 생각이 옳아요.

△ 이때 링다의 딸애가 울음을 터뜨린다.

링다 (애기를 지켜보다가 다가가 꼭 그러안고 어깨를 들먹인다)…아버지가 없으니 누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겠니.(흐느낀다.)

야즈민 링다!(링다의 잔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빌라니 링다! 그만 진정하오.

△ 이때 산원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녀성일군이 들어선다. 그리고 뒤따라 큰 함을 안은 부원과 의료일군들이 들어선다.

비서 (먼저 들어오며) 파장동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일군 (빌라니를 알아보고) 대표동무, 여기와 계신단 말을 들었습니다.

빌라니 파장동지…

일군 대표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본부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빌라니 네?! (놀란다.)

일군 (링다에게 다가서며) 싸파라트동무의 부인이신가요?

링다 (인사하며)… 처음 뵈겠습니다.

일군 (그의 손을 잡아주며) 뭐라고 위안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사이를 두었다가) 어제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표동무를 접견하신후 밤길도록 집무실을 떠나지 않으시고 링다부인과 싸파라트동무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새로 태어난 딸애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었습니다.

링다 네?! 그이께서…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우리 딸애의 이름을 말입니까?

일군 네! 그이께서는 동무가 우리 나라에 와서 첫 딸을 본것은 부모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경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형아기랑 색고운 천을 고르고 고르셔서 이렇게 애기의 옷감까지 보내주시었습니다. 링다동무, 어서 이걸 받으세요.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손수 써주신 딸애의 이름이 있어요.

링다 (흐느끼며 딸애를 장미에게 안겨준다. 그리고 선물함을 받아안고 한참동안 어깨를 들먹이다가 함의 뚜껑을 열더니 그속에서 붉은표지의 종이장을 꺼내든다. 목멘 소리로 읽는다) 진-달-래 흐흐!

야즈민 (웨치듯) 진달래!!

일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조국땅에 승리의 새봄을 안아오는 선구자가 되라는 숭고한 뜻을 담아 그애의 이름을 〈진달래〉라고 지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링다 (목멘 소리로) 진달래! -(달려가 딸을 와락 끌어안고 흐느끼다가)…이름없는 한 외국인의 소원이 뭐길래… 그처럼 바쁘신 각하께서… 우리 딸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시고…선물까지 보내주신단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야즈민 빌라니(감격으로 목이 메여) 고맙습니다.

빌라니 (일군에게) 파장동무! (뜨거움을 삼키며) 세상에 크고작은 나라들에서 어찌하여 **김정일**각하를 높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지… 부정의와 싸우는 수백수천만의 빨찌산들과 유격대원들이 어찌하여 그이를 친근하신 어버이로, 위대한 스승으로 받드는지 내 오늘 다시한번 심장으로 뜨겁게 느꼈습니다.

△ 일군 빌라니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야즈민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에겐 향도의 큰 별님이 계시여 인간의 존엄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어요.

(격조높이) **김정일**각하 만세!-

△ 모두 따라 부른다.

△ 음악이 고조된다.

△ 이때 전화종이 울린다.

련심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빌라니에게) 대표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빌라니 (전화를 받는다)예, 나요. 아, 싸마라! 무슨
일이요. (몹시 놀라며) 뭐라구? 싸파라트가?!
그래서?... (뜨거움을 삼키며) 음! 음
...알겠소.(수화기를 놓았으나 얼른 말을 못한
다.)

령다 (의아해서 빌라니를 지켜보다가) 대표동무!...
야즈민 무슨 일인가요?

빌라니 (령다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젠 됐소. 싸파
라트가, 싸파라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령다 뭐라구요?

빌라니 절벽우에서 강물속으로 떨어진 싸파라트는
한 배사공로인의 구원을 받아 살아났는데 지금
은 우리 사령부병원에서 치료중이래요.

령다 그게, 그게 사실이에요 네?

빌라니 방금전에 사령부로부터 소식을 알려왔다고
싸마라동무가 말했소.

령다 (기쁨에 넘쳐서) 여보! 싸파라트!...

야즈민 링다! (끌어안고) 이젠 됐다, 됐어!

△ 모두 링다를 둘러싸고 감격으로 설레인다.

령다 (빌라니에게) 대표동무, 어서 이 사연을 싸파
라트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소원대로 **김정일** 각하께서 친히 딸의 이름
을 지어주셨다구... 그러면 그이가 새힘을 얻구
더 빨리 회복할거예요.

빌라니 알겠소, 알겠소! 진달래가 어떻게 태어났으
며 어떻게 그처럼 뜻깊은 이름을 가지게 됐는
가를 우리의 모든 민족들뿐 아니라 온 세상인민
들에게 전하겠소.

령다 (힘있게) 그러자요. 그러자요.

△ 음악 더욱 고조되고 모두 감격으로 설레일 때
서서히 막이 내린다.

원양의 바다우에 해가 뜰 때면

리 영

잠깐 원양의 바다우에
두둥실-해가 솟아오른다
갑판에서 손짓는 동무들이
이런 때면 멀리 포구는 잠들어있는 때

허나 이런 때면
파도처럼 기슭으로 달리는 마음
환희에 넘친 포구의 아침이
너무도 눈에 삼삼 보여오누나

머리수건 흔들며 발을 구르며
떠들썩 운반선을 맞아들이는
계수원처녀들의 그 모습도...
기증기 쇄그물에 떠실려
부두에 옮겨지는 랭동명태 무지들도...

아 또 하루 밝아온 새날을 안고
꼬마 지게차들은 경쾌하게 달려가리
조국의 곳곳에 찾아갈 구내선의 화차들은

출발고동을 길게 울리리

정든 기슭을 떠나 몇만리
포구는 지금 단잠에 들어있어도
원양의 바다우에 해돋는 이런 때면
더더욱 밝게만 보여오는 포구의 아침이여!

동무들아, 어서 빨리 고기때 후려내자
정든 포구에 보내주는
우리네 숨결, 그 정열이 없다면야
포구의 아침이 어떻게 환희로우랴
포구의 아침이 어떻게 당겨지랴

잠깐 원양의 바다우에
두둥실-해가 솟아오른다
떠나온곳은 천만리먼 어머라
들끓는 포구의 아침은
여기서부터 둥-둥-밝아오누나

하늘가에 높이 솟은 정일봉

구희철

하늘가의 정일봉

백두산에서
끝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설레이는 이깔, 분비나무숲
울울창창한 천년원시림의 나무들
인민의 천손만손이 받든것 같구나
하늘가 높이 정일봉을...

첩첩한
산악의 깊은 골을 내려
멈춤도 없이 련달아 흐르는
소백수 맑은 물
그칠줄 모르는 물소리
숲의 설레임소리와 함께 울리는 그 소리
인민이 천만 목소리 합쳐 부르는것 같구나
정일봉의 노래를...

성스러운
혁명력사의 자취를
덧쌓인 가랑잎밑에 새기고
벗긴 나무에 쓴 글발로
세월은 흘렀어도
그날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는
못잊을 추억의 흔적 깃들어
서늘하고 싱그러운 숲의 향기에서도
삶의 숨결을 안겨주는곳이여

여기서
여기 백두밀영 고향집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조선의 미래를 기약하며
인민의 영원한 축원속에
조선의 아들로 탄생하시였구나

처마를 서로 잇대인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
마을앞 긴 동쪽에서
송아지 영각소리 울리는 그런곳도 아니

흑한속에서도 흰김을 뿜어올리며
지줄대며 흐르는
소백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곳

협악한
백두산줄기의 산악과 산악
산바람에 넘실대는 숲의 파도
때때로 산악의 성미를 꺾어보려
무섭게 울리던 천둥 우뢰소리
아름드리나무도 순간에 넘어뜨리던
시퍼런 린광을 날리던 번개의 칼날
길길이 쌓여 녹을줄 모르는 눈
한번 일면 좀처럼 멎을줄 모르던 눈보라

여기서
여기 백두의 험산에서
의지를 버리며 자라나셨구나
여기에 그때 있었던가
어린 마음에 즐거움을 안겨줄
그 무엇이...

있었다면
고향집 마당가에 떨어지던
이깔나무, 가문비 나무의 작은 솔송이들
전장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쥐여주던
화약내 풍기던 탄알깍지
그것이 어린 아이를 즐겁게 하여줄
동무였고
기쁨이 아니었던가

너무도 험악한 산밭에서
친애하는 그이 탄생하시였구나
나서 처음 남긴 자욱을
꽃길에 아닌
피어린 향일의 대전장에 남기시며

오, 엄혹하였던 시련을

다 말하여주는 고향집앞에서
하늘가에 바라보이는 정일봉을 우리르며
나 또한 이깎 분비나무숲
그 어디 자리 빈곳에 마음을 세우고

그 천손만손에 내 두손도 합쳐
하늘가 더 높이 받드노라
정일봉! 혁명의 성산에 솟아
천년을 만년을 빛나라고...

소 백 수

연초록 햇잎을 돌리며
무성하는 소백수 기슭의 나무숲
하얗게 서렸다 사라지는 꿀안개를
물결에 담아신고 흐르는
소백수 맑은 흐름...

해빛이 나무그늘에
해종일 무늬를 놓는
산길따라 걸노라면
반갑다 맞이하는 소린 듯한
소백수 물소리...

싱그러운
숲의 향기
산바람에 실려오고
찬물바람 시원함을 더하여주며
산악의 깊은 골을 내려 흐르는
소백수 물향기!

물결에
비껴담고 흐르는 뜻은
기슭에 울창한
나무들처럼 많고도 많아
생각의 흐름 물줄기에 잇게 하는
고향집앞 소백수!

물결처럼
지난 일 흘러갔어도
못잊을 추억은 그대로 남아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오고 떠나가는 이들
가슴가슴 적셔주는 소백수!

소백수 물기슭에서
끝없는 물결우에
어린 꿈을 실어
하얀 종이배를 띄웠노라고...

옛말아닌 전설
흐르는 물결에 다 담고
오늘은 정일봉을
물결에 담아신고 흘러
소백수 물소리 기쁨의 노래런듯

소백수! 소백수!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왔다 돌아가는
사람들 가슴가슴에
너는 그 유정한 물소리로
끝없는 새 전설 전해주고있어라

귀틀집 생가에서

하늘가에 닿을듯
높이도 치솟은 정일봉기슭
땅에 닿을듯
처마낮은 밀영의 고향집

둘러선

이깎 분비나무숲
울바자인듯 주련이 늘어선
밀영에 자리잡은 귀틀집

여기서
이 소박한 고향집에서

친애하는 그이의
어린 시절이 흘러갔구나

마당가가
술이고
한가닥의 산길마저
풀숲에 가려있는 이곳

오, 귀틀집앞에
생각깊이 다가서니
마음속에 어려오는
만경봉 기슭의 초가집
오산덕 기슭의 결방살이집

그 어느 생가앞에
기름진 벌이 흘렀던가
그 어느 집앞에
삶의 부유함을 말해주는
그런 유물이 보관되어있었던가

대를 물리며
유산으로 넘겨준것이란
가슴속에 불붙던 애국의 념

혁명의 큰 뜻이 아니었던가

있을것이 다 있고
바라던것이 다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집들이었다면
이렇게 우리 생각 깊어질수 있을까

오, 조선의 가난을
모두다 말해주는
만경봉 기슭의 초가집
오산덕 기슭의 결방살이집
정일봉 기슭의 귀틀집이여!

그 집집의 처마는
땅우에 닿을듯 낮았어도
품고 사신 뜻만은
하늘에 닿을듯 높은 집들이 아니었던가

이름데 없이 수수한
탄생하신 집들의 처마가 이어져
조선의 푸른 하늘로 얹혀졌구나
그 하나로 펼쳐진 하늘아래
인민은 만복을 누리여라

봄을 불러 피는 꽃

피였어도
찬 눈바람 맞받아 핀 꽃
백두밀영고향집 트랙에
꽃수를 놓으며 뿌리내린 만병초

장수봉에서 쏟아지는
눈사태소리
어디선가
봄을 부르며 짹짹 얼음 터지는 소리

눈밑에서 녹아흐르는 얼음장
얼음장 그밑엔 세찬 물줄기
서둘러 소백수 봄물 꽃뿌리 적시니
여기서 봄노래 조국강토에 실려 흘러라

먼저 핀 하얀 서리꽃
뒤이은 은빛 버들개지
빠금히 첫 눈 뜨는 봄
만병초도 방긋이 망울지는 봄!

만병초 네가 피여
봄은 완연하여
눈속에서도 꽃시절
마음은 봄명절이여라

만병초, 점점이 핀 너를 보면
천만 마음 천만 생각
밀영의 고향집 그 창가에 피였던
그윽한 만병초 꽃향기 가슴에 젖어와

그 봄에 싹튼 이 강산의 봄
그 봄에 꽃핀 이 행복의 꽃
그래서 당을 따르고 받드는 마음속에
만병초 너는 늘 피어있어라

세월은 저 멀리 흘러갔어도
못잊을 추억의 그날을 다시 불러
뜨거운 인민의 마음속에 펼쳐놓는
백두밀영고향집 트랙의 만병초여!

백두의 해돋이에 망울터친 그 꽃송이
꽃구경 신이 난 아이들 밝은 웃음에 피고
창광원 꽃분수가에 옮겨피고
산원의 보석꽃주단우에 꽃축포속에 어리어라

만발하라 만병초!
눈속에서도 봄을 노래하며
조선의 영광 만리에 전하며
정일봉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과 흠모의 송가

-가요 《친근한 이름》에 대하여-

리상복

행복한 생활이 소리없이 깃들고있는 불밝은 창가
마다에서, 전투적기백과 투지, 뜨거운 열정과 희열
이 끓어넘치는 모든 일터마다에서 우리 인민모두의
다함없는 흠모를 안고 가요 《친근한 이름》이 절
절하게 울려 퍼진다.

어머니란 말과 같이 다정하여라
스승이란 말과 같이 친근하여라
기쁨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은
가슴속에 밝고밝은 해가 솟아라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가요 《친근한 이름》은 우리 인민모두를 행복과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경모의 정과
사상감정을 깊이있고 심오하게 감동적으로 노래하
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아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일대 민족적통성
과 번영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궁지롭고 행복한 생
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
나서는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사는 이렇듯 궁지
높은 민족적자부심과 크나큰 영예, 우리 조국의 찬
란한 미래와 무궁한 통성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가요 《친근한 이름》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향
도성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한없이 우러
르며 친애하는 그이를 영원토록 끝까지 받들어 모
시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확고한 의지, 신
념의 세계를 깊은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고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이 충성의 가요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숭고한 감정세계에 담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세련된 시형식에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담
아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가사를 창작할데 대한 우
리 당의 명가사창작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가사가 좋
아야 곡이 잘된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다.》

가요에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
그대로 뜨겁게 형상되고있다.

실로 가요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
이 경모하는 우리 인민의 혈연적인 사상감정을 뜨
거운 흠모의 정을 담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요에 반영된 사상적내용을 되새겨보느라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이 친근한 그 이름 높이 부르며 영원히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려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뜨겁게 느끼게 된다.

노래의 가사는 이러한 사상주제적내용을 통속적
이면서도 진실하게 세련된 시어로 예술적으로 훌륭
히 표현하고있다.

1절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
을 인간생활에서 가장 다정하게 불리우는 《어머
니》와 《스승》과의 관계속에서 환기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누리며 사는 행복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서 기쁘
면 기쁜 순간마다 행복하면 행복에 겨운 때마다 언
제나 그리며 불러보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시다.

참으로 기쁨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 가슴속에는
밝고밝은 해가 솟는것이다.

뒤질세라 피로울세라 안아주시고 떠밀어주시며
온 나라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키워주시고 영
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시여 삶의 가치를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녕 우리 어찌 한순간인들 그 품을 떠나 살수
있으랴.

가요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
러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서
쇠물처럼 끓어번지는 열화같은 이 사상감정을 뜨겁
게 재현한것이다.

다음으로 가요의 2절에서는 남너로소 할것없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존경하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을 깊은 정서속에 밝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맑은 소리로
아침저녁 그 이름을 노래에 담네
행복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은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이 피여라

아침저녁 행복속에 친근한 그 이름 노래에 담아 부를 때면 잊을수 없는 그 나날들이 어리어와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는 우리 인민이다.

누구나 안기면 크나큰 믿음속에 삶의 행복을 누리며 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쁨속에 행복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 언제나 마음속에 향기로 온 꽃이 피어오르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영원한 충성과 변심없는 효성을 바쳐갈 드팀없는 신념에 불타고있는것이다.

가요의 3절에서는 1, 2절에서 승화된 이러한 사상감정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있다.

온 세상이 받드는 친근한 이름
해님으로 우러르는 친근한 이름
투쟁속에 그 이름 부를 때면은
온 누리에 붉은 노을 찬란하여라

사람들에게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어나가도록 보살펴주시고 뜻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온 세상이 받드는 위대한분이시며 해님으로 우러르는 친근한 지도자이시다.

가요에서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이러한 사상감정을 간결하고 세련된 시어로 훌륭히 구가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전사된 우리 민족의 영광에 대하여 다시한번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가요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칭송하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내적체험에 기초하여 인민의 지도자를 받들어모시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가요는 또한 깊이있고 철학적인 사상적내용을 우리 생활에서 친숙해지고 널리 쓰이는 언어표현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밝게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시형상의 통속성을 보장하고 견인력을 비삼히 높이고있다.

《어머니란 말과 같이》, 《스승이란 말과 같이》,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침저녁 그 이름을》, 《온 세상이 받드는》, 《해님으로 우러르는》 등 가사에 쓴 시어들은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즐겨 쓰는 친숙한 어휘들이다.

이처럼 통속적이면서도 인민적인 시어들이 있어 노래는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안겨주는것이다.

가요의 서정구조를 보면 매 절의 첫 두행에서는 친애하는 그이의 친근한 인민적품모를 통속적이며 대비적인 시형상으로 표현하고 다음 두행에서는 경모의 정 차넘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낭만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전렴에서의 사상감정을 더하여 전투적기백으로 줄기차게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또한 가사의 깊은 서정성과 생동성을 잘 선택된 시어들과 잘 짜인 운률조직에 의하여 빈틈없이 담보하고있다.

노래의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말의 억양과 고저관계, 그 운률이 매우 고르고 규칙적이며 순탄하다. 때문에 가요에서는 서정성이 잘 보장되고있다.

가사의 형상수법에서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같이 노래의 기본사상을 담고있는 표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가사의 사상감정은 비할바없이 높이 승화되고있으며 가요의 전반을 밝고 절절한 음조로 일관시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에 넘친 사상감정을 잘 부각시켜주고있다.

이처럼 가요 《친근한 이름》은 매개 시어들로부터 운률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기쁨 그리고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해갈 불같은 신념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가요가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것은 또한 높은 시적형상과 함께 절절하면서도 정서가 깊은 곡조의 독특한 형상에 있다.

노래는 가사에 담겨진 우러르는 흠모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이며 지향적인 선률형상으로 더욱 강조해 주고있다.

밝고 약동적인 리듬에 기초하면서도 절절한 정서로 충만된 이 노래의 음악형상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없이 우러르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구가한 가사의 사상적내용에 맞게 정다우면서도 절절하게 한없는 친근감과

뜨거운 흠모의 정을 더해주고있다.

특히 선률은 규칙적으로 흐르다가 후렴에 가서 사상감정을 폭발시켜 한껏 터침으로써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심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가요의 사상정서적감정을 더욱 돈구어 주고있다.

가요는 가사와 곡이 잘 맞물려있어 가사를 읽어 내려가느라하면 벌써 곡이 자연스럽게 안겨오고 곡을 부르느라하면 가사가 절로 떠오른다.

가요는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을 더욱 북돋아주며 그이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며 영원히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굳은 결의로 가슴을 불타게 한다.

참으로 가요 《친근한 이름》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훌륭하게 창작된 시대의 명작이다.

청산리 외 1 편

김재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청산리 청산리
꽃속에 묻힌 마을길을 걸어도
활기에 넘친 그 뉘를 만나도
친지같이 정답고 고향처럼 다정해
내 가꾼 땅인듯싶은 아름다운 산천이여

실실이도 푸른
버드나무아래
흙물오른 멍석우에서
담배도 권하시며
우리 수령님 저물도록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담화하신곳

농민들의 심정
속속들이 다 아시려
수도는 가까워도
자그마한 농가에서 친히 저녁도 드시고
가정의 아버지되시여
식구들과 여러날밤 함께 보내신곳

어버이 그 사랑 그 은정 속에
위대한 그 사업 그 심혈 속에
청산리사람들
정신도 일본새도 몰라보게 달라진
사회주의농촌의 새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거니

그날의 수령님 말씀
그날의 수령님 사색에 실려
봉상강의 푸른 생명수 분수로 솟아
석두재언덕에 과일꽃 피웠고
기계화의 봄노래 포전마다 사시절 울려
이랑이랑 사람은 아니보여도
포기포기 황금으로 설레는 땅

이것이 아니라
찬란한 농촌체제의 빛발아래
꽃수레타고 달려가듯
공산주의 향해 곧바로 달려가는
사회주의농촌의 생동한 새 모습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청산리 청산리
그날의 수령님 영상
그날의 수령님 사업방법
불멸의 화폭으로 새겨안고
락원으로 솟아오른 영광의 땅이여

천지개벽한 너를 보려
온 나라가 모여온다
청산리정신을 배우려
온 세계가 찾아온다
아, 공산주의 이상촌 조선의 청산리

새봄맞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다리랴
청산마을 처녀들아 들판으로 어서 가자

진달래꽃 수건일랑 멋으로만 살짝 쓰럼
기계화의 봄노래로 봄소식을 뿌려가자

가슴속에 불붙으니 얼굴 화끈 달아올라

찬바람이 불어와도 봄바람이 스치는듯

봉상강 굽이굽이 단잠자는 포전마다
발동소리 울리면서 새흙 가득 퍼나가고

석두재의 기슭따라 뿌려놓은 뽕상모
우리 정성 봄빛되어 푸른 싹을 키워가자

봄이라도 이해 봄은 희망넘친 새봄이다
빼꼭새가 울기전에 농사차비 다해가자

그 누가 아장아장 봄아씨가 온다더냐
우리모두 봄이 되어 들판으로 달려가자

청산벌에 봄이 오면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벌에 풍년들면 온 나라에 풍년든다

우리 당의 높은 뜻을 꽃피우는 봄맞이는
사회주의완전승리 앞당기는 새봄맞이

에헤라 달려가자 청산마을 처녀들아
만풍년 꽃피우는 대지의 봄이 되자

세기의 념원

리충평

향산의 수려한 산발도
너를 위해 일만경치로 피어나는가
찾아오는 사람들 계절없이 이어지는
력사의 집
국제친선전람관이여!

대양과 대륙넘어 찾아온 손님들
여기로 먼저 발걸음 달려오거니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피어나는 경모의 눈빛은
어찌하여 한빛으로 그리도 빛나는가

아담한 대리석층계를 굽이돌아
들어서는 방마다 마주서는 진렬대마다
정성으로 빛나는 귀중품들마다엔
수령님 안녕을 받들어
티없는 마음으로 다듬은 손길 어려있고

그 어느 시대의 위인도 견줄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력사의 공적을
가장 높은 칭호와 위훈으로 받들어갈
인류의 열망이 불타는 최고의 표창들

위대한 령도의 손길로
인류의 새봄을 펼치시고
만인미덕의 자애로운 한품속에
인간재생의 새삶을 안겨주시는
태양의 열기에 현혹된

세상만민의 축원이 꽃피여났거니

마주선 정성품마다
들어선 방마다 받아안은 걱정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근동과 아시아
드넓은 세계의 판도를 순간에 안아본
높뛰는 숨결이 아니었던가

창공에 찬연히 머리든 합각지붕 우러르며
말없이 옷깃 여미는
그대들의 가슴속에 솟아 빛나는
경모의 집
국제친선전람관이여!

너는 솟아있구나
주체의 태양을 받들어
인류의 수억만 량심이 기원한
만수축원의 탑!
자주시대의 봄빛을 따라 피어나는
세기의 념원이
천만년 받들어갈 경모의 탑!

위대한 수령님 받들어 모신
우리 인민의 한없는 공지와 자부
주체조국의 높이로
세기의 하늘가에 빛나고있어라

박 동

박래수

은야탄광은 우리 나라 굴지의 로천탄광이다. 바다를 안고 휘우듬히 펼쳐진 사방 수십리 탄광구역에 들어서면 첫눈에 띄는것이 웅기중기 솟은 피라미트모양의 박토산들과 그 인공산들이 끝나는곳에서 꾸준히 새 《피라미트》를 쌓아올리고있는 두대의 강철거인-박토처리기이다.

탄광사람들은 이 박토기를 흔히 《꼭두기》라고 부른다. 완연 하나의 공장을 방불케 하는 이 기계는 기관실과 운전실이 달린 몸체가 탑식의 3층건물과 맞먹는다. 백수십미터의 긴팔로는 한번에 열다섯립방의 박토를 떠서 자그만치 삼백메터나 던져버릴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장관은 이 육중한 거인의 《견는》 모습이다. 주변의 박토를 빙 둘러 파먹고 작업장을 옮길 때가 되면 유압으로 두개의 발통이 슬며시 내려와 백톤도 넘는 어마어마한 자기 몸을 가볍게 떠올린다. 그러면 다른 두개의 발이 일정한 보폭을 내짚어 몸체를 끌어가고 몸과 함께 옮겨온 뒤발이 다시 몸체를 떠올려 내짚는 식으로 온순한 코끼리마냥 점잖게 전진한다.

《꼭두기》라는 별명은 그래서, 그 요란스레 꼭두룩한 키며 걸음새에서 유래되었는데 별명은 그리 고상하지 못하지만 은야사람들은 이 쌍둥이 거인을 탄광의 자랑으로, 말 못하는 귀여운 아기처럼 사랑스럽게 여긴다.

1

산언덕을 에돌아 이리 휘고 저리 굽은 황토길로 승용차 《갱생》이 먼지를 말아올리며 바빠 달리고 있었다. 차에는 도당전원회의에 참가했다가 탄광으로 돌아오는 은야탄광 초급당비서 윤영준이 운전사 옆좌석에 앉아있었다.

네모진 검은 얼굴에 장미가 수북하고 입술이 두터워서 인상이 몹시 무뚝뚝하고 엄해보이는 윤영준의 심정은 지금 어지간히 초조하였다. 그가 오늘아침 도당책임비서로부터 전해들은, 탄광에서 일어난 사고의 전말은 놀랍다기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지난밤 새벽 세시경에 새 작업장으로 옮겨가던 1호박토기가 수렁에 빠졌는데 설상가상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가 더 깊이 잠겨서 기관실로 물이 침습할 위험까지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박토기를 수렁에 빠뜨리다니... 영준은 정녕 어이 없었다. 탄광에서 10년가까이 일해오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두루 겪어봤지만 박토기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고는 아직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였다.

아무튼 구조대책이 용이하고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할텐데... 공교롭게도 지배인이 외국에 출장가고 없는 때라 영준은 걱정만 자꾸 앞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별판에 나선 차는 크기가 엇비슷한 두개의 박토산이 마주서있는 사이로 빠졌다. 거기서부터는 탄광구역이었다. 차창앞으로 오리발처럼 생긴 세갈래 길이 달려왔다. 운전사가 영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청사에 들리겠습니까?》

영준은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기사장이 어디 있을것 같냐고 되물었다. 서른안팎의 너저런 굵게 생긴 운전사는 잠간 생각해보더니 아마 사고현장에 나가있을거라고 했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오리발》의 가운데 《가락》으로 접어든 《갱생》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사장 송정규는 탄광참모부며 2광구사람들과 함께 박토기구조대책을 토론했다가 윤영준을 맞이했다.

《이거 비서동무 없는새 사고를 쳐와서... 전원회의는 끝났습니까?》

《오늘 오후에 끝나오.》

발동을 끈채 감탕속에 허리를 잠그고 죽은듯이 서있는 박토기를 바라보는 그들 두사람의 모습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송정규는 쪽 빠진 키에 이마가 시원히 넓은데다 얼굴까지 희고 기름해서 꼭 한그루의 싱싱한 백양을 연상시킨다면 보통키에 몸이 다부진촉인 윤영준은 마치 바람세찬 산기슭에서 자란 다박솔 비슷하였다. 게다가 그는 고질적인 심장병때문에 얼굴에 부종기가 있어 신일곱이라는 나이보다 곱어보였다.

송정규는 사고가 일어난 경위며 왜 그것을 예견할 수 없었는가를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박토기의 운행로를 전날에 미리 확정까지 했으나 봄철이라 땅밀로 썸이 흐르며 습지대가 형성된것을 모른것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대책이었다. 수렁이 넓고 깊어서 기관만 돌리면 그 진동과 자체중량때문에 박토기가 자꾸 내려앉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합당한 대책은 뭐이요?》

형편이 오면서 예상했던것보다 썩 더 심각한데 새로운 불안을 느끼며 영준은 물었다.

《해체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자행기중기능력에 맞게 토막쳐서 들어내는 방법밖에는...》

얼핏 보매도 그건 그럴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준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한데 토막쳤다가 다시 조립하자면 며칠이나 걸릴가?》

《아마 한달은 잘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기사장의 대답에 영준은 그만 아연해서 입에 물러던 담배를 땅에 떨어뜨렸다.

《아니 그럼 한달분 석탄을 거저 잃어버린단 말이요?》

은야와 같은 로천탄광에서는 박토처리량이 곧 석탄생산량이다. 그런데 탄광의 반년분과제를 각기 물고있는 박토기 한대가 한달을 일 못하면 수만톤의 박토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그만한 량의 석탄을 못캔다는 말과 같으며 나아가서 탄광이 국가로부터 받은 계획을 엄청나게 미달하는 결과에 떨어지는것이다.

《탄 방도가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제가 총국을 잘 납득시켜 계획과제를 좀 조절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준은 송정규의 그 해결책에 동감할수 없었다. 그가 말하는 조절이란 제가 못하는 계획분을 다른 탄광에 넘겨써우거나 계획수자를 줄인다는것으로 결국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또 그것은 이번 도당전원회의 정신에도 맞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17차전원회의 결정 관철문제를 기본안전으로 취급한 이번 도당전원회의에서는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중에서도 초점을 이룬 문제의 하나가 석탄문제인데 전원회의가 미처 끝나기도전에 계획조절을 운운한다는것은 원칙적으로도 탈선이거니와 당적량심이 우선 허용하지 않았다.

송정규는 당비서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원 비서동무두... 이것저것 다 안되면 팔짱을 끼구 구경만 하고있습니까?》

그는 지금 형편에선 될수록 해체작업을 서둘고 다그쳐 다문 하루라도 시간을 더 얻어내는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기사장이 이쯤 나오면 더 고집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영준은 잘 안다. 그만치 송정규는 아무 일에 부닥쳐서나 정확하고 빠른 길을 찾을줄 알며 일단 결심이 서면 제끼손도 있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영준은 자신의 한마디 동의에 수만톤

의 석탄을 영영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밖에 달리 방법이 없단말인가?...

멀리 탄광지휘부가 있는 본동쪽에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울렸다. 오늘따라 별로 길고 귀따갑게 울리는 그 고동이 멎기를 기다려 영준은 다분히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저 고동은 몇분간 물리게 되어있소?》

송정규는 당비서가 신경질을 부리는것이 벌써 해결문제를 내심 동의했기때문이라는것으로 넘겨짚고 선선히 대답했다.

《아마 30초일겁니다.》

《저것도 전기를 쓰는 물건인데 좀 짧게 올리면 안되우?》

송정규는 된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한 10초가량 올리도록 지시하겠노라고 하며 물었다.

《그런데 박토기문제 어찌잡니까?》

윤영준은 쓴약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상을 잔뜩 찌뿔하고 서서 기관실로 물이 차오를가봐 웅덩이를 파고 림시로 설치한 양수기가 일하는 모양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푸쩍없이 대꾸했다.

《그야 기사장동무가 탄 방도가 없다는데 낸들 뭐 어찌겠소.》

동의는 그렇게 했지만 영준은 도당에 실패를 보고할 일부터 난처했다. 이미 알고는 있지만 구조작업이 한달이나 걸린다고 하면 거기선 필쩍 뿔것이다. 혹시는 도당책임비서동무가 실패를 알아보러 직접 내려올지도 모른다. 도안의 석탄사정은 그토록 긴장하고 은야탄광이 걸머진 짐 또한 그렇게 무거운것이었다. 그런들 어찌는가, 그렇게밖에 달리 방도가 없는데야... 불현듯 답답해오는 가슴을 느끼며 그는 손으로 심장부위를 지그시 눌렀다. 부정맥으로 뛰는 심장의 박동이 손바닥에 알린다. 이것은 요새 별일없다 했더니 왜 이 모양인가, 혹시 또 발작하려는게 아닌가?...

탄광본부가 자리잡고있는 소재지마을 어귀에서 차를 보낸 영준은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이백여호가 넘는 마을 안쪽으로 지배인네와 이웃하고있는 단층 문화주택이었다.

기침을 앞세우며 토방에 올라 정지문을 여니 안해는 없고 탄광마을 인민학교 선생인 딸 금옥이 다 리미질을 하다말고 일어나 가방을 받았다. 답답한 가슴을 애써 감추며 양복을 벗어 옷장에 넣은 영준은 옷방에 올라가 책상뺨람에서 약봉투를 꺼내들고 내려와 구들에 앉았다. 약봉투를 본 금옥의 오목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또 가슴이 아프세요?》

영준의 심장병은 집안의 걱정거리여서 식구들모두가 관심이었다. 그러나 영준은 딸이 소동을 피울가봐 자동차로 왔더니 멀미가 나서 그런다며 어서 물이나 떠오라고 했다. 금옥은 아버지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뺨히 쳐다보더니 부엌에 내려가 사발에 물을 떠들고 올라왔다.

약을 먹은뒤에 영준은 베개를 내려 이불장앞에 길게 누웠다.

《어머닌 어디 갔느냐?》

《너맹에서 뽕밭을 조성하는데... 저녁에야 오실

거예요.》

대답하며 금옥은 다리미 스위치를 눌렀다.

《그런데 그건 무슨 옷을 다리미로 달리니?》

금옥은 학급아이의 교복이라고 했다. 싸움질을 하다가 코피를 흘렸기에 벗겨다 빨았다는 것이었다.

《쫓쫓쫓...》 영준은 허부터 차며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양하길래 그 모양인가고 나무랐다. 그러나 금옥은 제편에서 되려 언짢아하였다.

《다 그 탄광박토기때문이에요. 그건 왜 수령에 빠뜨려가지구선...》

금옥이 담임하고있는 학급에는 공부도 잘하면서 아주 친한 두 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오전 마지막수업이 끝난뒤 이 두 소년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동기는 수령에 빠진 탄광 1호박토기때문이었다. 한 아이는 해체하지 않고선 꺼낼수 없다 하고 다른 아이는 아니다, 그체로도 끌어낼수 있다고 우겼다. 그러다 나중엔 서로 제주장이 옳다고 소리치며 주먹질을 하는데까지 이른 것이었다. 철없는 아이들의 싸움이야기였지만 영준은 짚이는바가 있어서 물었다.

《그러니 그 해체한다는 아인 누구네 아이고 그체로 꺼낼수 있다는건 누구네 아이냐?》

《해체한다는건 기사장네 아들이고 이쪽 아인 아버지가 공무직장 기사예요, 김광국이라구... 다들 성미가 폐로운 사람이라고 하던데 제보기엔 그렇지 않더군요.》

《김광국?》 분명 들던 이름인데 얼굴표상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점심밥을 한다고 금옥이 부엌으로 내려간뒤에도 영준은 웬일인지 두 소년의 이야기가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합몰된 박토기 해체문제를 제기한 것이 다름아닌 기사장이고 보면 그의 아들이 그랬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보였다. 아버지에게서 들었을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다면 공무직장 기사의 아들이 한 말은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열살난 아이의 혼자머리로 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해낼수 없다. 그 애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소리를 옮겼을수 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기사나 다른 누구에게 박토기 구조작업과 관련한 어떤 새 방법이라도 있는게 아닐까?... 그럴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영준은 자신이 기사장의 해체안에 너무 서둘러 동의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아서 이제라도 알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그는 옷방에 올라 전화로 기사장택을 찾았다. 탄광병원 의사인 기사장의 안해가 전화를 받더니 반가와하며 인사삼아 물어왔다.

《심장은 어떻습니까?》

의학대학을 나와 한때 도병원 심장소생과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는 늘 영준의 심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었다.

《모두 넘려해주는 덕분에 요샌 무사히 뛰고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당장 병원에 통보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성화될것 같아 영준은 혼연히 거짓말을 했다. 녀의사는 믿는 눈치였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세요. 심장이 뛰어서 인간이 있습니다.》

《선생의 말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어 기사장과 전화가 바뀌자 영준은 물었다.

《거 공무에 김광국이라는 기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준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송정규는 잠시 동안을 두더니 전에 언젠가 1호박토기 주전동기를 구워먹은 사건이 생각나는가고 되물었다. 영준은 생각났다. 그러나 너무 어려해전 일이어서 기억이 어렵뜻하였다.

《그때 사고를 친 장본인이 바로 김광국입니다. 평성석대 탄광기계학부 졸업생인데 모험기가 있는데다 성미까지 괴벽해서 호평을 못받지요. 한데 그 사람한테서 뭐가 제기되었습니까?》

영준은 딸한테서 들은 소리를 그대로 옮길가 하다가 자칫하면 남을 웃길수도 있겠다 싶어 이렇게만 말했다.

《글쎄 아직은 추측뿐인데 내 생각엔 그 사람한테 1호박토기 구조작업과 관련한 무슨 착안이 있는것 같소.》

송정규는 전혀 뜻밖인듯 한참 잠잠해있더니 시원스럽게 웃었다.

《있을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꼭 하나일순 없으니까요. 그러니 해체준비는 김광국을 만나보고 포치하십니까?》

영준은 헛수고하는셈치고 그러자고 했다. 혹시 알겠는가고.

2

썩-쿵, 썩-쿵... 공기함마의 힘찬 동음에 벽이 덜덜 떠는 공무직장 부문당비서의 방에서 영준은 김광국을 만났다. 마주앉고 보니 그리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려해전 일로서 그가 저지른 심중한 잘못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책벌을 주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로 두번씩이나 담화한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김광국은 승인도 없이 1호박토기의 무인조종시험을 하다가 천오백마력 주전동기를 태워 박토기를 닳새나 일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호된 비판을 받고 행정적조치로 기사급수가 강급되었다. 그런데 또 그 1호박토기문제로 만나게 되었으니 사정은 다르다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은 묘하게 그것과만 운명이 얽혀지는셈이다.

영준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상대방을 뜯어보았다. 나이는 마흔다섯정도, 키는 보통을 조금 넘고 언덕 이마가 유묘하다. 좀 작은 날카로운 눈과 찌그러질 사한 입가에는 버릇처럼 쓴웃음이 굳어져있다. 불쾌감을 자아내는 그런 웃음은 우월감이 강하거나 이즈러진 성격의 표현이다. 흔히 이런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고 남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여 내심의 말을 듣기 힘들다. 아마 그래서 여기 부문당비서도 아까 담화를 하기전에 귀뜸했을것이다. 성격이 못돼 먹어서 담화하기 힘들거라고...

《내가 기사동무를 만나자고 한것은》 하고 영준은 드디어 말꼭지를 뗐다.

《혹시 동무에게 1호박토기 구조작업과 관련한 어떤 비방이 있지 않소? 이건 순전히 내 짐작이오만...》

한순간 김광국은 우뚝 놀라며 몸이 굳어졌다. 그러나 인차 굳어진 자세를 풀며 랭담한 표정을 지었다.

《비서동무는 어째서 그런 짐작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겐 아무 비방도 없습니다.》

크게 기대한건 아니라 해도 영준은 실망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내심에 무엇인가 감추며 속을 터놓지 않고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여보 기사동무, 우리 피차 솔직하길요. 오늘 동무의 어린 아들이(인철이말이요.) 학교에서 대들이로 싸웠소. 왜 싸웠는지 아오? 그건 1호박토기때문이요. 그 애 주장은 해체하지 않고도 그걸 수령에서 꺼낼수 있다는거요... 난 인철이의 주장이 곧 동무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나로선 더 할말이 없으니 돌아가도 좋소.》

김광국은 쓰거운 표정으로 장갑을 말아친 무릎우의 주먹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돌아갈것인가 말것인가를 가늠해보는것 같았다. 그러나 종시 일어서지는 않고 오래동안 생각만 뒤번지더니 이윽고 가슴을 높이 들었다 놓으며 집어던지듯 말하는것이였다.

《그래 무슨 방법이 있다면 실현할 용의들은 되여 있습니까?》

《그야 방법의 현실적가능성여부에 달린거지. ... 한데 정말 뭐가 있긴 있소?》

《...》

《그렇다아!...》

우연한 돌팔매에 쥘을 잡은 격으로 영준은 자신의 추측이 맞은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서 그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김광국은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나 당비서의 요구라 거절하지는 못하고 결상에서 일어나 앞에 오더니 쥐고있던 장갑짜를 책상우에 갈라놓았다.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원리는 별게 아닙니다. 현재 작업중인 2호박토기를 여기 수령에 빠진

1호기결에 끌어다놓고 전기배선을 조화시키면 이 2호기의 기관으로 1호의 유압계통을 움직일수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유선원격조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니까 2호박토기 기관을 돌려 1호기를 움직여 제발로 습지를 극복할수 있게 한다, 그거요?》

김광국은 쓸쓸한 낫빛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음...》 영준은 책상우의 장갑짜에 눈길을 준채 생각에 잠겼다. 착상은 지극히 단순하다. 하지만 얼마나 기발한가? 전기나 기계공학에 대해서는 두더지 하늘을 아는만치나 안다고 하겠지만 리치적으로 심분 가능해보였다.

《그건 그렇고... 이 방법으로 한다면 1호를 수령에서 빼내는데 며칠이나 걸릴가?》

그에 대해서는 미처 타산못해본듯 잠시 발부리를 내려다보던 김광국은 대수롭지 않게 사흘이면 충분할것이라고 하였다.

(사흘?!...)

갑자기 심장이 후두둑 뛴뛴 가슴벽을 찢는듯한 어린 아픔이 전신을 휩쓸었다. 한달에 비기면 이것은 큰 횡재가 아닌가. 아니 기적이라고 할수 있다.

《종구만, 아주 좋소. 사흘이라... 한데 동무는 어째 이런 좋은 착안이 있으면서 여태 가만있었소. 왜, 전에처럼 또 무슨 과오를 범할가봐 겁이 나오?》

《에-에?》

김광국의 얼굴에서 갑자기 피기가 싹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눈길이 거칠어지고 입을 짜악 앙다문 불에서 근육이 두어번 꿈틀거렸다. 잠시 그린자세로 앉아있더니 얼음같이 찬 어조로 잘라말했다.

《비서동무, 그런 말은 더 하지 맙시다. 여기에 저의 과거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너무 돌발적인 변화여서 영준은 어리벉벉한 속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박토기를 사흘동안에 꺼낼수 있다는 소리에 기뻐서 그만 상대가 피백한 사람이라 유리그릇처럼 다루어야 한다는것을 잊은것이였다. 하기가 어느 누가 실책이 있는 쓰라린 과거를 남이 상기시키는걸 즐겨워하랴.

《내 공연한 소릴 했으니 량해하우. 그러나 어쨌든 동무가 그런 좋은 착안을 하구서도 우에 제기하지 않은건 잘된 일이라고 불순 없소. 동무도 알게 아니요, 박토기를 해체하면 한달이 걸리고 그 한달새에 석탄을 얼마나 잃어버린다는걸 말이요.》

《그건 저도 압니다. 알지만... 전 구태여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시다.》

《그건 어째서?》

《제기해야 그냥 해체할테니까요.》

《아니 그채로 꺼낼수 있는 좋은 착안이 있는데 왜 해체한단 말이요?》

《그래도 해체합니다. 두고보십시오.》

김광국은 땡땡한 눈덕을 내리깔고 앉아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허허허...》

영준은 웃지 않을수 없었다. 성미 피격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이사람도 역시 제생각만이 정의라고 우기는 습벽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영준은 당비서앞이라고 해서 꺼리는것 없이 제할소리를 톡톡하는 그가 밋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가공도 거치지 않고 난대로 있는듯한 거친 성미가 재미있고 친근하게 생각되었다.

3

《착상이 기발하다는 말은 옳은것 같습니다. 원리상 모순점도 크게 없어보이고...》

영준의 설명을 듣고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송정규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취할만한 방법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아니 왜?》

속에 잔뜩 쌓아올렸던 산같은 기대가 순간에 허물리우는 감을 느끼며 영준은 쾅한 눈길로 송정규를 쳐다보았다.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지요.》

밤색의 잠바식작업복차림에 오른발꿈치를 깔고 엉거주춤하니 앉은 송정규는 돌맹이를 하나 찾아쥐었다. 김광국의 착안을 설명하느라고 윤영준이 땅바닥에 그려놓은 박토기모형을 손바닥으로 지워버리고 잠간새에 새로운것을 그려놓았다.

《우선 두 기계를 결합시키기 위해 2호박토기를 여기 함몰구역으로 끌어오는것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 2호마저 수렁에 빠뜨릴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시추기로 찢어보면서라도 어떻게 조심히 데려올수 있다치고 문제는 이 두 기계사이의 전기동력과 유압계통을 통일시키는 기술작업입니다. 두 기관의 유기적연계가 이루어지자면 적어도 수십개의 전기배선을 기관과 기관사이에 늘여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1호에서는 주행부의 배전계통이, 2호에서는 기관부를 통채로 녹여먹을수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면 우린 한달을 얻으려다 두달이나 한분기를 잃게 되지요.》

송정규는 워낙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라 영준의 엉성한 설명만 듣고도 김광국의 착안이 가지고있는 기술적난점을 투시해본것이다. 그렇다고 윤영준에게도 할말이 노상 없지는 않았다.

《글쎄 기술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횡재하는 셈인데 한번 대담하게 내밀어보지 않겠소? 내 생각엔 기사장동무가 말아안고 나서면 문제없을것 같구만.》

그것은 윤영준의 진심이자 꼭 그래주기를 바라는 희망이기도 하였다. 그만치 송정규는 기술실무에 들어서는 막히는것이 없다는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는 영준이뿐아니라 온 탄광이 인정하는바였다.

《허, 제가요?》 송정규는 딱한 미소를 짓더니 손

에 쥐고있던 돌맹이를 던지며 일어섰다. 영준이도 따라 일어섰다. 마침 그때 통나무를 무겁게 실은 자동차가 그들이 서있는 앞으로 지나가다가 멈춰섰다. 운전칸에서 2광구장이 내다보며 송정규에게 통나무를 어디다 부리라는가고 물었다.

《아르, 아르밀에 어디 적당히 부리요.》

시퍼런 배기가스를 한뭉테기 남기고 차가 떠나가자 영준은 물었다.

《그러니 기사장동무는 종시 해체하자는거요?》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모험도 해볼게 따루 있지 솔직히 말하면 김광국의 방법은 나나 비서동무에게 있어선 운명을 모험하는거나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박토기문제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영준은 더 할말이 없었다. 송정규가 너무 실패하는 경우만을 강조하며 지레 손들고 나앉는것이 불만했으나 리해되는바도 없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박토기 두대를 일시에 고장시켜 두달이나 석달쯤 세워두면 온 탄광이 그야말로 초상난 집처럼 으스스산해질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태의 엄중성으로 보아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내앞에 서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니 이런 정황앞에서 누가 오금이 저리지 않으며 운명에 대하여 생각지 않으랴. 그것은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순간 문득 김광국의 비웃는듯한 얼굴이 떠오르며 그가 하던 말이 상기되었다. 착안은 착안이고 제기해야 어쨌든 박토기는 꼭 해체한다고... 이제와서 영준은 그가와 그렇게 말했겠는가가 비로소 리해되는것 같았다. 그러고보면 김광국은 벌써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다 알고있었다. 착안을 해놓고도 제기조차 하지 않은건 필경 그래서일것이다. 나는 그런줄도 모르고 피격한 사람의 속단으로 여기며 웃어버렸으니 김광국이야말로 얼마나 나를 가소로운 인간으로 웃었을것인가...

날이 퍼그나 어두워서야 영준은 당위원회의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설친데다 온종일 돌아치며 말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쓴탓에 몸이 저속 피로했다.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고싶지 않아 책상 뺨람에서 약봉투들 꺼내 답답한 가슴을 달랜 그는 책상에 마주앉았다. 여러날 사무실을 떠나있은 관제로 읽고 처리해야 할 문건들이 많았지만 전화기부터 끌어당겼다.

《거 도당교환을 불러주요.》

도당교환이 나오자 그는 책임비서의 방에 대달라고 했다. 전화는 인차 련결되었다. 도당책임비서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영준은 앉은자세를 바로하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은야탄광 초급당비서 윤영준이 전화합니다.》

《아 비서동무요, 수고하요. 그래 그쪽일이 어떻게 되어가고있소?》

영준은 도당책임비서도 대충 아는 조건에서 사고의 전말은 요약하고 박토기해체문제며 김광국의 안 때문에 겪고있는 고충에 대해서만 주로 말했다.

책임비서는 다 듣고나서 잠잠해있더니 물었다.
《그래 비서동무는 그 두가지 안중에서 어느것이 더 마음드오?》

《그건 김광국의 안이지만...》

차마 뒤말을 못하고 갑자르는데 도당책임비서가 이어주었다.

《가슴이 떨린다는거겠지?》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당에서 지지해준다면 한번 밀어볼 용의도 있습니다.》

도당책임비서는 생각에 잠긴듯 아무 말이 없더니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탄부들과 기사들은 뭐라고 하오?》

《그 사람들과는 아직 논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야 하오. 중요한것은 도당책임비서의 지지표가 아니라 탄부들과 기술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립장에 서있는가 하는거요. 내 생각에 그들은 김광국기사의 안이 선택되기를 바랄것 같은데 어쩡소. 비서동무의 생각은?》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만... 토론해보겠습니다.》

《토론해보, 어쨌든 문제는 동무네 탄광사람들의 심장에 달려있소 심장에... 내 말이 리해되오?》

《예, 리해됩니다.》

전화가 끝난뒤에도 영준은 한동안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였다. 귀전에서 책임비서의 결결한 목소리가 그냥 울리는것 같았다.

탄광사람들의 심장문제라... 옳은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지지나 기술적가능성보다 심장이 먼저 필요하다, 그 누군가 심장을 내대야 하며 일이 나빠지는 경우 모든것을 책임지고 법앞에 설 각오를 해야 한다, 잃어버리는 석탄을 찾는 길은 거기에 있으며 그래야만 자기 량심앞에서 떳떳이 말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고... 그러니 누가 심장을 내대고 법앞에 설 각오를 해야 하는가, 누가?...

똑똑똑... 누군가 나드는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준은 깊이 잠겼던 생각에서 벗어나며 《예》 하고 대답했다. 그다음 송수화기를 놓고 일어서는데 문이 방싯 열리며 딸 금옥이 해사하니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 나이론 꽃보자기에 싼 3단밥통이 들려있었다.

《어째 왔느냐?》

《어머니가 아버지 인차 못들어오실게라면서 저녁식사를...》

《지금 몇시제 벌써 밥을》 하며 얼핏 시계를 본 영준은 은근히 놀랐다. 어느새 아홉시가 넘은것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차라리 잘했다고 생각한 그는 장탁에 나와 결상을 당겨앉았다.

금옥은 보자기를 풀어 그릇들을 벌려놓고 맞은편 창문밑 긴의자에 가서 치마폭으로 무릎을 싸고앉았다.

《어머닌 뭘하느냐?》

영준은 수저를 들며 물었다.

《정필이네 할머니 70돛생일잔치보러 갔어요.》

정필이네 할머니란 한고향태생이래서 안해와 각근히 지내는 동네 늙은이다.

《너도 같이 가볼게지.》

《은 아버지두, 교원이 위신없게 그런데 낯을 내밀어요?》 금옥은 오목눈을 꼭게 흘기며 짐짓 어이없어 했다.

《남의 잔치집에 간다고 위신없으면 이담 제가 시집가선 아예 교단에서 내려야겠구나?》

아버지의 통담에 금옥은 그러게 그딴 시집 누가 갈줄 아느냐고 아닌보살하더니 갑자기 생각난듯 물었다.

《참 아버지, 김광국이란 기사가 박토기를 수령에서 끌어내는 아주 굉장한 착안을 했는지요?》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것이 불과 몇시간전인데 어느새 소문이 학교울타리안에까지 날아들어간것이다.

《하기는 했다면...》

영준은 저절로 뒤말이 막히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무리 딸아이라도 방법이 모험적이여서 결심을 못한다고 하기엔 부끄러웠다. 그러나 달리도 생각해보았다. 차라리 이애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래서 이애의 아무런 타산도 꺼릴것도 없는 솔직한 대답을 들어본다면...? 대학공부도 했겠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참과 진리만을 가르치는 교원이니 제나름의 주견이 있을것이 아닌가.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영준은 숟가락을 놓고 엄격한 선생앞에서 시험을 받는 심정으로 박토기 해체문제며 김광국의 착안에 대해 알아들을 만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래 만일 네가 이런 상황에서 나같은 립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했을상싶으냐?》

아버지의 심중한 물음앞에서 금옥은 어지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새침해진 얼굴로 모아세운 실락한 무릎우에 시선을 떨구고 앉아 생각을 토틈더니 드디어 말이 준비된듯 얼굴을 들었다.

《저라면 말예요, 음... 전 그 김광국기사의 방법으로 해보겠어요.》

스스로도 자기 용단이 대견한지 금옥은 가슴을 내밀며 목을 쑥 뽑았다.

《답보는 뭐냐?》

《답보야 있지요, 그건 여기에 있어요.》

자신있게 말하며 금옥은 손으로 봉싯한 원편 가슴웃쪽을 가볍게 눌렀다.

《제가 동흔소리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그와 관련해선 문제가 이렇게 서야 한다고 봐요. 어느 방법이 더 현실적인가 하는것을 생각하기전에 허무히 잃을 시간과 석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 생각이 심장과 합쳐진다면 모험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을거예요.》

(결국은 이애도 심장소리로구나!)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자. 만약 네 말대로 그 모험을 단행하다가 실패라도 하여 내가 엄중한 책벌을 받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건 심장도 이기지 못하는것이다.》

금옥의 밧그레 상기되었던 낫색이 서리가 불린듯 해쓱해졌다.

《원 아버지두,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그리고는 호-오 한숨을 내분 작은 입을 꼭 다문 채 한동안 그런듯이 앉아있더니 이윽고 자신의 가슴속에 다져넣듯 또박또박 힘주어 말하였다.

《그래도 전 결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눈물을 흘리진 않을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그게 뭐 아버지 자신이나 공명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에서도 무척 책벌을 주진 않을거라고 전 믿어요.》

《음-》

영준은 가슴이 뭉클 젖어왔다. 얼마나 원칙적이고 마음속에 티 한점 없이 깨끗한 애인가, 아니 얼마나 똑똑하고 사랑스런 내 딸인가, 저애가 하는말은 죄다 옳다, 우리가 만일 책임주궁이나 직무를 잃을것이 두려워 석탄을 버리는 길을 택한다면 저애 까지도 포함하여 눈이 옳바로 배긴 많은 사람들이 더는 우리를 신임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우리의 량심은 과연 자신의 죄를 용납할것인가? 그러니 문제는 명백하다, 그 누구에게 심장을 내대라고 요구하기전에 당비서인 나자신부터 대담하게 심장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 바로 나부터, 그러면 기사장동무도 호응해나설것이다. 우리 두 심장이 합쳐진다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랴.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만난 기사장은 전날의 자기 견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준은 저지 열이 올랐다.

《이것보 기사장동무, 동무는 왜 자꾸 모험이다, 위험하다, 문제를 그쪽으로만 끌어가우?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난 김광국의 착상을 결코 모험이라고 보지 않소. 원리상 옳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왜 모험이기만 하겠소?》

장락을 마주하고 앉은 윤영준이 본시 조용하다기도 울컥하는 성미를 이기지 못해 흥분할수록 제자리에 바위처럼 들어앉은 송정규는 평소의 여운있고 원만한 성미 그대로 주근주근 나왔다.

《원 비서동무두, 그게 모험이 아니면 세상에 모험이 없게요, 아무러나 비서동문 그 일이 실패하는 경우를 잘 생각해보구서 우저도 우기십시오.》

영준은 어이없는 눈길로 송정규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내가 여직껏 아무 생각없이 무작정 우기는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는 울퉁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좀더 허심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도 생각은 할대로 다 해보느라 했소. 기계를 둘다 망가뜨려 책벌을 받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

우까지도 생각해봤소. 물론 나는 일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소. 내 나이 이제 선일곱에 회복할 기회도 없을게요 요새말로 <떨어졌다>는 소리 듣기는 더구나 싫소. 그러나 난 이렇게 생각하오, 내가 받게 될 책벌의 값이 웬만하 비싸더라도 목이 떨어질 가봐 량심에 빚을 지며 손도 써보지 않고 내버린 수만톤의 석탄값은 그보다 더 비쌀거라고... 이진 내 진심이요. 그러니 기사장동무, 일이 잘되든 못되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한번 큰맘먹고 해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책임은 모두 내가 지리다!》

당사업은 한지 오래지만 본시 언변이 좋지 못하고 성미가 무뚝뚝한 편인 영준은 진심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레대라는 자기나름의 신조대로 그야말로 진정을 다 털어 절절하게 호소했다.

송정규의 너무 많아 약간 푸른 기운이 도는 눈에 놀라움이 가득 차더니 이어 뻥뻥한 빛으로 바뀌었다.

《그게 비서동무의 진심이라면...》 그는 갑자기 의자소리를 거칠게 내며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었다.

《나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두손을 뒤에 모아진채 발을 벌려짚고서 서 정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한순간 영준은 심장 한복판으로 바늘이 지나가는 듯한 몸서리를 느끼며 열결에 손을 들어 가슴노리를 눌렀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였는가? 저리도 심장이 차고 남의 진정을 받을줄 모르는 사람이였던 말인가?...

후둑, 후두둑... 부정맥으로 뛰는 발작직전의 심장부위를 힘껏 눌러친채 그는 천근무게로 일어섰다.

《기사장동무의 립장이 그렇다면... 나도 더 할말이 없소. 그러나 난 이미 김광국의 안을 결심한 사람이요. 나는 당위원회도 그것을 지지하리라고 믿소.》

당위원회는 그날 오후에 있었다. 회의에서는 윤영준이 도당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중요문제들을 통보한데 이어 1호박토기구조대책을 토론했다. 거의 세시간에 걸친 진지한 논의끝에 얻어진 결론은 김광국기사의 착안으로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4

준비작업은 두개조로 갈라져 진행되였다. 한조는 광구장이 책임지고 이백명의 끝끝한 탄부들이 불도젤의 도움밑에 교대로 박토기의 운행로를 만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습지가 아닌 오십메터밖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로 박토기 발통밑까지 감탕을 파내고 통나무를 깔아 로반을 만드는데있었다. 로반이 박토기 발통과 접하는곳은 길이가 대여섯메터잘되어 파내야 할 토량이 몇백립방 실히 되였다. 다른 한조는

김광국이 책임진 기술조였다. 거기에는 탄광적으로 그중 기술이 높고 경험이 많은 기계기사 두명과 광구책임기사가 망라되어있었다. 그들은 두 박토기의 기관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배선작업을 했다. 누구도 구경삼아 그들의 작업장에 가선 안되리만큼 그들은 정밀하고 긴장된 일을 하고있었다.

윤영준은 주로 감탕을 파내는 운행로작업장에 있으면서 스스로 후방사업을 담당했다. 그의 후방사업이란 별것이 아니었다. 탄광후방부일군들을 들쭉서놓고 가두너맹원들에게 작업장형편을 알려주고 지원사업을 호소한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탄광후방부 대 너맹원들간의 경쟁으로 번져져 나중에는 비계층이 두텁다는 이유로 손바닥같은 편육접시가 땀대를 받고 팔보승이를 넣어야 할 송편에 콩깨묵을 넣은것때문에 맛이 없다고 밀어놓는 정도로 되었다.

작업은 낮과 밤을 이어 이튿날에도 계속되었다. 그런중에 영준은 김광국으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준비작업을 시작한지 이틀이나 되는데 기사장은 왜 여태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가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금방 점심식사가 끝난 그날 낮 1시경의 일이였다. 영준은 대답이 궁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수는 없는 일이고 미리 대답을 준비해둔것도 아니여서 그저 일이 좀 바빠서 못나오는것이라고 했다. 그의 어정쩡한 대답에 김광국은 입귀를 찌그리며 뺨소를 지었다.

《전 좀 다르게 알고있는데요?》

영준은 그가 뭐가 몰라야 할것을 눈치차린줄 알았으나 설마하는 생각에 시치미를 뻗었다.

《무얼 달리 안단 말이요.》

그에는 대답하지 않고 알곳은 표정을 짓고 앉아서 잠시 무슨 생각을 번지던 김광국은 불쑥 기사장동무의 별명이 뭔지 아는지 하더니 제편에서 말해버렸다.

《빠스뵐트! 다시말하여 〈사용설명서주의자〉지요. 〈모든것은 사용설명서대로 하라. 그것은 기술자의 지평이다〉, 이걸 그 사람의 기술적신념이자 생활철학이지요. 그런데 우린 지금 〈설명서〉 없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심장의 명령〉을 집행하는셈이지요. 기사장동무는 그래서 안나옵니다. 실패할가봐. 그 책임을 자기밖에 질 사람이 없다는거지요.》

영준은 그의 판단이 너무도 옳고 정확한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 송정규의 마음속을 뒤집어보기라도 한것 같다. 게다가 말투는 또 얼마나 신랄한가. 아마 그런 무자비한 성미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나고 피력하단 소리를 듣는 모양이지만 진실을 말하고있다는 점에선 아이들처럼 순진하였다.

《그런데 동무는 어떻게 기사장동무를 그리 잘아오?》

《대학동창이니깐요.》

《아니 기사장동무와 동창간이요?》

영준이 놀라는것을 보고 김광국은 야릇한 웃음을 짓더니 말했다.

《제 옛말같은 이야기를 하나 할가요?》

영준은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이야기하느니 힘든 모양 눈을 쪼프려 먼 바다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더니 이윽고 어딘가 서글픔이 비낀 쓸쓸한 음조로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도 전에 제가 박토기무인화를 실현한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을 잊지 않았을겁니다.

저의 그 시도를 처음부터 불만해한 사람이 기사장이였지요, 하지만 그는 내가 내놓은 무인조종의 기술적가능성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해 했는가? 제가 사고를 칠수 있다는거지요. 다시말해서 〈설명서〉 없는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운명을 그르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전 확신이 있기에 그냥 내밀어 그럭저럭 시험단계에 이르렀는데 고압차단기가 하나 필요해서 기사장동무에게 부탁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생산예비기때문에 안된다고 딱 자르더군요. 하는수없이 저는 쓰다 말을 잘 듣지 않아 떼놓은 〈병신〉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주전동기를 태웠는데... 후에 창고사람들을 통해 들은바에 의하면 사실 그때 창고에는 고압차단기 예비가 두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은건 제가 하는 일에 불안을 느끼고 말려들지 않자는 방비책이었지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기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창이라고는 더욱 생각지 않구요.》

쓰라린 자기 과거에 대한 김광국의 고백은 영준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그때 이 사람이 저지른 사고의 밑바닥에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었더라 말인가? 내가 한쪽팔처럼 여기던 사람이, 온 탄광에 총명과 실무를 함께 지닌 인격자로 인정받는 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과오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송정규에게 그런 과오가 있다니? 이건 도덕적과실이라고만 할수 없다. 그것은 인정과 우의에 대한 유린이며 모독이다. 아니 남의 발밑에 함정을 팠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한것이 다!...

어떤 문제에, 특히 인간관계상 문제에서 결코 일방의 말만을 듣지 않는 영준이었지만 그는 지금 김광국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빠스뵐트 주의자》-얼마나 신랄하면서도 적중한 규정인가.

그러고보면 나는 사람들을 너무도 피상적으로 알고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김광국이나 송정규만은 아닐것이다. 찾아보면 사무실과 광구들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그들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들이 과연 나같은 당비서에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맡긴걸 불만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란 말인가? 당비서의 사업은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매 사람들의 심장에서 울리는 각이한

목소리를 가려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 진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조차 갈라볼 줄 모르니 나아말로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은 당일군인가...

준비작업이 기본적으로 끝난것은 이튿날 점심전이었다. 예전보다 거의 반나절을 앞당긴셈이지만 작업장의 긴장은 풀린것이 아니라 오히려 팽팽해졌다. 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아직 앞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영준은 광구장을 불렀다. 상고머리의 2광구장은 오십이 갓 넘은 단단하고 날과람있는 사람인데 온통 감탕이 묻어 옷주체가 말이 아니었다.

《이제 〈갱생〉을 가지고 본동에 올라가오. 가서 기사장동무를 찾아 데려오. 내가 꼭 만나 토론할 일이 있단다고 하오.》

《알겠습니다.》

광구장이 떠나간뒤 영준은 작업조별로 점심식사를 하도록 이르고 자신은 기술조성원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들었다. 긴장감은 있어도 큰 일을 한가지 해제킨터라 밥맛이 났다. 그는 자기앞에 있는 닭알부침이며 고기접시를 기사들앞에 옮겨놓으며 좌중의 식욕을 부추겼다.

《한데 광국동무는 왜 말뚝을 삼킨것처럼 그리 뚝해있소? 그 버섯이랑 순대랑 부지런히 집으라구. 배가 불러야 마음에 여유도 생기는 법이요.》

《저야 본시 뚝한놈인걸요, 비서동무나 많이 드십시오.》

영준은 자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이쪽저쪽 다니며 너무 먹어서 배에서 새장고소리가 날 지경이라고 우정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도 김광국은 무거운 인상을 풀지 못했다. 이제 해야 할 구조작업의 결과와 걱정스러워 그러는 모양인데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윤영준이 백배나 더했다. 애써 그것을 감추고 심상한체해보일뿐이었다.

책임기사가 보다못해 한마디 충고했다.

《여 광국동무, 너무 얼어있지 말라구. 긴장도 가림계점을 넘으면 재미없다니...》

《책임기사동무가 옳게 말했소. 긴장이 도를 넘치면 뭇일도 안되는 법이요. 그걸 증명하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라오?》

《한번 들어봅시다.》

책임기사의 부추김에 영준은 저가락에 집었던 순대토막을 입에 넣어 얼른 처리한 다음 손등으로 입귀를 닦았다.

《옛날 어떤 동네에 저마끔 제가 세상리치를 통달했노라 뽐내는 어리석은 선비 셋이 살았대요.》 하고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세 선비가 하루는 술좌석에서 세상에 귀신도깨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둘은 있다 하고 한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가 서산에 기울도록 싸워봐야 승산은 나지 않고 하 답답한김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두 선비가 싸

덕거리더니 한손 접으며 《좋다, 너 그럼 세상에 귀신이 없다는걸 증명해봐라》고 하였다. 귀신이 없다고 한 선비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물었더니 저쪽 두 선비가 그건 하나도 어려울게 없다, 오늘밤 자정에 건넌산 공동묘지에 가서 전년에 죽은 최무당의 묘 상돌앞에다 우리가 깎아주는 석자말뚝을 허리까지 박고 오면 된다고 했다. 그 공동묘지에는 밤마다 귀신이 나와 도깨비불을 켜들고 왔다갔다하며 죽은 사람의 혼을 세여보는데 수자가 남으면 먹어치우고 모자라면 산사람을 하나 죽여 수자를 맞추어놓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귀신이 없다고 한 선비가 듣고 《좋다, 내 그리하마》 하고는 그날 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려 도끼와 말뚝을 메고 건넌산 공동묘지로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가며 보느라니 정말 듣던 소문대로 시퍼런 불이 왔다갔다 하고 때로 아이 우는것 같은 청승맞은 소리도 들려왔다. 선비는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고 아래도리가 떨려났다. 그러나 평소에 귀신도깨비가 없다고 믿던 사람이고 동료들앞에 놓은 장담이 있는지라 용기를 내어 최무당의 묘 상돌앞에다 말뚝을 두드려박고는 이제 됐다 하고 내리털 잡도리로 급히 돌아섰다.

《...하 그런데 이런 변이 어디 있겠소, 선비가 막돌아서 한결음도 떼나마나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두루마기자락을 꿰당기는게 아니겠소,

그바람에 〈에쿠!〉 하고 나가넘어진 선비는 그만 얼혼이 말짱 빠져 〈어허 이놈, 이 두루마기자락을 놓지 못할가?〉 소리도 쳐보고 〈여보, 귀신어른, 제발 살려주. 내 이제 어른을 믿겠수.〉 하고 사정도 해봤지만 종시 놓아주지 않더라누만.

그러나 날이 밝았소. 그런데 밝은 담에야 보니 글썽 제 두루마기자락에 말뚝이 꽂혀있는게 아니겠소. 너무 긴장된 김에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는 밤새 놓아달라고 했으니...》

《허허허허, 그 선비 되게 혼났겠군그래.》

1광구기계기사의 말을 책임기사가 받았다.

《혼이 뭔가, 아예 백년감수했겠네. 허허허.》

김광국은 그저 시무룩이 웃기만 했다.

5

기사장을 데리러 갔던 《갱생》은 점심식사가 끝나듯마듯해서 돌아왔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것은 광구장과 운전사뿐이었다. 영준이 물었다.

《기사장동무는?》

《기사장동문 못옵니다.》

광구장의 침울한 대답에 영준은 신경이 바싹 켜지는 감을 느꼈다.

《왜 안오겠답니까?》

《그런게 아니라 그 량반이 지금 술에 취해서 통인사불성입니다.》

《?!》

영준은 어이없어서 광구장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송정규는 본래 술을 그리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좀 마시는 경우에도 취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 영준이 자신 언젠가는 간부들속에서 술풍을 없앨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술마시는 법은 모두 기사장동무에게 배우라고까지 말한적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취해서 인사불성이라니 영준이로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송정규는 자기가 끝까지 반대하면 당비서가 김광국의 착안을 포기하고 물러설줄로 알았다. 그러나 일은 다르게 번지였다. 이제와서 그는 김광국의 착안이 성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자신의 인간적실패를 의미하였다. 그때 가서 사람들은 내놓고 말할것이다. 기사장이란 사람이 실패가 두려워서 몸을 사리더니 입이 두개라도 할소리가 없게 됐다고... 기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송정규는 사태가 그렇게 되는것이 무서웠다. 그렇다고 해체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직책과 인격을 보존하기 위해 김광국의 방법이 실패하기를 바랄수는 없었으니 그것은 일이 정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 자신에게도 리로울것이 없기때문이었다. 만일 일이 그런 파국적인 결과에 이른다면 윤영준은 그가 이미 말하고 각오한대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것이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인가? 물론 법적책임은 묻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기사장으로서 당비서에게 그런 실패를 들썩은 도덕적책임을 나도 함께 져야 한다. 그렇다, 당비서가 잘못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것이다. 송정규는 목이 무사한 대신 인간으로선 죽었다고, 심장을 아끼다가 인간을 잃어버렸다고... 이준엄한 규탄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이라고 자기를 변명할수 있겠는가...

송정규는 당비서의 의견에 이의를 보인것이 이처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모순속에 허덕이며 그는 사무실 의자에만 앉아있었다. 그러나 사무실도 은신처는 못되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던 사무실 사람들이 이제는 내놓고 수군거렸다. 당비서가 사고현장에서 기사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애쓰고 있는데 기사장은 왜 사무실에만 박혀있는가고.

《글쎄요, 아마 〈심장〉이 약하다나 봅니다.》

《아니 기사장동무야 본래 심장이 튼튼하다고 자랑까지 하던 사람이 아니요?》

《무엇을 위해 뛰는가에 따라 약할수도 있고 강할수도 있지요.》

《하니까 비겁하기 위해 용감한 심장인가?》

이러루한 야유와 비난이 나중엔 어린 아들과 안해의 입에서까지 나왔다.

그날 아침 아들은 학교에 가려고 책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려다 말고 아버지를 흘겨보며 불부는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씨 아버지 거짓말쟁이같은거, 〈깍두기〉를 그채루 못꺼낸다 하구선...》

송정규는 아들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고는 이놈의 자식 아버지앞에서 무슨 말본새냐고 으름장을 놓아 쫓아버렸다. 그런데 점심때 집에 들어오니 안해가 또 묻는것이였다.

《여보, 별난 소리가 돌아가요. 당신이 사고가 날가봐 〈깍두기〉에 손을 대지 않고있다는... 아니지요?》

금방 상을 받아놓고 앉았던 송정규는 뭐라고 할말이 없어 손가락을 칠념도 못하며 밥바리뚜정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제서야 말 못하는 남편의 얼굴에서 돌아가는 말의 진실을 확인한 녀의사는 그만 억이 막혀 낫색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한참만에야 수치와 원망과 절망을 한숨으로 토해놓으며 마디마디를 짜내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난 지금껏 당비서의 심장을 걱정했더니... 이제 보니 정말로 심장이 약한건 당신이였...》

간신히 참아오던 송정규의 울화는 여기서 터졌다.

《이거 그만두지 못하겠소?》

거칠게 소리치며 안해를 노려보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러다 안해가 뭐라고 대꾸하려하자 그만 밥상을 밀어던져 안해의 가슴우에서 뒤집히게 하였다. 마침내 리성을 이겨버린 감정은 가슴속에서 휘몰아치며 출구를 찾았다. 술이야말로 감정이 리성을 이기기 위해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으뜸가는 수단인것이다. 화김에 옷방에 올라 장안에서 술병을 꺼낸 송정규는 결상에 앉은채로 30프로짜리 《삼백》 두병을 다 마셔버리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갱생》에서 내려 마당안으로 들어설 때까지도 영준은 송정규를 만나면 호되게 질책하리라 작정하고있었다. 그러나 정작 집안에 들어가보니 사정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다. 난생처음 이런 일을 당해보는 안주인은 이제 부끄러울것도 없다는듯 새파란 얼굴로 정주방 아래목에 오연히 앉아있고 송정규는 자신이 손수 수라장을 만들어놓은 방바닥에 네활개를 던지고 누워 드렁드렁 코를 골고있었다. 가끔 몸을 틀며 단추가 떨어져 헤쳐진 가슴팍을 쥐어뜯고 뭐라 알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영준은 송정규의 머리맡쪽으로 자리를 골라 앉으나 기가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방안에 펼쳐진 현실은 구래여 설명없이도 이 며칠간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충과 번뇌를 알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반성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잘못은 내게도 있다. 내가 그날아침 좀더 절절히 호소하고 납득시켜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가 종시 립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앞세워 《네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고 단정해버렸다. 나의 잘못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였다. 나는 이 사람이 이 지경에 떨어질수 있다는걸 미리 짐작했어야 했다. 나에게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사람을 버

릴 권리가 없다.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탄광의 기둥이나 같은 사람이 마음의 지렛점을 잃고 이렇게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울수 있단말인가?...

영준은 올방자를 뜬 무릎우에 두팔굽을 놓은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싸쥐고 바위처럼 앉아있었다.

어쨌든 지금은 송정규를 내버려두는수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 그만하면 힘든 고비는 넘긴셈이다. 이제 깨나면 스스로 자신의 소행에 혐오를 느낄것이며 모든것을 랭정하게 돌이켜볼것이다.

영준은 허리를 펴며 안주인에게 종이하고 쓸것을 좀 달라고 했다. 녀의사는 소리없이 올라와 책상우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찾아 공책에 받쳐 가져왔다.

기사장동무에게.

내가 왔다갑시다. 현장실태를 보고한다면 오늘날 12시 현재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습시다.

내 보기엔 그만하면 준비가 괜찮게 된것 같습시다. 보다 중요한 일은 이제부턴데 기사장동무가 없다보니 시작을 못하고있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기사장동무 없이야 나혼자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득부득 그 일을 벌려놓은것도 실은 그러느라 기사장동무가 안나오군 못배기는 사람이라는걸 타산했기때문이었습시다. 이것을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사장동무가 나오는 시간이 구조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걸 알고 될수록 빨리 나와주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윤영준, 낮 1시 20분에.

영준은 편지를 집어 기사장의 안해에게 주며 무겁게 일어섰다.

《주인이 깨나면 인차 주시오. 그리구 이 집안의 어수선했것들을 빨리 치우시오. 남자들이란 술을 마시면 더러 이러는 때도 있습니다.》

《...》

6

기술조 야영천막이 있는 둔덕우에서 영준은 벌써 다섯시간째 송정규를 기다리고있었다. 봄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그 언덕우에서는 탄광본부에서 내려오는 큰길이 멀리까지 바라보였다. 윤영준이 애써 송정규를 박토기 구조현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까닭은 전적으로 그를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송정규는 기술일군으로선 나무랄데 없는 능력자지만 석탄을 위해서는 심장을 바칠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하기는 그도 평소엔 많이 말했었다. 석탄은 손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캔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고 당과 수령을 받드는 탄광부문 일군들의 충성심은 석탄산의 높이로 계산된다고... 그러나 정작 그 인민과 조국을 위해, 그 당과 수령을 받들어 심장을 내대야 할 정황앞에서 물러섰다. 왜? 법적추궁을 받을가봐, 직무에서 떨어질것이 두려워서...

지금 송정규앞에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실패나 책임이 두려워 끝내 주저앉아있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것을 각오하고 심장을 내대는가. 영준은 바로 그 두번째 길에 송정규를 이끌어 세워야 할 소임이 당비서인 자기에게 있으며 그러자면 그가 박토기 구조작업에서 자기 할바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과연 나와줄것인가? 공언한 기대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있는건 아닌가? 아니 믿자, 믿어야 한다. 석탄 수만톤을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일군들의 대오속에서 자리를 잃은 인간을 구원하는것은 그보다 썩 더 중요한 일이다. 힘들기는 해도 그는 자신을 이겨낼것이다. 그에게도 피가 뛰는 심장이 있지 않는가? 영준은 일전에 송정규의 안해가 심장을 조심하라면서 심장이 뛰어서 인간이 있다고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녀의사는 그 말을 순 생리적인 견지에서 했을것이고 영준이자신도 그때는 그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리해되였다. 물론 심장이 뛰어서 인간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이 제 하나의 생명유지에 급하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뻗다면 인간이 무엇으로 위대하고 생활이 어떻게 아름다울수 있으랴, 그렇다, 인간은 위대하고 생활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과 존엄은 심장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심장을 인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것이다!...

《비서동무, 이거 언제까지 이리고있겠습니까?》

등뒤에서 울리는 김광국의 불부는 소리에 영준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벌써 세번째 이런 독촉을 받는다. 처음에는 광국장이 다음에는 책임기사가 말했다. 기사장은 못나오는 사람이니 우리끼리라도 해보자고... 영준은 사실을 그대로 말해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좀더 기다려보지요. 좀더... 기사장동무는 오오. 꼭 오오.》

그러한 확신이 어디서 생기는것인지 자신도 모르면서 영준은 어쨌든 그렇게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광국은 로골적인 불만을 얼굴에 드러냈다.

《혹시 비서동문 우리 기술조를 믿지 못해서 그사람을 기다리는건 아닙니까?》

그로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영준은 노여웠다. 노여운대로면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는가고, 내가 동무네들을 믿지 못한다면 함께 먹고자며 이 역사겠느냐고 면박을 주고싶었다. 그러나 큰일을 앞두고 조급할수 밖에 없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어 기사장을 기다리는건 전혀 다른 문제이니 이야기나 나누자며 앉으라고 했다.

김광국은 그리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자리를 골라 앉았다.

《여보 광국동무, 내 한가지 묻고싶던게 있는데 말해도 좋겠소?》

영준은 그의 초조한 마음을 능처주는 겸사 생각하고있던바를 얘기해주리라 작정했다. 김광국은 씩씩해있더니 《예》했다.

《사람들이 동무보고 피뻘하다고 하던데... 그걸 아우?》

《압니다.》

《안다?... 그렇다면 동무는 어쩌서 자기 성미가 피백해졌다고 보우?》

김광국은 찌그러진 입가에 버릇된 쓴웃음을 띄워 올리더니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 곤란한 문젠데 자기는 본래부터 그런놈이라고 했다. 영준은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아니, 동문 거짓말을 하고있소. 내가 알아본데 의하면 동무는 본래 아주 진지하구 정열적이구 친구들도 많은 사람이었소. 그런데 언제부터 친구들이 없기 시작하고 피백해졌는가? 그건 박토기무인 조종시험에서 실패하구 비판받은 뒤부터였소. 내 말이 틀리오?》

맞는다는 뜻인지 김광국은 무릎사이로 수그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동무는 자기의 기술적실패나 피백해진 성미를 그 누구의 비렬한 소행때문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소.

물론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노상 없는건 아니요. 책임은 내게도 있소. 그러나 이것 보. 우리는 너나 없이 당원이고 혁명을 하는 시대에 사는 인간들인데 그렇게 속이 웅졸해야겠는가?... 그래선 안되오. 그건 자신이 자신을 모독하며 목을 졸라죽이는 행위나 같소. 여보 광국이, 내 당비서로서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충고하는데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오. 잃어버린 자기의 성격을 되찾으란말이요. 본래의 자기를... 알겠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김광국은 여전히 고개를 깊이 숙인채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쓴약을 삼키듯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는것이였다.

송정규는 날이 아주 어두울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기에 지칠대로 지친 영준은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이 사람이 정 이럴내긴가? 끝내 버터볼 심산인가? 믿음과 희망이 점점 실망과 불신으로 자리를 바꾸는속에 밤이 가고 다시 새날이 밝아왔다. 함몰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나흘째 되는 새벽이였다.

책임기사의 코고는 소리에 잠을 깬 영준은 밤새 오만가지 잡다한 꿈을 수없이 꿔다는것을 알았지만 똑똑히 생각나는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일어나 앉았다. 눅눅한 천막속에서 잔뜩인지 관절염이 있는 오른쪽무릎이 근질거렸다. 비로소 그는 현장에서 생활한 지난 사흘간 심장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있었음을 깨달았다. 병을 의지로 이길수 있다더니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인가보다.

머리맡에서 웃도리를 찾아쥐고 천막밖으로 나온 그는 목운동을 몇번 하고 밤새 이상이 없는가 보려고 언덕아래 박토기함물현장으로 내려갔다. 날이 채 밝지 않아 주변이 안개속처럼 흐릿했다. 영준은 우선 기관실부터 들여다보았다. 본뎃자 장님 코끼리 구경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무려나 기사들이 웅킨 웅한 사람들이다.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분별해내는지 원...)

삼거웃처럼 뒤엀킨 배선이며 련결단자들을 보며 감탄한 영준은 운행로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운행로도 별일없었다. 물이 습새나오면서 흙벽이 몇군데 조금씩 내려앉았을뿐이였다. 그런데 거기 운행로아래 끝에서 그는 웬사람이 전지불로 비쳐가며 박토기발통을 들여다보고있는것을 보았다. 거기는 깊어서 아직도 어둑하여 사람을 분간해볼 형편이 못되였다.

《누구요?》

영준의 목소리에 전지불이 깜빡 꺼지고 박토기발통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일어나 천천히 돌아섰다. 그제서야 상대방을 알아본 영준은 소스라쳐 놀랐다.

(아니 저 사람이?!...)

바닥에 간 통나무를 몇개씩 건너짚으며 급히 내려간 영준은 송정규를 두세걸음 앞두고 멈춰섰다. 생각같아서는 와락 달려들어 껴안고싶었다. 안은채 왜 인제야 왔느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고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되지 않았다. 송정규의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 순간에 이 며칠간의 불미한 사연을 상기시켜준탓인지도 몰랐다. 무겁게 치저내린 두어깨, 거꾸시시 흘어져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과 정기를 잃은 부석부석한 눈, 손에 진 낡은 전지... 이전의 너무 끼끗하여 약간 거만해보이기가 지 하던 송정규의 모습은 지금 그러하였다.

《언제 왔소?》

송정규는 얼굴에 자기 모멸의 쓴웃음을 약간 띄웠을뿐 대답하지 않았다. 영준은 공연한걸 물었다고 생각했다. 중요한것은 그가 왔다는것이며 그것도 제발로 왔다는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빨리 일감을 주고 거기에 정신을 쏟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올라갑시다.》

영준은 그를 데리고 운행로에서 올라왔다. 기관실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으며 그새 진행한 준비작업정형을 두루 이야기해주었다.

《...어제 오후에는 부분시험을 해봤소. 김광국의 말이 거기까지는 다 제대로 돼준다고 하두만. 그러나 어찌 알겠소. 내 생각엔 기사장동무가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보오.》

송정규는 고개를 수긏하고 걸음만 옮기더니 기관실앞에 다 가서야 입을 열었다.

《검토는 좀 해봤는데... 다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벌써 제 할 일을 하고있었던란 말인가? 아무렴 그래야지. 그래서 탄광기사장이지...

《그럼 됐구만, 됐소. 아무튼 기사장동무가 나와줘서 난 이젠 마음이 폭 놓이오.》

그것은 영준의 진정이었다. 그 진정에 마음이 움직인듯 송정규도 자기의 피로운 진정을 고백했다.

《비서동무의 편지가 아니였더라면... 전 아직도 집문턱을 넘지 못했을겁니다. 욕을 많이 하십시오.》

영준은 기뻐다. 이 자존심 센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모든것을 초탈했으며 새로운 제일보를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허허허 해야지요. 해달라는 욕이야 못하겠소? 그러나 지금은 일부러 합시다. 일을 욕으로 치고 성공으로 자기비판을 대신합시다.》

박토키구조작업은 열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은 아홉시반,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해프자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바다를 이루었다. 대부분은 광구사람들이고 탄광마을 아낙네들과 학생아들도 적지 않았다. 개중에는 이 구조작업이 얼마나 심중하고 위험을 동반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축들이 더 많아서 그들은 마치 명절날 운동회구경이라도 나온듯한 기분들이었다.

기사장 송정규가 기사들을 모여놓고 구체적인 임무를 다시 주는 사이 영준은 구경군들을 단속하느라고 땀을 뺐다. 탄부들은 저저마다 뿔쭙 안다고 박토키에 다가들고 아낙네들은 그들대로 모른다고 바싹 다가들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애군들은 인민학교 애녀석들이었다. 이놈들은 도무지 생판이 없었다. 운전실로 기여오르는놈이 없나 하면 기관실로 들어간 전기배선을 건드려보고 운행로에 내려가 관통을 들여다보며 이찌구저찌구 저들끼리 아웅다웅했다. 그러는 애녀석들을 겨우 어른들속에 쫓아넣고 돌아서는데 등뒤에서 《아버지》 하고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되돌아서며 보니 딸 금옥이 소년단 넥타이를 단정히 맨 소년과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너는 왜 나왔느냐?》

묻고나서야 영준은 이 애도 오늘은 자기 못지 않게 구조작업에 관심이 있고 그 성공을 고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미쳐 오히려 미안한 심정이 되었다. 금옥은 발그레한 얼굴로 소년을 앞에 당겨세우며 애가 누군지 아는가고 했다.

《?》

《김광국기사의 아들이예요, 인철이...》

알고봐서 그런지 툭 빼여진 언덕이마며 작고 반짝거리는 눈매가 김광국이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그러니 네가 저 <격투기>를 그쳐로 끌어낼수 있다 한 애로구나?》

인철은 씩 웃더니 어색한듯 신고로 땅바닥을 우뚝했다. 영준은 한걸음 다가서서 소년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용타, 사람이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건 끝까지 주장할줄 알아야 한다.》

소년을 데리고 1호박토키 기관실앞으로 간 영준은 거기서 책임기사와 같이 기관실을 들여다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는 김광국에게 현현한 목소리로 여기 누가 왔는가 보라고 했다. 그러나 김광국은 아들을 보자 눈이 둥그래지며 대뜸 추궁조로 나왔다.

《너 여긴 왜 왔니? 공분 안하구?》

《형, 선생님이랑 엄마랑 같이 왔는데 뭐.》

그러는 소년을 영준이 두둔해나섰다. 놔두라고, 그 애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일의 주인공이며 제

논으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국은 당비서의 그 말속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 사랑스런 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구조작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뜻을 이해하고는 몽클해오는 가슴을 느끼며 기관실쪽으로 돌아섰다.

어느덧 열시가 되었다. 박두한 시간과 함께 다치면 찢질듯한 긴장감이 작업장과 군중의 머리우에 드리웠다. 그 긴장감을 거역하듯 2호박토키에 먼저 발동이 걸렸다. 땅을 들들 울리는 기관의 웅근 동음은 주위의 긴장을 더 팽팽히 조여댔다.

《주-의!》

입에 호각을 물고 두 박토키 중간지점에 선 송정규가 높이 들었던 손을 책 내리그었다. 2호기가 1호에 동력을 넘기라는 신호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1호기는 그 거대한 몸체를 흠칠 떨어질뿐 2호의 기관부에서 봉-하는 무서운 소리가 울렸다. 순간 송정규의 입에서 호각이 울고 2호기의 발동이 꺼졌다. 김광국이 담당한 2호기 기관앞으로 송정규와 1호기의 책임기사가 달려갔다. 뒤늦어 발통의 움직임을 보려고 운행로밑에 내려갔던 윤영준이 험뻑거리며 시꺼멓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이거 왜 이러오?》

영준의 경황없는 물음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광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썽말입니다. 이, 이런 경우는 있을수 없는 데...》

송정규는 1호박토키만 이윽도록 쏘아보더니 두 운전공을 불렀다. 그들이 오자 다 듣게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내 보기엔 1호가 여러날 감탕속에 잠겨있는 관계로 주행계통의 관절들에 녹이 좀 쏘고 윤활유가 굳어진것 같소. 난 이렇게 해보자는거요. 1호가 먼저 자기 기관으로 자기 관절을 움직여놓은 다음 2호기에 동력을 넘기자는거요.》

그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다. 책임기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1호기가 부하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시동을 걸면 내려앉을것이라고 했다. 송정규가 말했다.

《내려앉소. 그래서 최단시간에, 적어도 2~3초안에 해치워야 하오.》

그제야 납득되는듯 책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송정규는 두 운전공에게 신호를 약속한 다음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고 했다.

광구장과 함께 영준이도 다시 운행로에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먼 하늘가에서 울려오는듯한 송정규의 호각소리와 부르르 몸을 떠는 박토키의 기관음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감탕속에서 뿔혀나온 강철 발통이 촌촌히 간 통나무우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운행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성공의 기쁨이, 환희가 너무 커서 심장이 이겨내지 못한 것이었다....

자신에게 하는 말 외 1편

송명근

삼가하라, 나서고싶어도
꽃다발의 앞자리는...
가슴하라 재빠른 동작으로 하여
너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을가를

무거운 짐 밑에
동지들과 함께 어깨를 들이밀 때
누구보다 끈게 허리 펴고
누구보다 어깨에 힘주었는가
달아보라 량심의 저울판우에
저울추는 언제나 갑절 무거이 올려놓고

그렇지! 앞자리는 너의것이 아니야

후방경리부의 물자공급명단에
더구나 수훈식의 화려한 앞자리는
뒤로! 뒤로! 겹쳐히
남의 등에 가리워 주석단에서 보이지 않아도
좋다
정신만 높이 앞서간다면...

허나 뒤자리에 서지 말라
어려운 일 앞에 놓고
당이 너를 부를 때
준엄한 날 불뿜는 화점앞에
동지들과 엮드린 그런 때만은

사람이 나이들면서

사람은 나이들면서
자주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된다
이마의 주름들속에 묻힌
회억의 갈피를 펼쳐...
아마도 남은 나이라도 서둘러
잃은것 봉창하려는 몸부림 아니라

한창나이 젊은 시절
피뿜어 일 많이 하던 시절
자주 뒤돌아보며 채찍질했더라면
한생에 얼마나 더 멀리 왔으랴
때늦은 후회는 지나간 밤의 꿈과 같지만
때맞춤한 자책은 인생의 지름길 안내자라네

백두의 눈보라여

-동기 백두산답사행군대에 참가하여-

전계승

가시돌힌 눈보라 얼굴을 찢러
내 머리 들지 못하고
허리치는 눈무지속에 언발을 뺄수 없어
멈춰서는것이라

한두해도 아닌
20성상
백두의 눈보라를 맞받아 걸은 그들
항일영웅선렬들의 고난에 비긴다면
너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부끄러움에 내 얼굴 못들고

사령부를 지켜싸운
혈전의 눈보라길
제한몸 눈에 묻혀 그대로 굳어진들
오히려 눈보라 멎지 말기 바라며
원썹을 끌며 싸운 그 길
순간인들 무심히 걸은 자책에
걸음 선뜻 못떼는 내 마음

바라노니

눈보라, 눈보라여
한생을 따르는 신념의 한길에서
내 만약 순간인들 잊는다면
이 뺨을 후려치며 꾸짖어다오
당을 따라 생명을 빛내여가는 한길에서
순간인들 앞장서기 주저한다면
때려다오 가차없이 내 종아리를...

헤쳐나가면 뜨겁고
끓었으면 얼어죽는
혁명의 철리로
열혈의 청춘들을 투사들로 키워준
오, 눈보라
백두의 눈보라여

불어라 더더욱
새차게 불어라
한생을 폭풍헤쳐 보람찰 마음 안고
억세게 나아가는 내 옷자락
눈보라, 눈보라, 백두의 눈보라에
영원히 기발처럼 휘날리고싶구나

붉은기앞에서

량덕모

식지 않는 심장들
그 뜨거움이런가
산천은 변하여도
언제나 한빛으로 타는 붉은기
혁명렬사들의 숨결같은 붉은기
흐르는 세월조차
이 기발앞에선 머리숙이였구나
짧아도 아쉬워도 바친 나이로
후손들과 마주 웃는 삶이 여기 있어라

부럽다! 정녕 부럽다!
내 백년 앞길 행복으로 열려있어도
이 기폭의 붉은 빛을 안고
백발을 모르는 청춘으로 사는 투사들

결전장에서 단두대우에서
심장의 마지막고동이 다할 때까지
그분들이 웃으며 내다본 아름다운 미래,
먼먼 래일의 끝까지 빛발쳐가는
태양처럼 불타는 붉은기여!

오, 이 기발 순간이라도 내리면 그 치욕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보다 못하리
한목숨 꺾이여도 지키면 그 지조
꺼지지 않는 삶의 빛이 되려니

이 기발 떠나선 있을수 없어라!
한생에 하나뿐인 신념의 뜻을 올려
내 당아야 할 행복의 종착점
영원한 삶의 푸른 기슭이

갈숲의 저녁노을

림병순

1

도소재지에서 떠나는 객선은 한낮에 갈섬에 와서 객들을 부리우고 물으로 나가는 손님들을 실어간다. 하루에 한번 객선이 와닿는 때면 종일 갈새들만이 우짚던 한적한 갈섬부두는 도시의 번잡한 역두를 방불케 하였다.

떠나는 사람, 바래주는 사람, 오는 사람, 마중나온 사람, 즐거운 상봉과 작별이 벌어지는 여기 부두는 백리갈섬의 유일한 관문이었다. 물의 새소식이 여기로 들어왔고 섬안의 온갖 크고작은 소식이 여기로 빠져나갔다.

오늘도 정오가 가까와오자 부두는 객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방금 먼지를 말아올리며 트랙포르가 지나간 갈숲의 큰길가로 한 녀인이 걸어오고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다급히 걸음을 옮기고있는 그의 해별에 그슬린 반듯한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이곳 갈연구소의 연구사 조진숙이었다. 그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에 떨어진 아들을 마중하려고 시험포전에서 떠난 길이었다.

부두에 이르자 조진숙은 잔교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멈춰서서 강 저쪽에 시선을 던지었다. 아직 객선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자 고요하던 강물이 궁싹거리며 수평선 한끝에서 물결을 몰아왔다. 지붕들과 갈더미들이 점점이 널려있는 아득한 갈숲으로 장쾌한 파문을 그리며 갈파도가 흘러갔다.

누구인가 객선이 나타났다고 알리자 부두가의 모든 시선이 일시에 먼 강 저쪽으로 향해졌다. 사방 널려있던 사람들이 짐을 들고 계단가까이로 모여들었다.

조진숙은 사람들 째를 빠져 부두가의 란간에 가서 몸을 기댔다. 멀리 수평선위에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미구에 바위처럼 커지면서 움직이는것이 확연히 눈에 띄었다. 객선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금시 림름한 체구에 아버지모습을 닮아 짙은 눈썹밑에 조용히 눈길을 던지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으로 떠나보내던 그때 일이 어제런듯 눈망울에 비껴왔다.

그날은 포전길에 갈꽃이 숨처럼 내려앉던 늦은

여름이었다. 조진숙은 아들과 함께 수로길을 걸었다. 그들사이에 나어진 딸이 두손을 벌려잡고 걷고있었다. 갈잎이 흐느적이는 갈밭에서는 갈새들이 극성스럽게 울었다.

《오빠, 저 갈새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나?》

어린 영희의 물음이었다.

《글쎄 뭐라고 그럴까?...》

영수가 동생을 굽어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그러자 영희가 새부리같이 입술을 놀리며 갈새흥내를 냈다.

《영수오빠, 입학을 축하해요. 갈갈갈》

그 소리에 어머니도 웃고 영수도 웃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 갈새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았을가요?》

《애두 참, 그걸 어떻게 알겠니?》

조진숙은 딸의 입에서 남편이야기가 나오자 시름겨운 눈길로 딸을 굽어보았다.

《아버지는 죄다 알았을거야. 모두 갈박사라고들 하지 않았나요?》

어머니는 조용히 살넉섭을 내리깔았다. 간밤 영수결에서 오래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것이 아들을 키워 대학으로 보내는 기쁨속에 갈마드는 남편에 대한 애모쁨에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으로 우리 나라 서북단의 날바다우에 갈섬이 솟아날 때 조진숙은 어린 아들을 업고 남편은 현미경을 지고 진창길로 섬에 들어왔었다.

그후 그들은 개간된 간석지등판에 갈뿌리를 심고 새 품종을 얻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같이 생겨나 무성하는 갈숲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은 만족할수 없는 품종들이였다.

남편은 남아있는 연구과제를 안고 오래동안 모대기였으나 끝내 목적인 품종을 얻어내지 못한채 불치의 병으로 곁을 떠나고말았던것이다.

그들이 걸어가는 수로옆의 갈대우에 두마리의 갈새가 날아와 연한 갈색문양의 몸뚱이를 흔들며 울었다.

그 모양을 쳐다보던 영수가 정기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영희야, 저 갈새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빠가

맞춰볼가?》

《그래.》

영희는 생글거리며 오빠를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영희동무, 오빠는 갈박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갈갈갈》

포전길에 또 웃음소리가 날아올랐다.

영희는 갈새들이 헤엄치듯 날아다니는 갈밭으로 뛰어가며 《갈새는 즐거웁다 노래하고...》라는 동요를 불렀다...

그 아들이 돌아오고있었다.

어느덧 러객선은 강 한복판을 가로질러 부두쪽으로 배머리를 돌리었다. 배안에서 울리는 노래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아래웃층의 넓은 갑판에 술한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조진숙은 그 사람들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바삐 배우에 눈길을 옮기었다.

러객선이 육중한 선체를 서서히 움직이며 잔교에 와닿자 객실에서 사람들이 배전으로 밀려나왔다. 그들속에 연분홍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꽃을 단 새색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둘러리에 부축되어 조심히 걸음을 옮기는 새색시를 보자 봄비던 사람들이 저저마다 길을 비켜주었다. 부두가의 모든 시선이 일시에 새색시한테로 쏠리었다. 잔교를 건너자 다소곳이 숙였던 고개를 들고 부두를 살펴보는 새색시의 밧그스레한 입술가에 수집은 미소가 어리었다.

《새색시가 꼭 배우갈구먼...》

《정말... 대학졸업생이래요.》

녀인들의 경탄의 목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 순식간에 새색시의 그 엷은 미소가 온 부두가에 환희의 물결을 몰아왔다.

새색시일행의 뒤로 손님들이 쏟아져내렸다.

조진숙은 눈정기를 모아 잔교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웬일인지 배가 거의 비어가도록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감사람들속에 섞여 나들이웃차림을 한 포전관리원 복실이가 잔교를 건너왔다. 허리를 부드럽게 감싼 산뜻한 미색양복에 눈부신 하얀 구두, 황홀해진 조진숙의 눈길이 처녀의 류다른 웃차림을 더듬었다. 땅밑에서 부풀어오르는 갈움처럼 아들에 대한 남모르는 정을 그 도두룩한 가슴속에 간직하고있는 처녀였다.

《어디 갔댔나?》

처녀가 잔교를 내려서자 마주 다가간 조진숙은 상냥하게 물었다.

복실의 오동통한 두볼이 대번에 앵두빛으로 변하

였다.

《...소장동지의 심부름을... 그런데 여긴 왜 나오셨어요?》

《우리 영수가 온다기에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구나.》

《오늘은 못온다나봐요.》

복실이는 갑자르며 말을 더듬었다.

《영수를 만났댔나?》

《...네.》

처녀는 고개를 숙인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차분히 내리간 긴 살눈섭우에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조진숙은 허전한 마음으로 걸음을 돌리었다.

새 손님들을 실은 러객선이 둔중한 고동소리를 울리며 부두를 떠났다. 새색시를 맞아 들레이던 부두에는 또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갈숲사이의 큰 길로 걸었다.

《무슨 사정이 있는가보지?》

조진숙은 약간 걸음을 늦추며 뒤따라오는 복실에게 물었다.

처녀는 엷은 입술을 살며시 감싸물었다.

《연구지표를 확정한다나봐요. 그래서...》

그 소리에 조진숙은 말뚝처럼 한자리에 서버리었다.

《영수가 그런 말을 하더냐?》

《네. 아마...》

복실은 흐려진 조진숙의 눈길과 마주치자 뒤말을 목안으로 삼켜버리고 좁은 어깨를 한층 웅그리었다.

조진숙은 다시 걸음을 옮기였으나 복실이한테서 튀어나온 말이 웅이처럼 머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혹시 갈대신 다른 연구지표를 말는게 아닐가?...)

순간 알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속 한쪽에 그늘처럼 비껴들었다. 대학졸업논문도 그랬거니와 같은 영수가 하여야 할 필생의 연구지표였다. 이 갈숲에 습배인 남편의 고심과 낮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아버지대신 그 애가 이 갈숲을 가꾸고 빛내여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그 소망이 남이 아닌 아들한테 버림받을수는 없었다. 그럴 영수가 아니었다.

(아니, 영수는 그럴수 없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는 가볍게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우리 영수야 연구원에서도 갈을 연구하게 되었지. 그 애가 갈을 내놓고 다른걸 연구할수는 없

어.》

처녀는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오무리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조진숙은 처녀를 위안하듯 말하며 가볍게 걸음을 옮기었다. 그는 자기를 믿듯이 아들을 믿었다.

2

조진숙은 사무실에 이르자 곧 위생복을 갈아입고 배양실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해별이 흘러들어 넓은 방안은 아늑하였다.

그는 방안에 들어서자 온도계앞에 가서 실내온도를 가늠해보고 배지들을 유심히 살피었다. 육안의 관찰에 의하면 배지안에서 미묘한 분화과정이 촉진되고있었다. 갓 돌아난 유상조직들도 있고 어떤것은 자라 벌써 곰팡이같은것이 낀것도 있었다. 갓 돌아난 유상조직들이 무사히 유년기를 지나 청춘기에 이르러 식물체분화배지로 옮기게 되겠는지? 그러면 과연 어떤 식물체가 생길것이며 거기에서 바라는 새 갈품종을 찾아낼수가 있겠는지?… 세포공학의 혜택으로 인류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재부를 얻고있었으나 그에 대한 문헌적자료는 많지 못하였다. 이미 교잡실험으로 새 품종들을 얻어냈으나 당에서 바라는 높은 목표를 달성하자면 그것으로는 부족하였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의 하나였다.

적지 않은 연구사들이 실패하고 이 과제에서 물러났다. 조진숙이도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그는 곰팡이가 쓴 배지안에서 잔해물을 털어내며 생각에 잠기었다.

(내가 다시 조직배양을 맡아나선게 옳은 처사일가?…)

50이 넘는 조진숙이가 다시 그 과제를 맡아나섰을 때 일부 연구사들은 그의 기백과 열정에 감복하면서도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가지지 않았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들의 표정에서 조진숙은 가벼운 모욕을 느끼었다.

《내 대에 해내겠는가 하고 타산을 하면 누구도 할수 없을것입니다. 내가 하다 끝내지 못하면 아들한테 물려주겠어요. 실패한 자로라도 후대들에게는 참고가 되겠지요. 절 도와주세요.》

몇해전 연구과제를 분담하는 협의회에서 조진숙은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였다. 한번 실패하고 물려섰던 자신을 이제 와서 두둔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다. 높은 수확의 갈품종을 얻어내자면 오직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것이 남편의 뜻을 지키고 과학자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였다.

그의 피타는 노력과 탐구로 하여 이미 《청갈》이 태어나 숲을 이루었고 《비단갈》이 7호포전에서 자라고있었다.

자 《비단갈》은 지금에 와서 조진숙의 모든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아직 만족할수는 없지만 보통갈에서 볼수 없던 새로운 특징들은 비약적인 연구성과들을 암시해주고있었다. 이제 몇해를 더

걸러야 하겠는지?… 아직도 쉽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아무리 어렵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해도 이제는 아들과 함께 연구하게 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이 든든하였다. 그래서 아들이 졸업할 날만 손꼽아기다려온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연구지표를 확정한다고?…)

그는 배지안을 말끔히 가셔내고 인차 책상에 마주앉아 실험일지를 기록하였다.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면서 애티나는 딸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희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생긋이 웃으며 좀 나와달라고 손을 까딱거리었다.

조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실로 따라나갔다.

《어머니, 오빠가 왔어요?》

《오지 않았다.》

《왜요?》

영희는 고개를 들고 따지듯 재차 물었다.

《일이 있는게더라.》

《오빠 정말… 외가집에 풍덩 잠겨버린게 아니예요? 어머니도 보고싶지 않을가?…》

조진숙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언제 보나 봄날의 갈대처럼 생생하고 파들과들한 영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지금에 와서 어머니에게는 오직 그 모습만이 기쁨이고 유일한 위안인지도 몰랐다.

《어머니,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지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졸업반학생들이 포전에 견학을 나와요. 그런데 강사가 있어야죵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자 조진숙은 밤낮 보는 갈밭인데 무슨 견학인가고 시답지 않은 어조로 뇌이고나서 몸을 돌리었다.

영희는 야속한듯 눈을 곱게 흘기었다.

《어머닌 정말… 이제 졸업하면 포전관리원이고 미래의 갈박사들이예요. 그래도 거절할테예요?》

《애, 그만 너스레를 떨어라.》

조진숙이 손을 가볍게 저으며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영희는 재빨리 어머니앞을 막아나섰다. 그리고 정색해서 간절히 부탁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30년가까이 갈을 연구해오신 어머니를 모두 존경하고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니를…》

《그런 소린 말어라.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왜요? 자랑할만 하지요워. 우리 갈섬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진짜 애국심을 보여거든 갈섬에 와봐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고보면 어머니도 애국자지요.》

그 말에 조진숙은 가슴이 몽클해져서 창가로 얼굴을 돌리었다. 지금까지 철부지로 여겨오던 어린 딸의 가슴에 그토록 소중한것이 간직되어있을줄은 몰랐다. 아들로 하여 생겨난 불안감이 딸로 하여 가셔지는 기쁨이라고 할는지… 고마움이 온몸에 포근히 잦아들면서 산란해졌던 그의 마음은 어느덧 갈밭속의 으스스한 개고물처럼 아늑하고 맑아졌다.

《내가 애국자라고?… 원 애도…》

어머니는 심란한듯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하였다.

《하지만 나도 수령님의 그 말씀만은 늘 잊지 않고있다. 수령님께서서는 옛날 외국에서 북통에 목욕

씨 몇알을 넣고은 문익점을 애국자라고 하지만 이 갈섬건설자들이야말로 로동당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당이 부르는 이 갈섬건설에 한생을 바쳤다. 그분들은 이제는 늙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의 뜻을 이어 이 갈숲을 가꾸고 빛내여야 한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오빠도 갈을 연구하는게 아니겠어요.》

조진숙은 끝없이 눈굽을 적시는 감동을 가까스로 삼키며 하염없이 아득히 펼쳐진 갈숲을 바라보았다. 온여름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에 어울려 그 구획을 찾아보기 어렵던 갈숲이 이제는 황금색조로 뚜렷이 제모습을 드러내고있었다. 그곳에서 지난날 제대배낭을 벗어놓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동쪽을 막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조진숙의 가슴을 불태워준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의 한부분을 나누어준 사람들이었다.

그의 생각은 끝없이 먼 과거로 날고있었다.

도시에서 자란 조진숙에게서 제일 힘겨운것은 거마리처럼 달라붙는 진창길이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포전으로 나갈 근심에 잠잠지 설치였다. 그때마다 남편은 안해를 위안하느라고 애썼고 진창길에서는 의례히 말없이 손을 잡아 부축해주었다. 그 손길이 못건디게 그리워졌다.

조진숙은 밀물처럼 휩쓸어드는 남편에 대한 애달픈 회억과련민의 정에 가슴이 한없이 미여올랐다.

《어머니, 오빠가 언제 온다는 기별도 없었어요?》

《이제 오겠지...》

조진숙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어머니, 저 오빠하고 친한 경찰이라고 있지요? 제대군인 프락포르운전수말이에요. 오늘 색시를 데려왔대요.》

갑자기 영희가 이렇게 말하며 량볼을 붉히는바람에 조진숙은 딸에게 말없는 미소를 보였다.

《모두 제대되기 바쁘게 장가를 간다니까... 오빠도 혹시 그동안... 애인이 생기지 않았을가요?》

조진숙은 묵묵히 돌아서서 위생복단추를 벗기었다.

영희는 기쁨에 겨워 씩없이 속살거리었다.

《머지 않아 이 갈섬은 또 한명의 연구사를 맞이하겠지요. 이제 오빠는 갈숲아! 너의 아들이 왔다. 어서 내앞에 너의 비밀을 내놓으라! 하고 호령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 갈판에서는 참대같은 갈들이 막 솟아올를거예요.》

영희는 마치 신비한 동화를 구연하듯 피이쩍은 목소리로 한창 흥취를 돋구었다.

그러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진숙은 영희의 손을 가볍게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어디를 보나 자기들의 발자취가 찍혀있지 않은곳이 없었다. 지금은 무성한 갈숲에 가리워 보이지는 않으나 거기에는 갖가지 추억도 함께 어려있었다. 오늘따라 걸음이 무거워지는것이 그 추억이 새로와져서일까?... 아니면 아들로 해서?... 잊자고 하면 또다시 뇌수를 휘저으며 파고드는 아들에 대한 생각이였다.

그는 쇠덩이를 매단듯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옮기

며 갈꽃이 날리어 숨을 깔아놓은듯싶은 하얀 포전길로 딸과 나란히 마안포전을 향해 걸어갔다.

3

갈섬상공에서는 하늬바람이 불었다.

종일 갈들의 수정상태를 관찰하느라 포전들을 돌아본 조진숙은 저녁무렵에야 실험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준비실에서 복실이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처녀는 포전일지를 적다 말고 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데 가셨됐어요?》

《마안포전이랑 좀 돌아다녔지.》

《그런걸... 어서 집에 가보세요. 영희 오빠가 왔어요.》

《그래?!》

피로가 실려있던 조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동안 홀로 생각하며 잠 못들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환희가 온몸에 잦아들면서 끝없이 애뜻한 정을 자아냈다.

《영수가 섭섭했겠구만... 그런데 복실인 어데서 만났나?》

《아까 부두에 나갔다가...》

복실이는 입가에 수줍은 미소를 그리더니 인차 책상앞에 가서 다시 일지를 적었다.

조진숙은 정겨운 눈길로 처녀의 실하고 동그란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언제 보나 수수한 작업복에 감탕이 묻은 파란 장화를 신은채 머리수건을 눌러쓰고 줄곧 갈숲에서만 사는 처녀, 남들처럼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는 때는 보기 드물었다. 화려하지는 못해도 온갖 해충을 잡아먹으며 갈숲에 보급자리를 꾸려나가는 갈새와도 흡사할는지?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처녀였다.

《어서 가보세요. 영희랑 기다리겠는데...》

이윽고 조진숙은 옷을 갈아입고나서 복실에게 밤에 놀러오라고 당부하고 방에서 나왔다.

어느덧 수평선우에서 뉘엿거리던 해가 바다너머 저쪽으로 떨어지고 칠혹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는 포전길을 걸어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전선줄이 뿡-뿡- 애처럼 울고 숲이 통채로 움썹거리었다. 웅숭깊은 갈숲의 특이한 설레임이였다.

마을이 가까와지자 그 설레임은 차차 갈숲너머로 사라지고 양수장의 고르로운 동음만이 한층 유정하게 들려왔다.

젠걸음으로 대문안에 들어서니 불빛이 환한 창문에 등을 돌린채 걸상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려있었다.

방안에서 아들의 말소리가 새나왔다.

그 웅글진 목소리에 조진숙은 놀라 토방우에서 굳어져버리었다.

(어쩌면 저에는 목소리마저 아버지를 닮았을까?…)

조진숙은 남편에 대한 애끓는 심사를 누를길 없어 한손을 가슴노리에 얹고 잠시 서있다가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늦었구만요.》

영수가 반기며 어머니앞에 허리를 굽히자 조진숙의 두손이 아들의 손이며 어깨를 쓰다듬었다.

《또 7호포전에 나갔됐어요?》

영희가 들가방을 받아들며 물었다.

《그래, 해가 있을 때 떠났는데 수로를 예돌다보니 늦었구나.》

《수로에 레루 두장을 건너대면 그런 고생을 안하겠는데… 그걸 보면 일꾼들이 밀의 실정을 통모르는가봐.》

《레루가 어디 그리 흔하겠니? 오빠가 시장하겠구나.》

조진숙은 서둘러 의복을 갈아입고나서 앞치마를 찾아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가마에서는 밥이 찻는지 뚜껑잠으로 안개같은 실감이 피여올랐다. 그는 곧 부뚜막우에 곤로불을 피워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민물고기를 튀겨내기 시작했다.

영수가 새문턱에 걸터앉아 정겨운 눈길로 어머니를 살피었다. 윤기나던 검은 머리에는 어느덧 흰오리가 섞여었다.

《어머니, 이젠 일하시기가 힘들지요?》

《그래, 나이가 있지 않니.》

조진숙은 지짐술을 든채 소리없이 웃으며 아들을 마주보았다. 사실 먼 포전길을 걸어다니기란 수월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껏 힘들다는 말 한마디입밖에 내본적 없는 어머니는 아들앞에 처음으로 숨김없이 마음의 진정을 털어놓는것이였다.

그 소리에 그릇을 부시던 영희가 얇은 입술을 놀리며 말참네를 하였다.

《그런데도 얼마전엔 세번째 외국어를 배운다고 강습에까지 갔됐어요. 내가 이제 그걸 배워서 뭘하겠는가고 말리였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늙어서 써먹지 못하면 오빠에게 원서 한페지라도 번역해주셨대요. 그걸 어떻게 막나요?》

조진숙은 묵묵히 일손을 놀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실패해도 물려서지 않고 연구사업을 계속 하고있지 않나요? 어머니 꼭 성공할거예요,》

《넌 갈육종이 얼마나 힘든지 다는 모른다.》

아들의 시뚱한 목소리였다.

《정말 그런가봐요. 하지만 인제야 오빠와 힘을 합쳐 연구사업을 하겠는데요뭘. 어머니가 오빠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나와 함께…?》

영수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길게 모두숨을 내쉬었다.

(아니, 저애가 왜 저리노?…)

조진숙은 아들의 맥빠진 숨소리를 듣자 불길한 예감에 일손을 멈추었다. 가슴은 금선을 텅기듯 가늘게 떨리었다.

《어머니, 전 연구지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대학실험실같은데로 옮기면 어떨까요? 어머니만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학장선생님과 초보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진숙은 쇠장대에 얻어맞듯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을 두고 가졌던 우려심은 현실적으로 그의 온몸을 압박하며 비좁은 틀안으로 몰아넣었다.

조진숙은 일손을 멈춘채 오래동안 났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었다.

《어머니의 년세가 올해 몇입니까? 어머니는 한생을 갈숲에 바쳐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려운 과제를 놓고 떠난다고 해도 탓할 사람은 아마 없을것입니다.》

《…한생을 바쳤다고?…》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뇌이였다. 그것으로 영수는 어머니를 동정하고 위안하려는것일까?…

《내가 오늘 이곳 연구소에 나가 이야기를 비쳐보았는데 모두 이해하시더군요.》

조진숙은 실망한듯 지짐술을 놓고 꺼지듯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은 얼마든지 참을수 있었으나 아들에게서 받는 동정은 그보다 몇배나 괴로왔다.

《어머니를 여기 두고 제가 일을 한땀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조진숙은 아들의 말을 듣기가 괴로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바람이 화끈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는 발가는대로 몸을 말긴채 마당가로 걸어나갔다. 성미가 드세차지는 못해도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파고들어 바닥을 드러내고야마는 끈덕진 아들이었다. 그래서 남편도 학자풍의 성격이라고 은근히 어린 아들의 탐구심을 키워주면서 말없는 축복속에 그 애의 장래를 기대했었다.

자기의 고심이 깃들어있는 《청갈》의 품종적특성을 가지고 아들이 졸업론문을 집필할 때 조진숙은 낡고 보풀이 인 실험지들을 뒤져가며 자료와 실험수치들을 넘겨주었고 밤을 새워가며 논문의 체계를 토론해주었다. 그래서였는지 아들의 졸업론문은 좋은 평가를 받고 통과되었었다. 그런데…

허청허청 마을앞의 포전길로 걸어나간 조진숙은 갈밭머리에 우뚝 멈춰섰다. 갈밭은 여전히 뒤설레이고있었다. 바람을 안고 세차게 파도쳐오는 갈숲의 설레임은 그의 눈앞으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실어왔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갈판에 불을 놓던 날이였다.

갈가울이 끝나자 갈섬은 온통 불바다에 잠기었다. 섬사람모두가 떨쳐나서 손에 불망치를 들고 갈판에 불을 놓았다.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명절 놀이와도 같았다. 와-와- 밀려다니며 불싸움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아버지. 갈을 왜 태워죽이나요?》

불망치를 들고 한창 갈판에 불을 달고있는 남편의 발꿈치에 묻어다니며 어린 영수가 물었다.

《이건 갈을 삶아먹는 나쁜 벌레를 태워죽이는거다.》

《그럼 갈도 죽지 뭐?》

영수는 야들야들한 손가락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갈그루를 매만지며 몸을 꼬았다.

《갈은 죽지 않는다. 뿌리가 있지 않니?》

《뿌리?》

《그래, 이렇게 불을 놓아도 봄이 되면 그 뿌리에 서 다시 같이 돌아난단다. 알겠니?》

《응.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갈을 연구할테야.》

《허허. 우리 영수가 용커든...》

어린 아들을 대견하게 굽어보는 남편의 얼굴에 소리없는 웃음이 함뱌 어려있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서 육종학을 전공하였다. 식물의 그 원리는 터득하였지만 아직 갈뿌리마다에 어려있는 제근본은 모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영수를 훌륭한 갈연구사로 키우려고 하였는데... 저 애가 저러니 어떻게면 좋아요?》

조진숙은 남편에게 하소하듯 절망에 젖은 목소리로 뇌이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갈숲의 설레는 소리에 삼키우고 바람은 희롱하듯 전선줄을 애처롭게 울리였다.

그날밤, 영희가 잠들기를 기다려 조진숙은 옷방에 올라가 아들과 마주앉았다.

아들이 연구원에서 새로 맡은 연구지표는 지금껏 연구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던 희귀한 약재였다. 그런것만큼 갈에 비하여 인차 연구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 연구원기간에 완성하자면 연구지표를 바꿔야 한다는것이 지도교원의 주장이었다.

《넌 대학을 다닐 때도 졸업하면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연구사업을 맡아하겠다고 했지. 나는 때로 지쳐서 맥을 놓았다가도 너의 그 말을 생각하며 힘을 얻곤하였다. 내가 하다 못하면 네가 있다는 생각으로...》

영수는 고개를 깊숙이 떨어뜨린채 모두숨을 내쉬고 나서 메마른 입술을 허끝으로 추기였다.

《어머니, 몇해 지나면 어머니는 년료보장을 받게 되겠지요? 그때에도 어머니는 지금처럼 시약을 구하려 다닌다, 강습에 간다 하면서 뛰어다니겠습니까?》

《넌 별나게 묻는구나. 그때에도 하게 되면 해야지 참...》

《지금 과제야 어머니자신이 실패하고 물려났던 것이 아닙니까? 난 어머니가 남의 뒤소리를 듣는게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말에 조진숙의 낫색은 하얗게 질리고 유순하던 눈길은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억이 막혀 묵묵히 앉아있었다. 오늘 와서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넌 뒤소리를 듣는것이 그리도 두렵니? 그런데 주저하면 한당대 할 연구사업을 못한다.》

《...》

《그리고 남의 뒤소리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걸 보지 못했다. 내가 그전에 실패하고 물려섰던건 쓸수 없는 파오였다.》

조진숙은 한손으로 구들바닥을 쓰다듬으며 깊은 회심에 잠겨 말을 계속하였다.

그때 조진숙은 새로 분화된 식물체도 돌봐야 했고 남편의 병구완도 해야만 했다. 남편의 병은 위급하였다. 잠시도 결을 떠날수가 없었다. 그는 연구사 이기전에 안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되어야만 했다. 의지가 약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껏 당앞에 빛을 진 심정이었다.

영수는 어깨를 쭈그러뜨리고 괴롭게 숨을 들이그었다.

《내가 다시 그 어려운 과제를 맡아나선건 바로 이때문이었다. 물론 내가 당장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우리 갈섬에 오시여 제시하신 목표를 달성하자면 이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진 우리 갈연구사들모두가 받아안은 과제고 필생의 연구목표라고 말할수 있다. 이걸 못하고 갈숲을 떠나다니... 차라리 갈숲을 그러안고 죽는편이 낫지.》

어느덧 조진숙의 목소리는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하여 갈리였다. 그래도 아들만은 어머니의 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었었다. 대학연구생이 되고보니 어느덧 아들의 생각은 달라졌단말인가?

그는 아들을 두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회오리치는 무거운 자책감에 가슴이 미여올랐다. 갈을 연구할 아들이라는것으로 그저 고맙고 대견하게 여겨왔을뿐 갈숲의 넋을 이어가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였다는 뼈아픈 후회심이 가슴벽을 허비였다. 갈에 대한 연구자료를 넘겨주기 앞서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간석지의 거친 등판에 체대배낭을 벗어놓고 등짐으로 갈섬을 건설한 그분들이 바라던 꿈과 미래를 후대들에게 넘겨줬어야 했다. 그런데...

《네가 갈을 버리다니?... 그건 아버지를 모욕하고 갈섬건설에 한생을 바친분들을 모욕하는거다.》

《아니, 어머니?》

《대학연구생이 되자 네 생각이 달라진 모양인데 그래서 안된다. 그분들에게도 다 제나름의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이 갈섬건설에 자기의 청춘과 희망을 바쳤단다. 아버

지도 그랬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흐리었다.

언제 깨어났는지 이불밑에서 영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었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계속되였다.

《네가 연구원을 마치면 무엇을 하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나라를 생각하기전에 자기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시련앞에 쉽사리 굴복하고 자신을 배반하는 법이다. 더구나 육종학자야말로 새 품종 하나를 나라에 보태기 위하여 자기 한생을 바친다는 각오가 없이는 육종을 못한다. 그래서 육종을 전공하자면 자질을 키우기전에 나라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부터 키워야 한다고 했다. 육종학자들의 마음에 티가 끼면 쓸모없는 종자가 생겨난다.》

조진숙은 아들에게만이 아닌 모든 육종학자들에게 호소하듯 열기된 목소리로 말하고나서 잠시 숨을 토했다.

영수는 뜻밖에 어머니한테서 그토록 혹독한 책망을 듣자 말없이 어깨사이에 목을 틀어박고 한숨을 지었다. 어머니 입에서 것처럼 예리하고 충격적인 말들이 새나오기는 처음이었다.

《나때문에 네 일이 안될것은 없으니 어머니걱정은 말어라. 난 갈숲에서 떠날수 없다.》

조진숙은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맞는 자식보다 채찍을 든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그는 피로움을 이겨낼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아픈 말로 아들을 괴롭히고 자기자신을 괴롭히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자정이 가까와오자 바람이 자는지 밖에는 얼마동안 정적이 깃들었다.

아들도 잠자리에 들고 딸도 깊이 잠들자 조진숙은 양복장안에서 영수가 졸업하면 입히려고 장만해놓은 양복을 꺼내놓았다. 전등불밑에서 단추를 달고있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었다.

4

《영희야, 네가 어머니대신 오빠를 바래주어라. 난 오늘 바쁘구나.》

딸에게 이렇게 이르고 출근한 조진숙은 배양실에 들렀다가 낮에 7호포전으로 향했다. 검은 작업복에 머리수건을 쓰고 갈밭사이의 포전길을 걷고있는 그는 분주히 랑쪽 포전의 갈꽃을 살피고있었다. 꽃시절은 연구사들에게 있어서 유혹의 계절이

였다. 눈꽃처럼 흩날리는 갈꽃의 특이한 정서에서만이 아니었다. 갈의 특성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때문이었다.

조진숙은 요즘 수심중에 달하는 갈의 품종적특성을 관찰하였으며 미묘한 변화도 놓칠세라 수첩에 일일이 기록하였다.

그는 눈송이를 쫓듯 눈앞에서 날리는 갈꽃을 휘

저으며 걸어가다 둔중한 배고동소리를 듣자 문득 걸음을 멈추고 부두쪽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그배편으로 떠나는것이다.

(그 애를 너무 모질게 떠나보낸것이 아닐까?...)

그처럼 기다리던 아들이였건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낸것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리었다. 아들이 와있는 시간은 오며가며 불과 사흘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긴 공허감은 너무나 컸다. 믿음이 컸기때문에 그만큼 받아안은 상실감도 컸다.

조진숙은 또다시 마음의 안정을 잃고 갈피없는 착잡한 생각에 잠겨 한자리에서 서성거리었다. 아들이 돌아오면 그동안 혼자 참고 묵새겨온 기쁘고 괴롭던 모든것을 이야기하며 며칠을 두고 함께 갈숲을 거닐리라던 어머니였다. 자기의 고심이 깃든 《비단갈》도 보여주기고싶었다. 그래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연구성과를 확대할 의논도 하고...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총총히 찾아왔다 그림자처럼 사라지고만것이었다.

조진숙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 한가슴 차오르면서 너무 모질게 대했다는 후회심이 들어 가슴이 얼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제스스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전에는... 내가 이 갈숲에서 떠나지 않는 한 저도 생각이 달라지겠지...)

조진숙은 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머지 않아 가을이 끝나면 또 불놓이가 시작될것이다. 그러면 하루사이에 황금색갈판은 재빛으로 변하고 겨우내 눈에 덮였다가 봄이 되면 살얼음밑에서 갈싹이 돋아나 다시 푸르려질것이다. 사시절 다양한 색조로 바뀌는 갈섬풍경을 화면처럼 눈앞에 그려보며 걸어가던 조진숙은 《비단갈》이 자라고있는 7호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황록색의 실한 갈대는 낫질을 한듯 하나같이 가쁜하였다. 이삭에서는 벌써 수정을 마친 하얀 꽃잎들이 바람이 일 때마다 솜털같이 흩날리었다.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조진숙의 눈에서는 섬광과도 같은 빛발이 날리었다. 남편의 낫이 깃들고 자기의 피라는 고심과 희망이 어려있는 이 갈을 보는것이 그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각이었다. 오늘도 아들로 하여 생긴 마음의 공허가 이리로 걸음을 이끌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포전머리에서 머리수건을 조여메고 갈밭으로 들어갔다. 미풍에 갈잎이 살랑거리며 해변에 탄 그의 얼굴을 마구 스치었다.

조진숙은 두팔을 벌려 앞의 갈포기들을 한아름 휘여안고 갈꽃이 피여난 이삭들을 다정히 어루만지었다.

《너야 내 마음을 알아줄테지. 너만은...》

그는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던 그 손으로 같이 삭을 모아쥐고 거기에 두볼을 비비며 하소하듯 속삭이었다.

이윽고 그는 자를 꺼내들고 갈대들의 줄기와 키를 재었다. 아무래도 키가 좀 작았다.

(그래, 아직은 안돼. 키를 높이기전에는 만족할수가 없어.)

그는 자신을 타이르듯 또다시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옮기었다.

모든 특성으로 보아 보통갈에 비하면 수확이 훨씬 늘어날것이지만 키가 작은것이 흠이었다. 키를 높이자면 아직 시간과 품을 들여야 했다.

이윽고 포전안으로 깊이 들어간 조진숙은 뻘뻘이 들어찬 갈대들을 조심히 헤치며 꽃과 잎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들을 수첩에 적어넣었다.

한시간나마 갈숲을 헤치며 수로옆의 포전머리에 이른 그는 수로건너편의 큰길가에서 들려오는 인적소리에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큰길가에 영희가 못박힌듯 한자리에 서있었다.

조진숙은 급히 수로쪽으로 올라섰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오빠가 시험포전을 돌아보고 떠나겠다기에 같이 왔다가...》

(복실이를 만나보려는 거겠지...)

시험포전에는 지난해에 분화된 어린 갈들을 키워 그곳에 옮긴 개체들이 있었는데 복실이가 그것을 관리하고있었다.

《오빠는 떠났니?》

《네. ...난 공언히 바래준다고 따라왔지 뭐.》

영희는 귀밑을 붉히며 목을 움츠러뜨리었다. 아마 복실이를 두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조진숙은 시계를 보았다. 이미 배가 떠날 시간이 지났던것이다.

수로를 가운데 놓고 어머니와 딸은 말없이 마주 서있었다. 수로물이 쇠왈좌알 소리치며 그들사이로 끝없이 흘러갔다. 넓은 하늘밑에 가없이 펼쳐진 갈숲에는 태고연한 원시림같은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종일 가야 인적하나 없는 넓은 길이 다만 사연깊은 갈숲의 비밀을 속삭이는듯...

《복실언니가 어머니를 기다리고있었어요.》

《왜?》

《간밤에 개채 하나가 리유없이 시들어버렸어요.》

조진숙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로가에 바짝 나앉아 얼굴을 씻고 나서 장화며 바지가랭이에 게발린 감탕을 씻어냈다.

《오빠가 <비단갈> 포전도 다 돌아보았어요.》

《왜?》

《어머니의 연구성과를 보기 위해서이지요. 어머니 오빠가 오면 <비단갈> 부터 보여준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오빠가...》

조진숙은 손을 멈추고 하염없는 눈길로 흘러가는 수로물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머닌 오빠가 대학연구원에 남는게 싫어요?》

《...당에서 필요하면 남는게지.》

《그런데 왜 그렇게 오빠를 책망했어요? 어머니를 대학실험실로 데려갔으면 하는거야 혼자 고생하시는걸 생각해서 그런건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실그러뜨리었다. 아들의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아들한테서 동정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서글픔에서도 아니었다. 꺼리낌없이 갈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그 피로움, 그 야속함에서였다.

《하지만 오빠는 어머니를 이해하더군요. 내가 며칠 더 묵어가라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가 있으면 어머니가 더 괴로와하신다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니 그러지요 뭐. 어머니, 오빠를 이해해주세요. 오빠는 갓지만 대신 내가 있지 않나요. 난 영원히 갈숲에서 살테야.》

순간 조진숙은 온몸에 휩쓸어드는 감동에 사로잡혀 말없이 한손을 올려 젖은 귀밑머리를 자주 쓸어 올리었다.

《그래서 오빠는 복실언니한테 공격까지 받고...》

오빠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변변히 대답도 못하고... 나중엔 할말이 없으니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 참, 망칙스러워...》

영희는 수로가에 바짝 나앉아 얼마전에 시험포전에서 영수와 복실이가 만나던 이야기를 하였다.

조진숙은 추연한 낮빛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였다.

《마지막 말은 똑똑히 들었어요. 오빠는 말문이 막히니까 글썽 복실언니에게 동무는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갈숲을 더 사랑하는가 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러자 복실언니는 되묻더군요. 갈새가 갈밭을 떠나서 살수 있는가요. 그러니 갈숲을 더 사랑한다는거지 뭐예요?》

조진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영희는 같이 시험포전으로 간다면서 수로를 건넌 잡도리로 걸옷을 벗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수로를 건느겠다고 그러냐?》

조진숙은 딸을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보며 만류했다.

《어머닌 내 헤염솜씨를 아직 모르시지요?》

영희는 옷을 뽕뽕 싸서 어머니에게 던져준 다음 날새게 수로에 몸을 던지었다. 넓지는 않았으나 보

통시내와는 달리 물살이 빨랐다. 영화는 거침없이 두팔로 물살을 헤가르며 순식간에 수로를 건너왔다.
《어때요? 이만하면 포전관리원이 될만하지요?》

조진숙은 젖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너스레를 떨고 있는 딸앞으로 걸어가 옷을 내밀었다. 이제는 키도 자라 성숙기에 들어선 딸이었다. 해풍에 그슬려 거뭇한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흘렀다.

그들은 곧 시험포전을 향해 떠났다.

5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한발이나 기울어졌다.

조진숙은 시험포전에 이르자 단지들이 놓여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지난해에 분화된 식물체를 애기 다루듯 키워 이곳 포전으로 내온 연약한 갈들이었다. 키도 자라고 잎도 늘었으나 성장과정의 변화는 각이했다.

웬일인지 복실이가 보이지 않았다.

옆에서 따라오던 영화가 단지들을 보자 불안한 기색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먼저 시들해진 단지앞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복실언니가 이 같이 죽는다고 막 안타까와했어요.》

조진숙은 수첩에서 그 개체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원래 영양도 좋지 않았거니와 자라면서 줄기가 휘는게 병신자식보듯 애처롭던 갈이었다.

그는 딸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다른 단지앞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 말어. 이런 갈도 있으니...》

조진숙은 눈에 띄게 대가 실하고 잎에 윤택이 흐르는 어린 갈을 애무하듯 쓰다듬으며 영화를 마주보았다.

《영화야, 이걸 보렴. 이 갈은 성장과정이 특이하다. 난 이 갈만 보면 가슴이 막 울렁이는구나.》

《아이참, 어머니 꼭 어린애갈네.》

《나이에 비해 이렇게 갈대가 실한건 처음이다. 〈비단길〉도 이렇게는 못했단다. 갈도 아마 어머니의 정성을 알아주는가보다.》

어머니의 얼굴은 저즈기 상기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로 언제 이 넓은 갈섬에 다 퍼지겠어요?》

《10년... 아니 더 걸리겠지.》

《그러면 어머니는 몇살이게요?》

영화는 토실토실한 손등으로 벌려진 입술을 가리켰다.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나? 내가 하다 못하면 네가 하고... 너희들이 있지 않니? 그렇게 조국은 귀중한 재부를 얻는단다. 목적인 종자를 하나 얻기 위

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을 바쳐야 하고 래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것이 육종학자들의 본분이 아니겠니?》

《하긴 그렇지요. 이 같이 성공되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어요?》

《글세... 〈비단 89〉로 할가?...》

《아니, 그건 너무 평범해요.》

입을 오무리고 잠시 궁리하던 영화는 곱게 휘어진 두눈썹을 추켜올리었다.

《〈진숙89〉, 어때요? 그래야 후대들이 이 같이 언제 생겨났고 또 그것을 연구한 어머니를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게 아닌가요?》

조진숙은 버릇처럼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후대들이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목적하는 새 품종이 생겨나 그것들이 역세게 뿌리를 내리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백리갈섬에 무성하는 갈숲을 이루면 바랄것이 없었다.

오래동안 단지들을 돌아보며 새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일일이 수첩에 적고나서 그는 포전머리의 초막으로 돌아왔다.

해는 갈숲이 바람에 밀려 파도쳐가는 서쪽끝에서 마지막 잔광을 뿌리고있었다. 어디에서 찾아드는 지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갈숲의 갈피갈피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갈새들도 깃을 찾는지 숲속에서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들은 얼마후 포전을 떠났다. 수로에서 흘러가는 물소리가 깊어가는 갈숲의 고요를 깨뜨리었다.

《저 하늘을 좀 보세요. 노을이 얼마나 곱게 비졌어요.》

말없이 걸어가던 영화가 몸을 돌리며 서쪽멀리로 눈길을 던지었다.

서해의 락조였다. 푸른 지평선과 푸른 수평선이 겹쳐진 하늘가에 해가 걸려 불덩이같이 이글거리었다. 그우에 기폭같은 노을이 찬란히 비끼었다.

날이 어두웠다. 저쪽 수로 건너편에서 인적기가 들리었다. 건너편 쪽우에 웬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조진숙은 무심결에 영화의 팔소매를 부여잡고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 왜 떠나지 않았나요?》

도량물처럼 맑고 또렷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떠날수가 없었소.》

나직이 울리는 남자의 대답이었다.

《왜요?》

《어머니를 괴롭혔기때문에... 아니요, 그것만도 아니요.》

몹시 시름겹게 새나오는 목소리였다.

그러자 야무지게 물기에 젖은듯싶은 처녀의 목소리가 또다시 귀청을 울리었다.

《그래서 수로에 다리를 놓았군요. 어머니가 수로를 에도는것이 보기가 민망하고 가없어서...》

조진숙은 그 어떤 예감에 숨을 죽이고 한층 귀를 강구었다. 몹시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어머닌 그런 동정을 비난보다 더 싫어한다는것을 모르는군요. 물론 이 다리로 다니시면 힘은 덜들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수동무가 놓은 이 다리를 건느실 때마다 어머니마음이 편하리라고 생각해요?》

순간 지금 이야기하고있는 처녀가 다름아닌 복실임을 확인하자 조진숙은 소리없이 뚝에 몸을 붙이고 어깨를 쭈그러트리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것이 가슴을 치받쳐올라 숨쉬기조차 괴로웠다. 영희도 아무 기척이 없이 숨을 죽이고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직 수로길을 굽이쳐흐르는 물소리만이 갈숲의 깊은 정적을 깨며 들려온 뿐... 낮에도 밤에도 쉽없이 포전을 적시며 백리갈섭을 에도는 수로물처럼 티없이 깨끗하고 변함없는 복실의 마음이었다.

잠시후 복실이가 먼저 침묵을 깨치었다.

《날 버리겠으면 버리라고요. 하지만 갈만은...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는 힘겹게 연구사업을 하시는 데...》

복실의 갈린 목소리를 듣자 조진숙은 가는 허리를 한층 구부트하고 떨리는 입술을 피가 지도록 깨물며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고마움에서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동정을 받아야 할 복실이한테서 오히려 동정을 받는 괴로움이였다. 갈판에 살얼음이 덮는 이른봄날부터 물날은 솜옷자락을 감싸고 줄곧 포전길을 걷는 복실에게 자기는 수고한다는말 한마디밖에 해준것이 없었다. 그래도 복실이는 그것들을 과분히 여기어 두볼을 붉히면서 수줍어하였다.

《떠날 때는 이 다리를 건너놓아요. 그래야 어머니는 동무생각을 잊고 연구사업을 하실거예요.》

《복실인 왜 자꾸 엇드레질이야?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영수는 토막토막 끊어지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난 지금 피로소. 연구지표야 아직 시작한것도 아니니 문제될것이 없지만...》

《...?》

《어머니는 갈섭을 건설하던 그때처럼 살아가시느라 애쓰시는데 난 차레진 행복에 눈이 어두웠던 거보요.》

그러자 한층 가라앉은 복실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영수동무, 어머니에게 다시는 갈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지요?》

《그러지...》

조진숙의 가슴은 바람을 안은 돛폭처럼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는 화끈거리는 눈시울을 습벽이며 흘러진 귀밑머리를 쓸어올리었다.

《영수동무, 그러니 갈새가 잠깐 유원지를 넘겨다본셈이군요.》

힐난하듯 복실의 뒤틀어진 목소리에 이어 영수의 맥빠진 웃음소리가 들리었다.

영희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저없이 수로쪽으로 걸어나갔다.

《복실언니!》

수로 건너편에서 복실이가 반기였다.

《영희구나. 이쪽으로 와.》

영희는 되돌아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었다.

《여기야, 오빠가 수로에 다리를 놓았어.》

그사이에 영수는 긴 통나무 두대를 꺾쇠로 박아 겹쳐놓은 나무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조진숙은 걸음을 더듬으며 다리에 올라섰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조진숙은 다리우에서 못박힌듯 굳어져버리었다.

영수가 마주와서 어머니의 손을 부축하였다.

《영수야, 네가 다리를...》

《어머니, 저를... 욕하세요.》

조진숙은 두손으로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목이 메어 말문이 막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리었다. 이미 갈섭을 떠났으리라고 믿었던 아들이 지금 어둠에 잠긴 갈숲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부축하고있다는 그 고마움에서인지, 아니면 아들의 가슴에 모질게 못을 박은 어머니의 후회심에서인지 모를 감회가 한데 어울려 그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쳐올랐다. 붙잡지 않아 더 떠나지 못한 아들이었고 가도 육종학자의 본분만이라도 지니고 떠나기를 바라던 어머니였다.

조진숙이 아들의 손에 이끌리어 다리를 건느자 영희가 뒤따라 건너왔다.

《복실언니!》

영희가 복실의 가는 허리를 안고 땀돌이를 쳤다.

그들은 인차 큰길로 나섰다. 갈꽃이 날리어 그들의 어깨며 머리우에서 배회하였다.

갈숲우의 상공에서 비늘구름을 헤치며 달이 헤엄치고있었다.

《별써 달이 떴네. 오빠, 얼마나 좋아요? 장엄하고 신비롭고... 우리 갈섭은 정말 별난데야요. 와보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인줄은 모를거예요.》

영희의 눈동자가 달빛에 어려 반짝이였다. 갈숲속의 넓은 개고에서는 달빛에 흘린 팔뚝같은 고기들이 저마끔 재롱을 부리듯 수면으로 튀어올랐다.

그것을 보자 영희가 오빠에게로 고개를 돌리었다.

《오빠, 물고기들도 달빛에 취해서 저렇게 야단인가 보지요?》

《그렇가?...》

어둠속에서 주고받는 그들의 목소리가 물소리에 가리워졌다가 고즈넉한 갈숲속으로 잦아들었다.

《오빠, 저 노을을 봐요.》

영희가 가리키는 먼 수평선우에는 아직 주홍색노을이 비껴있었다. 어두운 하늘가에 갓가지 떠그림을 그리며... 래일의 쾌청을 예고하며... 황혼이 짙어갈수록 더 아름답게 불타는 저녁노을이었다.

들 새

석광희

새빨갳던 열매
빛을 잃고 말라버린 찢광이며
바지에 달라붙는 엉경퀴덤불에
개간의 첫삽을 박는 아침

푸드득
놀란 들새 한마리
깃을 치며 날아올라라
머리우를 빙빙 돌고돌며
푸드득... 푸드득...

이허 알랑한것아
하잘것 없는 이 덩불이
그래도 제 정든 보금자리라고
판데 옮겨가기 그리도 아쉬워하느냐
날아가다가는 다시 오고
떠나가다가는 돌아보며 되돌아보며

섬섬해 말아
야속해 말아
너를 쫓음이 아니라
새땅을 얻고저 함이니

그렇더란다
우리의 땅은 어느 한치도
그냥 묵여서는 안되느니라
잡초와 덩불과 돌무지에 묻혀

버림을 받아서는 안되느니라
높이 떠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어디 간들 네가 깃들곳 없겠느냐
저기 푸른숲이 설렌다
어서 오라고
어서 와서 깃을 접으라고

거기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맞아주리라
눈비도 바람도 가려줄 보금자리가
덤불속에서 물든 채빛털
파란빛 붉은빛 노란빛으로
꼭게 꼭게 치장해주리라

그래도 여기를 못잊겠거든
오너라, 다시 오너라
첫 씨앗 뿌리는 봄날
아니면 풍년나락 일렁이는 가을에 오너라
새로 생긴 땅에서 같이 살자꾸나

그날을 생각하면 그러보면
새땅을 일구는 땀이 좋구나
푸드득 푸드득
깃을 치며 어디론가 날아가는
이름모를 들새야

내 고향의 밤

박천걸

풀잎에 이슬 맺히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두트
달아올랐던 가슴에
서늘한 봄바람을 호흡하는
땅의 숨결소리 정다운 이밤

귀 기울이면
어느 집 처마밑에
재롱섞인 아기의 웃음소리 온 넋을 빼앗고
아, 모내기로 들끓던 한낮이

바라보면 엷은 운무사이
줄줄이 쏟아지는 달빛에
파란 애기모들 더 예뻐졌구나

저기 들 건너편
추녀를 높이 든 문화회관의 불빛은
우리 생활에 뿌려진 보석같아라
언덕우에 이어놓은 물줄기는
출렁출렁 봄노래를 안았구나
불같은 사나이의 성미라면

온 마을을 조용히 다독이며
황홀한 신비경을 펼친 내 고향의 이밤은
수집은 너인의 그윽한 미소인가

달빛과 물소리와 푸른빛이
꿈속같은 조화를 이루어
정녕 한쪽의 그림같은 이 땅
불빛은 어느 집 창문에서도
행복의 웃음이 기쁨이
아름아름 쏟아져나오는 내 고향

그 웃음 그 기쁨 그 아름다움을 안고
즐거운 명상에 잠겨 향기에 취해
어데든 그 어데든

끝없이 거닐고만싶은 사이
땅밖에 모르는 이 가슴에도
절로 넘치는 시흥에
좋은 시조차 한수 쓰고픈 마음이여

사랑해
나의 농장 평범한 사람들이
서정의 천만음향을 하늘땅 사이에 가득 채워
나에게 별같은 시를 주는 고향의 밤아
사랑하리 사랑하리
한생토록 정을 끓이며
흘리는 땀으로 애모쁜 마음으로
더 좋은 래일을 꾸며가는
아, 선경같은 여기선 시인이 따로 없겠구나

아버지의 팔베개 외 1편

박 영

대견스럽다
꽃베개 밀어버리고
이 아버지 팔을 베고
량옆에 누운 두 아들이

금돌이라 불리우는 광석을 캐는
내 구리빛 두팔뚝이
《금베개》로 보이는것인가
잠들기엔 세상 제일로만 아는것인가

다름- 다름-

코를 고는 모양이
벌써부터 이 아버질 닮아간다
검덕산을 통채로 허물어갈
광부의 꿈을 꾸며

잠을 청하니
두팔에, 온몸에 무드기 실려오는
아버지 된 자각과 의무의 무게...
아, 이런 생활의 무게야
빠근할수 있겠는가
생활이란 얼마나 좋은것인가

아버지의 가슴

큰 거울앞에서
다심한 안해의 《검열》을 받고
금빛훈장 절령이며 문을 나서니
한꺼번에 이 가슴에 매여달리네
앞마당에서 뛰놀던 첫째, 둘째가

손도 광부인 이 아버질 닮아서
빼여지게 큰 손으로
훈장과 메달을 살펴보는 나의 아들들...
제 어머니 젖품을

많도록 파고들던 그 본생가
도무지 떨어질줄 모르네

방송야회시간만 아니라며는
언제까지이건
이 가슴을 내맡기고싶네
조국이 표창으로 내밀어준
이 아버지의 가슴
자랑으로 주는것인듯싶어...

지휘관

김관일

통일거리착공당시에 이곳을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몇달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고구려의 옛 유물들이 묻혀있을뿐 오랜 세월 못사람의 시야밖에 있던 땅이었다는것을 그리고 비가 조금만와도 온통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던 점토질의 구릉지대였다는것을 도저히 상상할수 없으리라.

그만큼 이 땅은 지금 몰라보게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엄청난 토량을 밀어버리고 시원하게 쪽 뽑은 중심도로와 그 도로의 양옆에 우후죽순처럼 키를 다루며 창공높이 치솟고있는 수많은 고층, 초고층의 살림집들...

얼마전까지도 평양의 주변구역으로서 유축에 자리잡고있던 이곳 락랑땅에 첫 측량기점이 세워지고 요란한 착공의 발과소리가 울리던 그때,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수도건설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야외에 가설건물을 전개하던 그때 사람들은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받들고 미구하여 일떠서게 될 통일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런지는 아직 상상의 도움으로밖에 그려볼수 없었다. 건설장의 입구에 세워진 통일거리 대형전경도를 바라보면서도 웅근 한개의 도시건설과 맞먹는 거창한 대건설을 과연 것처럼 짧은 기간에 우리들의 힘으로?!... 하며 벅차게 뛰노는 흥분을 달래지 못하던 건설자들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달도 못되어 우리의 눈앞에는 거대한 변혁의 화폭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우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반드시 수행하고자말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결심하고 달라붙어 투쟁할 때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습니다.》

오늘 통일거리건설에서 창조되고있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선 지휘관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그리고

그들은 해당한 결심을 채택하며 구령을 내린다.

돌격앞으로 !

평양시청년건설사단의 지휘일군들은 흔히 대동강구역련대의 김병덕련대장을 가리켜 돌격대의 지휘관으로서는 더없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군한다.

《원래 돌격대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지요. 요구성이 강하고 엄격하고... 배짱은 또 얼마나 세대구요. 꼭 무관형이지요.》

《그 사람네 련대가 일을 제끼는걸 좀 보십시오. 대원들도 그 사람의 기질을 닮았지요!》

사실 그의 련대가 맡은 3-4호 《마》동의 살림집이 평양시청년건설사단적으로 제일 높이 올라간것을 보면 그렇게 말할만도 했다. 그리고 또한 광복거리건설때 중병을 앓고있는 몸으로 마지막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진두에서 전투지휘를 한것- 그것 역시 돌격대기질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었다.

허나 그는 돌격대출신이라기보다 오래동안 교육부문에서 일해온 사람이였다. 교원으로서, 교장으로서, 구역의 교육담당부위원장으로서... 20여년간을 교육사업에 종사해왔다.

체소한 몸집에 좁은 하판, 희끗희끗한 귀밑머리, 침착하고 사려깊은 눈빛이며 매사에 정확하고 빈틈없이 꼼꼼한 성품... 그는 무엇보다먼저 교육자였으며 엄격한 실무가였다.

그의 련대가 통일거리의 살림집건설에 들어간 초기였다. 그때 대동강구역련대앞에는 매우 어려운 곤난과 악조건이 가로놓여있었다. 기초공사때 예견치 않았던 지층에 맞다들려 한동안 애를 먹은데다가 대부분 건설경험이 없는 새 대원들로 련대가 재보충되고보니 좀처럼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련대에는 기중기가 제일 늦게 도착했다.

그들이 아직 기초벽도 세우지 못하고있을 때 건너편의 련대들에서는 한창 골조조립에 기세를 올리고있었고 자기들의 린접인 모란봉구역련대에서도 3층을 조립하며 그들이 보란듯이 조립현장꼭대기에 기발을 꽂았다. 대동강구역련대의 돌격대원들은 한풀 꺾인 후줄근한 모습으로 이웃련대의 신바람이 난 조립현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지휘일군들은

조바심이 나서 분주히 돌아칠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런 때 김병덕련대장은 련대참모일군협의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그는 대동강 기슭에 로천부재장을 크게 꾸리며 련대에 새로 배속된 돌격대원들을 한달동안의 기능공강습에 보낼 자기의 방안을 내놓았다. 여유작작하고 태연한 얼굴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김병덕련대장앞에서 참모성원들은 의아하여 서로 마주보았다.

사단적으로 골조조립경쟁이 벌어진 이런 때에, 단 한명의 로력도 긴장한 이런 때에 돌격대원들을 현장에서 떼내어 기능공강습에 보내다니? 게다가 로천부재장을?... 이불깃을 보고 발을 퍼했다고 그렇게 일을 잔뜩 벌여놓았다가 기본골조조립전투는 어떻게 하자는건가?...

주위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련대장의 제안에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조립대대장 방두현동무가 일어섰다.

《기능이야 일하면서 배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금 골조조립에 들어가 불같은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판에 언제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로천부재장도 그렇지요. 지금 당장 부재가 걸린건 아닌데 잡지도 않은 돼지를 구워먹겠다고 장작을 쪼아지고 다닐건 없지 않습니까.》

김병덕련대장은 승벽심이 굴뚝같고 무던히도 성급한 방두현동무를 바라보며 넋지시 미소를 지었다.

《참 대대장동무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던가?》

방두현동무는 련대장이 갑자기 자기의 고향을 묻는 까닭을 짐작 못한채 대답했다.

《은성입니다.》

《복청하구는 멀구만...》

장내에 가벼운 웃음이 번지었다. 때에 따라 적절한 해학을 사용할줄도 아는 이런 때의 김병덕련대장은 돌격대의 지휘관이기보다는 교육자에 더 근사했다.

《이것보오. 대대장동무, 모든 일에는 선후차가 있고 중심고리가 있는 법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말을 탄채로 보선을 기울수야 없지 않소. 기능공강습에 보냅시다! 그들이 유능한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에게서 건설의 예술을 배우도록 합시다. 이제 그것이 꼭 은을 낼거요!

그리고 로천부재장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앞으로 골조조립이 본격적인 단계에 이를 때에는 높아지는 조립속도에 부재생산과 운반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수 있소. 지휘일군들은 이런 경우까지도 다 예견

해야 하는거요!》

그의 어조는 그리 높지도 강경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는 지휘관으로서의 무시할수 없는 풍격이 있었다.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는 돌격대식 담력과 교육자다운 치밀한 조직사업과 예견성에 련대의 참모성원들은 탄복을 금치 못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92종의 부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할 결심을 안고 대담하게 연건평 2만 5천평방메터의 로천부재장을 꾸리는데 달라붙었으며 새로 들어온 건설자들의 기능공강습을 조직하였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격언이 있다.

김병덕련대장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지휘에 의하여 이렇게 첫 시작을 땀 련대는 골조조립에 착수할수 있는 모든 사전준비를 완료하였고 신들메를 단단히 조여맸다. 조립시작전까지 8층조립에 해당하는 량의 부재생산을 선행시켰고 한달동안의 기능공강습을 통하여 건설자들의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현저히 높이었다. 때마침 기증기의 설치까지 완전히 끝낸 김병덕련대장은 드디어 6월 28일돌격구령을 내렸다.

《돌격앞으로!》...

그때에는 이미 다른 련대들에 비해 골조조립에서 한달반, 총수로는 9층정도 밀진 그들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벌써 승리를 내다보고있었다.

자, 우리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라!...

그무렵 대동강구역련대근처에 자리잡고있던 다른 련대의 건설자들은 그렇게 소리치며 일하는듯한 그들의 모습을 마치나 꿈을 꾸는듯한 눈으로 바라보고있었다.

한달도 채 못되어 그들은 자기들의 옆에서 기발을 울리고있던 모란봉구역련대를 수월히 따라잡았고 그다음 한달후에는 사단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게 되었다. 다른 련대들에서 골조조립과정에 부재가 미처 보장되지 않아 애를 먹고있을 때에도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꾸린 로천부재장에서 부재생산과 운반을 조립에 확고히 선행시키는 한편 높은 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하며 살림집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칠수 있었던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평양시청년건설사단의 모든 건설자들은 제일 하찮게 보았던 그들의 일숨씨를, 번개같은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꼭 교역사들의 채치있는 톨동과 췌인 안삼불을 련상케하는 그들의 일숨씨를 이제 누구도 당할수 없게 되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 대동강구역의 이악쟁이들!...》

경쟁에서 첫자리를 빼운것으로 하여 화김에 사동 구역련대에서 나온 이 말은 며칠사이에 사단내의 건설자들속에 퍼졌고 사단장은 빙그레 웃었다. 그는 그 말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적의 경쟁대 방에 대한 건설자들식의 탄복과 선망이라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것은 김병덕련대장이 골조조립전투에 앞서 진행한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조직사업이었다. 참된 지휘일군은 돌격구령을 아무때나 함부로 내리지 않는것이다. 모든 일을 사전에 치밀하면서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며 일단 돌격구령을 내린 다음에는 과단성있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업 전개원칙이며 지휘일군들에 대한 당의 요구인것이다.

《돌격전은 저 대동강구역련대식으로 해야 하오. 저게 바로 우리의 일본새요!》

사단장은 각 구역 련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으며 김병덕련대의 경험을 전 사단에 일반화하였다.

지휘관과 건설자대중

8월달에 접어들며 골조조립과 보장, 내부미장이 동시에 벌어져 그야말로 립체전을 이룬 건설장의 전반사업을 지휘하면서도 김병덕동무가 항상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것은 사람문제였다.

건설초시기 련대내의 일부 지휘일군들속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찍하면 휴식일에도 작업을 하는것을 보면서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조장하고있는것을 본 김병덕동무는 즉시 그들을 비판하고 문제를 바로잡았다. 일군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고 작업조직과 협동작전을 합리적으로 잘 짜고들기만 하면 무리하게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높은 능률을 올릴수 있다는것을 그는 늘 강조하곤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이른 아침 계단을 밟고 작업현장에 올라가 밤교대의 작업모습을 바라보던 김병덕동무는 문득 한곳에 시선을 멈추었다. 골조조립에서 부재의 부호별 조립순위를 어긴것을 발견했던것이다.

그는 밤교대의 교대장이며 조립소대장인 리기복동무에게 물었다.

《몇장째요?》

《마흔아홉장째입니다.》

밤을 밝힌 사람답지 않게 사뭇 패활하고 자랑스러운 대답이었다.

한개 조립소대에서 한교대에 49장의 부재를 조립했다는것은 사실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사단적으로, 아니 통일거리건설장적으로 아직 이러한 기록은 없다.

김병덕동무는 자기에게서 만족한 표정을 기대하듯한 리기복소대장의 지꼴은 시선을 느끼며 무뚝뚝하게 잘라 말하였다.

《당장 작업을 중지하고 내려오오!》

《예?... 무슨 일입니까? 교대시간전까지 원장을 마저 채우려 했는데...》

《말을 못들었소? 작업을 다음교대에 인계하고 내려오시오!》

하는수없이 작업을 인계하고 련대장의 방에 들어선 리기복소대장은 여느때와는 판판 다른 련대장의 얼굴을 보았다.

《왜 부재의 조립순위를 어겼소?》

《저 그건... 그렇게 하는게 더 빠르기에... 하지만 마지막 한장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속도를 좀 내느라구...》

돌연 련대장이 책상을 팡 내려치는 소리에 그는 말을 끊었다.

《속도를 내느라고 그랬다?... 그래 동문 속도와 사람을 바꿀수 있소? 부재의 조립순위가 단순한 기술공정이 아니라 거기엔 노동안전대책도 함께 포함되어있다는걸 모르는가! 안전띠의 고리는 왜 걸지 않았소? 소대장자신이 그러니까 대원들이 어떤가 보오. 안되겠소. 동무네 소대의 오늘 작업실적은 무효요! 그리고 소대장동문 오늘 정치부장동무와 나에게 잘못을 빌기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오! 알겠소?》

《...》

밤을 꼬박 새우며 골조조립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운 리기복동무에게 칭찬대신 서리발같은 욕설을 안겨줘야 하는 련대장의 마음도 편안치 않았다. 더우기 리기복소대장으로 말한다면 자기가 안상택거리건설때부터 데리고 일해왔으며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온, 련대내의 소대장들가운데서 가장 일욕심이 많고 날과람있는 청년소대장이었던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련대장은 밤이나 새벽에 자주 작업현장에 올라오곤했다. 한해전 복부에 수술을 받은 일이 있으며 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쌀쌀한 새벽날씨에 자주 현장에 올라오

는 련대장의 건강을 넘려하여 지휘부일군들과 대원들이 극력 만류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건설장의 꼭대기에서 척 굽어보며 새벽바람을 맞는게 더 좋구만. 그래 이번엔 몇장째요?》

《이번에도 저… 마흔아홉장째입니다.》

그러나 전변과는 달리 주눅이 들린 대답이었다. 련대장은 리기복소대장의 안전띠를 다공판의 고리에 단단히 걸어주며 그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하오! 그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주의하오. 사고란 대체로 그 마지막 하나를 더 채우려고 덤비다가 저질러지곤하거던… 일보다도 사람을 먼저 봐야 하오. 사람을!…》

《명심하겠습니다!…》

자기의 어깨에 얹은 련대장의 손길과 한없는 미더움이 담긴 눈빛에서 후더운 온기를 감촉한 리기복소대장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요구성이 강하고 엄한 김병덕련대장의 대원들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말없는 눈빛에서, 때로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대원들에 대한 추상같은 꾸밈음에서, 또한 자기에게 차례진 영예마저도 죄다 아낌없이 대원들에게 돌리는 영광의 수훈식장에서 표현되곤했다.

사랑은 믿음에 기초하며 그것은 또한 기적과 위훈을 낳는다.

련대내 모든 지휘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기세충천하여 골조조립을 다그치고있던 8월중순의 어느날… 련대참모장 김혁진동무는 저녁총화뒤끝에 련대장과 단둘이 마주앉자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다.

《앞으로는 골조조립을 어떻게 하렵니까?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뭘 말이오?…》

련대장은 다른 생각을 쫓고있던 사람처럼 무심히 되물었다.

하지만 다년간 그와 함께 일해온 김혁진참모장은 련대장의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가 요즈음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에 골몰해있다는것, 그리고 이 며칠째 그의 방에서 새벽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있다는것을 참모장은 알고있었던것이다.

《이제 얼마후엔 련대가 마지막 저지선에 이를텐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련대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는 《마지막 저지선》이란 12층계선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련대가 맡은 살림집의 층수는 18층인데 그 작업현장에 유일하게 세워진 탑식기중기의 조립능력은 12층밖에 안되었던것이다.

《그래 참모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제 생각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중기를 만들어 세우는것인데 그러자면 적어도 두달가량은 걸려야 합니다. 안전한 길이긴 한데 너무 오래지요. 우리의 비위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두번째의 방안은 지금 있는 기중기의 팔을 곧추 세우고 작업하는것인데 그렇게 한다해도 어쨌든 18층이후의 만장조립까지 빠듯할뿐아니라 기중기의 안전성이 문제로 됩니다. 하지만 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좀더 심화시킨다면…》

《음…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보오. 이왕이면 적극적인 방안을 택해야지! 나도 그새 좀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우리 차라리 이렇게 하시오. 매일 현장에서 기술협의회를 조직하시오. 실지 일하는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느라 무슨 좋은 수가 날거요. 대중의 지혜에는 아까 동무가 말했듯이 그 무슨 〈저지선〉이라든가 제한성이라는게 없거든!…》

그리하여 다음날 김병덕련대장은 련대의 살림집 조립현장에서 해당한 실무일군들뿐아니라 광범한 건설자대중의 참가하에 현장기술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로반을 옮기고 기중기의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며 기중기의 팔을 더 연장하자는 제의… 그 가운데서도 련대장의 주의를 끈것은 한 조립공청년의 제의였다. 광복거리건설때부터 《창의고안명수》로 알려져있으며 눈썰미가 있는 그 조립공청년은 지금의 기중기를 그대로 두고 매 층을 조립할 때마다 팔을 일정한 각도로 조금씩 세우면서 부재를 구석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조립해나오자는 대담한 발기를 내놓았다.

《계단식조립이라?… 흥미있소! 그런데 기술적인 담보는?…》

련대장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 청년은 옆에앉아있던 신호공청년을 톡 쳤다.

《여, 〈학자선생〉, 그 수첩을 좀 꺼내게. 이 친구가 자기 수첩에 조립위치변화에 따르는 력학계산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중기는 끄떡없습니다!》

《그 수첩을 어디 좀 보지요.》

물을 즐기는 건설자들속에서 일명 《안경쟁이》로, 《학자선생》으로 불리우고있는 그 신호공청년은 껌두룩한 몸을 일으키며 자기 수첩을 내보였다.

련대장은 그 수첩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제법 계산을 했는걸! 언제 이런 생각을 다 했을가? 역시 주인은 주인들이야!...)》

련대장은 대견한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자기가 이미 마음속으로 굳혀오고있던 결심과 신통히 일치했던것이다.

그가 광범한 건설자대중의 참가하에 현장기술협회를 조직한 주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건설의 주인들인 이들의 신심에 넘친 대답을 듣고 싶었던것이다.

《가만, 그것도 그렇지만 보다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정애동무나 광옥동무가 한번 대답해보오. 이젠 말하자면 교예와 같은거요. 기중기의 팔을 한껏 세우면서도 력학적중심이 파괴되지 않게 기중기를 잘 유지해야 하거든. 그렇게 할수 있을까?》

기중기운전공인 두 처녀가 일어섰다.

건설장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자기네한테 달려있다는 느낌때문인지 두 처녀의 얼굴빛이 홍시처럼 발갛해졌다. 여전히 량볼이 훗훗 달아오른채로 살며시 자기들끼리 시선을 마주친 두 처녀가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대답했다.

《예, 자신있습니다!》

수태어린 모습이었으나 자신심에 넘친 여무진 목소리였고 정기가 반짝이는 눈빛들이었다.

련대참모성원들중의 누군가가 그 단발머리처녀들의 대답을 미심쩍게 여기며 좀더 심사숙고할것을 주장했으나 김병덕동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기의 기중기운전공처녀들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한 깊은 연구심과 높은 책임성,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지없이 암팡지고 당돌하며 이악한 처녀들... 련대장은 그들의 대답에 대한 의향을 묻듯 정치부장 한봉선동무를 돌아보았다.

(정치부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어야지요! 주인의 대답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치부장 한봉선동무의 미소어린 눈빛에서 이런 무언의 대답을 읽은 김병덕련대장은 자리에서 일어

났다.

《난 이미 결심했소. 이 동무들이 한다면 하는거요!》

12층조립능력의 기중기로 18층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대담한 작전은 이렇게 수행되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45돐을 맞는 10월에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18층살림집의 조립공사를 남먼저 끝냈을 때 대동강구역련대를 찾은 한기자는 련대정치부장에게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물었다.

《그건 련대장동무에게서 듣는게 더 나을겁니다. 모든 일은 그가 직접 틀어쥐고 지휘했습니다.》

련대장은 련대장대로 또 이렇게 대답했다.

《건설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은 그들이 하나까요! 그들은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인 담당자들입니다.》

기자는 련대장의 말대로 건설현장의 청년돌격대원들을 만났으나 그들의 대답도 역시 같은 《방정식》에 의한 풀이였다. 다만 그들의 대답은 좀더 소박했을 따름이였다.

《우리의 지휘관을 만나보십시오. 모든 결심은 지휘관이 내리지요. 일단 지휘관이 결심을 내리면... 우린 합니다!》

대답은 탄탄히 있지 않았다. 지휘관과 건설자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으며 호상 동지적인 두터운 신뢰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비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것이다.

지나간 이야기

언제인가 김병덕동무는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에게서 이런 물음을 받은적이 있었다.

《아버지, 행복이란 뭐예요? 여느때 늘 말해오다가도 막상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짓자니 잘 떠오르지 않아요.》

《행복?...》

느닷없는 물음에 일순 생각을 더듬던 김병덕동무는 막내딸애의 천진한 눈동자와 저쪽에서 말없이 자기를 건넌여보고있는 안해의 은근한 시선을 받으며 대답했다.

《글쎄... 그건 사람마다 제나름으로 해석하는 문제여서 어떻게 한마디로 딱 찍어 대답할수가 없구나... 하지만 내 생각엔 이렇다. 행복이란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쳐 일하는 거기에 있다고 본다. 왜냐면 일하는것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때문이다. 로동과 창조는 수많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

《하지만 일하는 그것만이 행복으로 될순 없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순진하게 끝이끝대로 받아들인 막내딸애의 반문에 방안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 딸 다섯남매가 모두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의 안해 리선옥동무만은 웃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그 자신의 실생활에서 우려나온 말이라는것을 알고있었던 것이다.

그는 정말로 휴식을 모르는 사람이였다.

교육부문에서 일할 때는 후대교육사업때문에 줄곧 머리를 쓰고 바빠 뛰여다녔으며 건설장의 사업을 맡았을 때에는 또 그때문에 잠시도 휴식없이 일했다. 건설자들이 로동의 피로를 풀어 편안히 휴식하는 그런 날에도 그의 머리속에서는 건설장과 건설자들에 대한 생각이 순간도 떠난적이 없었다. 현재 나의 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혹 놓치거나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 작업조직에서 빈틈은 없는가? 작업공정이나 기술문제에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가? 건설자들이 생활상의 어떤 문제들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는가?... 그는 언제나 사색하는 사람이였으며 일하는 사람이였다.

아침일찍 출근하였다가는 밤늦게야 집에 들어오며 어떤 때에는 몇달씩 보이지 않군하는 그에 대하여 한 동네에 사는 녀인들은 리선옥동무에게 가끔 이렇게 묻곤했다.

《그집 나그네는 무슨 일을 하기에 이웃에 살면서도 여적 얼굴 한번 볼수 없군요.》

그의 안해는 남편이 사회사업에 못지않게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또 그렇지 못한 남편들을 흔히 《나그네》로 여기는 그런 천박하고 세속적인 녀인은 결코 아니였으나 그에게도 역시 남편에 대한 마음속의 근심은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건강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장기 질환을 가지고있는데다가 어떤 날에는 밤새 심한 진통을 겪고서도 이튿날 새벽이면 또다시 건설현장에 나가려고 일어서는 남편의 팔소매를 부여잡은 일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제발 무리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보श्य. 럽대에 당신밖에 지휘일군이 없어요? 그렇게 병을 자래우다가 나중에 어쩔려구 그래요.》

그럴 때마다 김병덕동무는 혼연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했다.

《내 병은 내가 알고있소. 하루이를 치료해서 쉬이 나을 병이 아니지 않소. 이제 안상택거리건설이 끝나면 그때엔 실컷 휴식하면서 치료받을테니 근심마오.》

그러나 김병덕동무는 안해와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안상택거리건설이 끝나자 그는 자신에게 휴식과 치료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곧 광복거리건설장으로 전투장을 옮겼던것이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광복거리건설이 한창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있을 때 한편

김병덕동무의 건강은 각일각 위험한 상태로 접근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럽대가 맡은 대상건설을 하루 빨리 앞당겨끝낼 일념으로 직접 손에 미장칼을 잡고 높은 발판우에 올라서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고무하며 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과 호방한 룡담도 주고받으며 높은 발판우에서 결싸게 일손을 놀리고있는 김병덕 럽대장, 대원들은 그의 이마에 좁쌀알처럼 무수히 내뿜은 진땀을 보면서도 그것을 로동의 구슬땀으로 생각했을뿐 그의 내부에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있는줄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무렵의 그가 밥대신 미음으로 때를 에우며 현장에 나오고있는 사실은 럽대의 몇몇 일군들을 제외하고는 극히 비밀에 붙여졌다.

전투가 마감단계에 이르면서 그의 병세가 더 견잡을수 없이 악화되여가고있는것을 안 당조직에서 김병덕 럽대장을 병원에 후송하러 했으나 그는 완강히 거절하였다.

《돌격대원들이 지금 나의 얼굴을 보고있습니다. 당에서 준 과업을 관철하지 못한채 중도에서 내가 물러선다면 럽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병에 대해선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병치료에서 의료가구나 약보다는 의지를 더 믿습니다.》

...몇달후 마지막전투를 끝낸뒤 구급차에 실려 대동강구역병원으로 후송된 김병덕 럽대장의 병력서에는 비정상적인 혈압과 맥박, 병을 오래 경과한 그의 기왕력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되었어도 심장에 대해서는, 그의 강한 의지력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다.

심장은 한날 의학의 범주에만 속하는것도 아니며 사춘기의 처녀들이 흔히 품고다니는 장미색의 수첩에서처럼 감상적이며 현란한 문구로 씌여지는 그런것도 아니다.

김병덕 럽대장이 실신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사들은 그가 몇시간전까지만 해도 광복거리의 건설현장에서 마지막전투를 진두지휘하고있던 사람이였다는것을 믿을수 없었다. 의료일군들은 보통의 상식을 초월한 환자의 상태앞에서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때 모든 드바쁜 일을 뒤로 밀어놓은 대동강구역당책임비서 리광범동무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다. 복도의 한구석에서 흐느끼고있는 김병덕동무의 안해를 언뜻 일별하고 흰 위생복을 걸친채로 쇼크상태의 환자앞에 이른 책임비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김병덕동무가 어떻게 됐대구요?!》

그의 물음에 한 외과위가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늦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침묵...

수술실에 납덩이같은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리광범책임비서는 그 외과의의 채 잊지 못한 뒤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았다. 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칼을 대기 주저하는, 이미 마지막 숨을 넘기고있는 그에게 다시 두번째의 고통을 주기 저어하는 의사들의 심리를 헤아린 책임비서는 조용하나 절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수술과정을 립회하겠습니다. 당결정을 관찰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동무인데 어떻게 하나 꼭 살려야 합니다. 수술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으니... 합시다!》

20년간의 외과의의 경력을 가진 원장 김봉삼동무가 직접 집도를 하였다. 무영등아래에서 한시간이 한세기 맞잡이로 흘러가는듯한 그 긴장한 수술과정에 문득 환자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

고동을 멈추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까지의 4분 30초... 그 4분 30초동안에 당에서 어떤 긴급대책을 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더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으려다.

그때로부터 140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한 김병덕동무는 안해와 담당간호원 김정란동무를 통하여 자기가 당에서 새로이 활력을 부여준 심장에 의하여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음을 알았다.

그리고 또한 그 시각에 김병덕동무는 창문밖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의 병문안을 위해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온것이었다. 그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밀듯이 밀려드는 면회자들, 환자의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장선생님을, 우리 부위원장동지를, 우리련대장동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해는 여전히 손수건으로 두 눈굽을 싸친채 흐느끼고있었고 막내딸애 역시 눈물어린 눈으로 뜨거운 눈발이 날리고있는 창가를 바라보며 연신 마음속으로 속삭이고있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제는 알겠어요!...)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다. 온 세상에 경이적인 축전의 거리로 자랑떨친 광복거리와 청춘거리의 건설력사와 더불어 이제는 어느덧 과거에 속하는, 그러나 현재이야기의 원인으로 되고있는 그러한 이야기이다.

행복한 저녁에

리 용

해넘어갈가봐 걱정을 마오
정향나무꽃 향기뿜는 봄날저녁
하루일 마친 처녀총각들이
방금 유보도에서 춤나래 펼쳤으니

아름다운 노을속에 끝없이 흐르는
도라지 양산도 즐거운 원무곡...
생활이 흥겨우니
어디 가나 춤이라오

저보오
다정하게 손잡고 빙그르르 돌며
진달래도 활짝 웃는 목란도 수놓으니
이 거리가 더 교와지는구려
온 누리가 더 밝아지는구려

꽃다운 삶이 준 휴식의 기쁨
한껏 노래와 춤에 담지 않은

이 하루를 보낼수 없는 진정이라오
새날을 기다릴수 없는 진정이라오

불바다도 진필길도 헤쳐넘을 슬기가
얼굴을 드러내고 춤가락속에 웃고있소
끝없이 아름답게 조국을 가꿀 그 마음
넘실대는 춤가락속에 흐르고있소

종구려 너도나도 춤을 추며
온 나라가 젊어지는 이 저녁
어허 저녁해도 양산도가락에 취해
갈길을 그만 잊었는가

아니라오 그런게 아니라오
래일의 눈부신 기적을 펼쳐갈
밝고 우아한 톨동에 반해서라오
샘솟는 열정에 반해서라오

영원히 당을 따라

백두에서 닦을 올린 조선혁명은 전인미답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로정을 거쳐 20세기 90년대에 이르렀다.

광휘로운 력사로 수놓아진 조선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에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된 일심단결의 불패의 위력으로 맞다드는 모든 난국을 헤치고 쌓아올린 승리의 탑들이 무수한 별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서사시에 90년대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게 된것은 얼마나 기쁜일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입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바로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데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뜻깊은 회답서한을 받아안고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영예와 긍지, 행복에 넘쳐 2세포 당원들처럼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과 효성의 한길로 나아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 창작실 시인들의 창작소식부터 전하기로 한다.

× ×

우수가 지나자 대동강의 얼음은 례년에 없이 빨리 풀리기 시작하였다.

대동강 기슭 바로 대동문옆에 자리잡은 평양시창작실은 더없이 조용하다. 그러나 시인들의 붓끝에서는 창작적열정이 샘솟아 펜은 쉬임없이 달리고있었다.

우리과 만난 시인 한관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시인들은 당이 걸어온 영광의 력사를 또다시 깊이 더듬어보게 되였습니다. 화전의 언덕에서 높이 든 혁명의 붉은 기발을 억세게 틀어잡고 얼마나

줄기차게 달려온 우리 당입니까, 그 위대한 당과 함께 1990년대의 진군길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인들의 긍지만 원고에 올려놓아도 그대로 시고 노래일것입니다.》

머리희스한 시인의 얼굴에는 한없는 긍지가 넘쳐흘렀다.

이것은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다. 창작실의 모든 시인들이 다 그러하였다. 그들은 생각하였다.

당을 따라 걸어온 그 길에서 나의 인생의 자욱에는 량심에 꺼리끼는 그러한 흔적이 찍힌적은 없었던가, 당원으로서, 시인으로서 당의 위업수행에 보탬을 준것은 무엇이였으며 앞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당의 숨결로 고동치게 하자면 더 해야 할것은 무엇인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수령이 개척하고 당이 령도하는 혁명위업은 반드시 백전백승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에서 생겨난다. 하기에 그들은 혁명의 붓을 힘차게 틀어잡고 자기들의 작품에 당을 받드는 충성의 마음을 적어가는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으로 시인 전병구가 들어섰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에 접한 즉시 시 《천만세포가 따라섰습니다》를 쓴 시인이다.

...

소리내여 흐느끼며 읽습니다
낮에 밤을 이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래 편지를 올리였건만
오히려 힘이 된다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

아 영광찬란한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위대한 믿음의 그 은정이 새겨진
잊지 못할 그 회답편지에
우리 세포 당원들이 따라섰습니다.
천만세포 온 나라 당원들이 따라섰습니다

그때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수많은 시인들이 충성의 시를 썼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무한대의 사랑

이 젖어들었고 숨막힌 걱정 of 파도가 일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의리가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로 융합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시인들은 그 모두가 한없는 걱정 to 휩싸였다. 그것은 령도자와 시인들이 뜻과 뜻을 잇고 사랑과 사랑을 이어 하나의 혈분이 되고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었다.

시인 백하는 시 《하나의 혈맥》을, 박호범은 시 《력사의 메아리》, 동기춘은 시 《한순간에》를 창작하였으며 여러 시인들이 좋은 시들을 훌륭히 창작하였다.

시인들은 또한 가사도 많이 창작하였다.

안정기는 가사 《일심으로 따르리》를, 한관호는 《사랑의 편지는 길지 않아도》, 현창성은 《신념의 노래를 주시였네》, 문기창은 《불타는 한마음》을 창작하여 인민들앞에 내놓았다.

시인들은 말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인간학을 배우며 글을 쓰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느끼며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부름에 영원히 충실할 것이라고...

지금 시인 오염재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창작에 여념이 없다.

시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때문에 시인들을 가리켜 시대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라고 한다.

세기의 상상봉으로 줄달음치는 벽찬 혁명적 현실 속에서 우리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인민들과 시인들에게 안겨주시는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 그리고 우리 인민들과 시인모두의 가슴속에 가득차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은 우리 시문학의 서정과 기백으로 될 것이며 우리 시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충성의 샘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평양시 창작실 시인들의 창작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바라면서 기쁜 마음을 안고 떠났다.

본사기자

포구로 돌아올 때...

김 호

빈배로 간단 말 말자
동무여!
고동소리 높이
먼바다 어장으로 떠날 때

진정 바다로 나갈적마다
무게로 헤아릴수 없는
얼마나 뜨거운것이
배전에 이 가슴에
한가득 떠실리는것이나

살찐 고기떼들이 모여드는
성어기의 천리어장
찬바람을 헤쳐
얼음산을 넘어
인민의 기쁨을 어서 많이 안아오라고

실린다
별빛 눈동자 소녀들이 뿌려주는 꽃보라
《만선하고 돌아오세요》

가공반쳐너들의 그 목소리
마음의 향기로 축하의 노래로

배전에 넘치여
이 가슴에 넘치는
기울여 끝없는 물의 그 사랑
조국의 크나큰 당부로 안겨지거니

내 만약
포구로 돌아올 때
마스트에 만선기 날리지 않는다면
어찌 가공반쳐인들의 정다운 얼굴
그리운 눈빛들이 반겨웃는 저 밝은 창들을
머리 쳐들고 마주볼수 있으랴

용서치 말아다오
포구여, 조국이여!
떠나갈 때 무겁던 배머리가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조금이라도 쳐들린다면...

고전장편소설 《하진량문록》에 대하여

지정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억눌리고 짓밟혀온 우리 인민의 민족적재능과 우수한 문화 전통은 우리 시대에 와서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되었으며 주체의 조국인 우리 나라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그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고전문학유산을 나라의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 인민의 시대적미감과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고전문학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중요한 고리로 밀고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수한 고전문학작품들이 많이 번역출판됨으로써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읽히고있다.

《조선고전문학선집》 12, 13권으로 출판된 고전소설 《하진량문록》도 그러한 작품가운데의 하나이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우리 나라의 수많은 고전소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꼽히는 장희체(총31회) 장편소설이다.

《하진량문록》은 그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하씨와 진씨 두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가와 창작년대는 현재 알려져있지 않다. 다만 작품이 담고있는 내용으로 보아 대략 18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추정되고있을뿐이다.

소설은 창작된이후 독자들속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출판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하진량문록》은 청춘남녀들의 애정담을 기본줄거리로 끌고나가면서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예술적해명을 준 우수한 중세소설작품이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외국을 무대로 하고 있으나 실지는 17~18세기의 우리 나라 봉건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6세기말에 임진전쟁을 겪고 17세기에 들어와서 다시금 전쟁을 겪었다.

이 큰 전쟁으로 하여 당대인민들은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

국방에는 무관심하고 《태평성대》만 부르짖던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은 전쟁이 일자마자 국란에 대처할 아무런 방편도 찾지 못하고 제 한몸의 안전을 위해 황급히 피난을 갔다. 그러나 애국적인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외래침략자들과 굴

함없이 싸움으로써 마침내 침략자를 물리치고 조상전래의 아름다운 강토를 지켜냈다.

준엄한 전쟁과 그 피해를 가시기 위한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많은 인적 및 물적 손실과 고통을 강요당하였지만 한편 이 과정에 인민들속에서는 반침략애국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비등되었다.

이 시기 인민들의 이러한 비등된 반침략애국정신에 발맞추어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에게 불만을 품은 일부 선진적인 량반문인들속에서도 정치경제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진보적인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었다.

당시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은 전쟁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구태의연하게 일신의 영욕과 권세만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왕궁안에서는 피비린 살륙극이 그칠 사이가 없었고 숙종때(1675~1720)에 이르러서는 왕비를 내쫓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방을 강화하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처럼 부화방탕한 생활과 당파싸움으로 날을 보내는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의 처사를 두고 인민들은 《어질고》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나타나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바로잡아줄것을 념원했고 진보적인 량반문인들속에서도 집권자들이 당파싸움을 그만두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17~18세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씌어대로 씌은 당대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까밝히고 인민들의 반침략애국주의사상, 나라의 정사를 바로 잡아보려는 진보적인 량반들의 지향 등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이러한 반침략애국주의사상, 온갖 사회적폐해를 극복하고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으려는 지향은 두 주인공-하옥주와 진세백의 곡절많은 사랑이야기를 통하여 제기되고있다.

임진전쟁이후 우리 나라 문학에서는 반침략애국사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수많이 쏟아져나왔고 그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청춘남녀들의 애정담을 군담과 결부시킨 소설들이다.

《하진량문록》 역시 남녀 두 주인공의 애정담을 군담과 결부시키면서 당대의 우리 나라 봉건사회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백학선전》, 《홍계월전》 등의 고전소설들과 일련의 류형성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하진량문록》은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폭넓은 반영, 최고통치자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예리한 비

관, 두 주인공-하옥주와 진세백의 특색있는 형상, 비교적 짜인 구성과 섬세한 묘사 등으로 하여 이여의 다른 고전소설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우선 불합리한 당대의 봉건사회현실을 여러모에 걸쳐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으며 특히 최고통치자를 비롯한 봉건관료들의 부패성과 반동성, 모략과 암투로 일관된 궁정의 어지러운 내막을 잘 드러내고있다.

작품에서 하옥주와 진세백의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이 순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는것은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봉건사회현실때문이었다.

진세백은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지방관찰사로 나가있는 하회지를 만나 그의 집에 몸을 의탁하며 드디어 하회지의 전처딸인 하옥주와 사랑을 맺는다. 그러나 하옥주의 계모 주씨와 그 자식들이 진세백의 뛰어난 자질을 시기하고 또 저들에게 차례지는 재산의 몫이 적어질까보아 진세백이 교주(주씨가 낳은 딸)를 겁탈하려 한듯이 일을 조작하여 그를 죽일 모략을 꾸민다. 이를 알게 된 하옥주가 진세백에게 사실을 알려주며 진세백은 하옥주의 권고대로 집을 떠남으로써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나 그에게는 갈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금룡사라는 절간에 몸을 붙이고 무술을 닦은 다음 다시 인간세상에 내려와 진세위라고 이름을 고치고 과거길에 나선다. 그리하여 그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재주로 문과와 무과에 다 장원으로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오른다.

한편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집을 뛰쳐나온 하옥주도 남복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 신선의 도를 배우며 하재옥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문무량과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받는다.

일부다처제의 불합리한 봉건가족제도로 하여 겪는 하옥주와 진세백의 사랑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황제가 또 그들의 사랑에 간섭하였기때문이다.

아름다운 풍채와 뛰어난 자질로 만인의 칭송을 받는 진세백은 황제의 부마(사위)로 뽑힌다. 후에 하재옥이 바로 진세백의 약혼녀 하옥주임이 알려졌지만 부마는 두 처를 둘수 없다는 국법을 절대화하면서 황제는 진세백과 하옥주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세백은 오랜 세월 고이 간직해온 귀중한 사랑을 포기할수 없었고 의지할곳 없이 떠돌아다니던 자기를 데려다 키워준 하회지의 은혜와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하옥주의 의리를 저버릴수 없었다. 그리하여 황제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던 진세백은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고 하옥주도 황제가 준 벼슬을 내놓고 몸을 숨기였지만 황제는 여전히 양보하지 않

는다. 나라정사에는 무관심하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당황당조하여 어찌할바를 모르던 부패무능한 황제는 왕권을 휘둘러 남의 참된 사랑을 짓밟고 억지로 자기 딸을 안해로 삼도록 진세백에게 거듭 강요한다.

이럴즈음에 황실내부에도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후궁 장씨가 황제의 총애를 믿고 황후의 자리를 탐내면서 갖은 모략을 다 꾸미였기때문이다. 장씨는 태자를 폐하고 자기 아들이 그대신 황제의위를 물려받게 하려고 술한 재물을 홀여 궁중인심을 얻는 한편 황후의 글씨를 본떠서 자기를 저주하는 글을 써서 곳곳에 숨겨놓는다. 그리고 드러누워 앓는체하며 제 병이 황후의 저주때문에 생긴듯이 일을 꾸민다. 그러나 우매한 황제는 옳고 그른것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장씨에게 유혹되어 무사태평한 나날을 보내면서 황실의 복잡한 일을 처결하지 못한다.

이때 진세백의 생명이 위협에 처한것을 알고 다시 진세백을 찾아와 그를 구원한 하옥주가 이번에는 황궁에 들어가서 장씨의 죄행을 드러내고 황실을 바로잡는다.

하옥주의 뛰어난 총명과 일을 처리하는 솜씨에 감탄한 황제는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진세백으로 하여금 옥주를 정실부인으로, 공주를 후실로 삼도록 승인하고 성대한 잔치를 차려준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이처럼 하옥주와 진세백의 사랑이 온갖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취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량반가문의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있는 일부다처제의 불합리한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동시에 제 집안일 하나 다스릴줄 모르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능한 황제와 그 측근자들의 죄행을 날날이 드러냈다.

고전소설들에서 봉건통치배들의 내부알락을 폭로비판하고 일부다처제의 불합리한 가족제도를 비판한 작품은 《하진량문록》 외에도 많이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다른 소설에 비하여 《하진량문록》은 그 비판의 심도가 보다 예리하고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 후궁 장씨가 황후를 모해하는 이야기는 숙종때 후궁 장희빈을 둘러싸고 벌여졌던 민비폐위사건을 련상시킨다.

작품은 일부다처제가 사회정치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폐해를 하씨가문을 통하여 보여주었을뿐아니라 궁정안에까지 파고들어가서 대담하게 추잡한 궁정내부싸움을 드러내보이고있다.

작품은 또한 영화를 비롯한 주씨의 소생들이 조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하다가 종당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권력다툼으로 업을 삼고 국권을 제멋대로 통략하려는 당대의 봉건관료들을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에서 영화와 그 형제들은 권세와 재물만을 탐내는 환관들

을 끼고 자기 한몸의 부귀영화를 위해 권모술수를 다하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진세백의 울분과 강직한 태도로 하여 마침내는 멸문의 화를 입고야만 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부정이 판을 치는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작품은 그밖에도 《너빌중부》, 《남녀칠세부동석》을 고창하면서 여성들을 무조건 천시하고 억누르는 봉건적인 유교도덕규범의 불합리성도 반영하였다. 이것은 주로 남북을 하고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고 그후 궁중녀인들을 다스리는 총재가 되어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는 녀주인공 하옥주의 이채로운 형상을 통하여 제기되고있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이처럼 하옥주와 진세백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려나가면서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가득찬 당대의 사회상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또한 두 주인공 하옥주와 진세백의 특색있는 인물형상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있다.

진세백은 작품에서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 강직하고 대바르고 《어진》 판료로 형상되었다.

진세백의 형상에는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나타나 강포한 침략자를 단숨에 물리치고 어지러운 정사를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하는 당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체현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진세백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적특질을 이루는것은 애국주의정신을 체현하고있다는것이다.

진세백은 아무때나 원쑤치는 싸움에 나설수 있도록 부지런히 무술을 연마하여 용맹한 장수로 자라며 황제의 부마가 된후 혼례일을 얼마 앞두고 강포한 외적이 쳐들어오자 분연히 펼쳐일어나 전장에 나가겠다고 탄원한다. 이때 황제는 공주의 운명을 우려하여 그를 전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경이 비록 젊은 혈기에 흥적이 득실거리는곳으로 자원출전하겠다 하나 공주와의 혼사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집이 어찌 경을 그 먼곳으로 보내리오.》

황제는 이처럼 나라의 큰 환난을 앞에 놓고 나라의 운명보다 제 딸의 운명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황제는 이런 말로 진세백의 마음을 꺾을수 없었다.

《폐하,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국가위란에 어찌 사사를 돌아보리이까. 소신의 나이 아직 어리나 어찌 나라의 원쑤이며 가문의 원쑤인 오랑캐도적무리들을 그대로 뒤돌수 있으오리이까.》

진세백은 이렇게 말하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나가 승리를 이루고 돌아온다.

전장에서 돌아온후 공주와의 결혼을 피하려고 자리에 누워있던 진세백은 적들이 또다시 쳐들어왔다는 위급한 소식을 받자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황제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부원수가 되어 대원수 하옥주와 함께 싸움터로 떠난다.

진세백의 형상에서 주요한 성격적특질을 이루는것은 또한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진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의롭고 강직한 성격이다.

작품에서 진세백은 재물이나 권력보다 진리와 도덕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이 계승하여 내려오고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 형상되었다.

그는 부귀와 권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의의 짓도 서슴지 않는 당대의 봉건관료들과는 달리 의리와 양심을 더 중히 여기며 의로운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작품에서 하옥주가 죽은줄로 알고있는 진세백은 영화의 형제들이 역적의 죄를 짓고 처형당한후 하옥주와 만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때 하옥주는 진세백의 속을 떠보느라고 만약 하옥주가 살아서 나타난다 해도 그때는 그가 역신의 딸인즉 국법에 걸려들것이니 어떻게 하겠는가고 묻는다.

그러자 세백은 이렇게 말한다.

《내 그의 미색을 탐내었음이 아니라 그의 절개와 효성을 공경하였은즉 그가 비록 역적의 혈육이나 살아온다면 내 국법을 어기고 부귀공명을 다 잃는다 해도 옥주만은 버리지 못하리로다.》

국법을 어기고 부귀공명을 다 잃더라도 옥주만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진세백의 이 말은 그의 진정이 그대로 담긴 말이다.

진세백은 실제로 사랑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황제의 노여움을 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두번이나 외적을 물리치고 돌아온 진세백에게 동오왕의 높은 칭호를 준 황제는 그에게 어서 공주와 결혼을 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진세백은 죽으면 죽었지 사랑의 의리를 저버릴수는 없어 황제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황제의 명이나 그것이 불의일진대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진세백의 이러한 대바르고 강직한 성품은 결국 뜻대로 하옥주와의 사랑을 성취하게 한다.

진세백의 성격적특질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호방하고 정열적인 성격이다.

진세백은 조정에 서있을 때는 의롭고 대바르고 강직하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봉건적규범에 구애되지 않는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사랑에서 정열적이다. 봉건적인 도덕규범에 얽매어 아무 일이나 제 뜻대로 할줄 모르는 봉건유생의 고루한 성격은 진세백에게서 찾아볼수 없다. 그의 이러한 호방하고 정열적인 성격은 하옥주와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전장에서 오래 같이 싸워오는 하재옥이 바로 하옥주임을 알게 된 진세백은 부원수의 《체면》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 감정을 견잡지 못하며 군불까지 어긴다. 그리하여 대원수인 하옥주로부터 군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의 이러한 호방하고 소탈한 성격, 사랑에서의 정열적인 태도 등은 실

생활에서 살며 숨쉬는 산 인간의 개성적인 모습으로 독자들앞에 자기 얼굴을 뚜렷이 드러낸다.

작품에서는 너주인공 하옥주의 형상 역시 독자들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하옥주의 형상에서 중요한 측면은 아름답고 슬기롭고 남자를 뒤흔드는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그는 《천상에서 하강한 선녀》런듯 나서부터 아름답고 지혜롭다. 게다가 신선의 도를 배워 세상의 모든 리치를 달통한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무술이 인정되어 대원수의 직책을 띠고 원수를 소탕하는 싸움에 나서며 높은 지략으로 간교한 적을 성과적으로 물리친다. 하옥주는 작품에서 진세백보다도 오히려 지략이 높고 무술에 능한 남복차림의 녀장으로 형상되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옥주의 형상은 《옥루몽》의 강남홍, 《흥계월전》의 흥계월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하옥주의 슬기는 전장에서뿐만아니라 그 이후 궁정에서 벌어진 장귀비의 요사스러운 행동을 적발하고 혼잡한 궁정사변을 바로잡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옥주의 형상에서 중요한 측면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줄 아는 끝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이다.

그는 진세백을 뜨겁게 사랑하기때문에 그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작품의 첫부분에서 자기의 이복남매들이 진세백을 모해하고 나아가서 그를 죽여없애려는것을 알고 주저없이 진세백에게 사태를 알려주며 자신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

또한 후에 부마로 된 진세백이 황제의 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랑의 신의를 지키며 자기를 못잊어하자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몸을 숨긴다. 그가 진세백에게 공주와 결혼하도록 그처럼 간곡히 권하는것도 그의 사랑이 깊지 못함때문은 결코 아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결심할뿐이다.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고 눈물을 머금으며 집을 떠나는 그의 모습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옥주의 형상에서 중요한 측면은 또한 남존녀비의 봉건도덕에 구애되지 않고 남자와 같이 전장에도 나가고 정사에도 참가하는 떳떳한 태도이다. 이것은 하옥주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수 있다.

하옥주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량반가정의 규중처녀로서 약혼자앞에 얼굴을 보이기조차 꺼려하던 《단정》하고 《양전》하기만 한 처녀였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환난을 겪고 부득이 남복차림을 한후 나라의 운명을 위해 전장에도 나가고 황제로부터 벼슬을 받은후 정사에도 참가하는 활동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그는 대원수의 자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군벌으로 업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 장씨의 죄행을 밝혀내기도 하며 투기심때문에 남편에게 불공하고 하옥주 자기를 독살하려고 시도하며 마지막에는 제가 낳은 어린 자식마저 동맹이 치는 사악한 공주를 다스리기도 한다.

하옥주의 이러한 형상은 독자들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녀성을 천시하고 억압하던 당대봉건사회에서 실제로는 존재할수 없는 형상이다. 남존녀비의 봉건도덕규범때문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온갖 자주성을 다 빼앗긴 봉건사회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는 어진 안해로서 남편의 잘못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남정들처럼 원수치는 싸움에도 떨쳐나서고저 하는것은 하나의 지향과 념원에 불과한것이였다.

《하진량문록》의 작가는 당대녀성들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을 담아 하옥주와 같은 아름답고, 량반적인 형상을 창조하였다.

작품에서진세백의 형상이 보다 현실적인 인간으로 그려진데 비하여 하옥주의 형상은 많이 리상화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비현실적이고 초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졌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공감을 주는것은 남존녀비의 숨막히는 봉건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당대녀성들의 지향을 체현하고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하옥주의 이러한 형상은 녀자도 방구석에만 처박혀있을것이 아니라 남자들과 똑같이 싸움터에도 나가고 정사에도 참가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진세백과 하옥주의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하였을뿐아니라 그와 련관된 다른 인물들의 형상도 비교적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옥주의 동생인 백화와 그의 안해 량씨, 하옥주의 하녀인 옥매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들이 하옥주의 계모와 그의 자식들, 부패무능한 황제와 투기심 많은 공주 그리고 후궁 장씨 등 추악한 인물들과 대조되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나타내고 있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예술적형상의 측면에서 볼 때 또한 비교적 짜인 구성과 섬세한 묘사로 하여 주목되는 작품이다.

《하진량문록》은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려나가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두 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여 여기에 사회정치적인 문제성을 띤 여러가지 사건들을 무리없이 잘 끼워넣음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뚜렷이 하고 작가의 형상적의도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동시에 예술적견인력을 잘 보장하였다.

작품의 첫부분에서는 진세백과 하옥주가 사랑을 맺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안의 불화로 하여 서로 헤어졌다가 온갖 고생 끝에 높은 벼슬에 오르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나갔고 다음부분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에 함께 나가 싸우는 모습을 그리었다.

이 부분에서 작품은 일부의 애정-군담소설들과는 달리 싸움이야기 자체에 머물지 않고 남북을 한 하옥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진세백이 하옥주를 끝없이 그리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고 지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하옥주의 안타까운 심정을 진지하게 추구하였고 드디어 대원수인 하재옥이 바로 자기가 것처럼 사랑해온 하옥주임을 알게 된 진세백이 자기 감정을 견잡지 못하여 군물을 어기는 이야기들을 한쪽의 섬세한 그림인양 아름답게 펼쳐나갔다.

작품은 마지막부분에서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황제와 맞서 타협없이 곳곳이 싸움으로써 드디어 사랑을 성취하는 진세백의 믿음직스럽고 의젓한 모습, 황궁에서 총재의 직책을 지니고 공주를 다스리는 하옥주의 변함없이 떳떳하고 슬기로운 모습을 그리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작품은 당대에 시급히 해결을 요하던 여러가지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제기하고 풀어나갔으며 선은 언제나 악을 타승하며 불의는 정의앞에 머리를 숙이곤야만다는 생활의 진리를 힘있게 확인하였다.

작품은 이처럼 고전소설일반이 그러한 것처럼 시간적순차성을 따라 두사람의 운명을 그려나갔지만 중세소설치고는 우수한 필치로 극성을 계속 심화시키고 새로운 정황을 조성해나가면서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끌어들이고있다.

이 작품의 구성이 명료한것은 형상체계에서 공부정인물간의 갈등이 명백할뿐아니라 매우 심각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작품에서는 진세백과 하옥주, 옥주의 동생 백화와 그의 처 럽씨, 시비 옥매 등이 긍정인물계열을 이루고 옥주의 계모 주씨와 그의 네 자식, 효용을 비롯한 적군, 황제와 후궁 장씨, 공주 등 부정인물계열과 대치되어있다.

작품은 그 담고있는 내용과 분량에 비해볼 때 등장인물의 수도 비교적 적고 사건의 갈래도 복잡하지 않지만 그대신 설정된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작품의 첫부분에 설정된 하옥주와 진세백, 주씨와 그 자식들간의 갈등은 계모와 전처자식간의 모순을 반영한 이여의 고전소설들처럼 계모가 전처자식을 모해하고 내쫓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험한 루명을 씌워 죽이려고 시도하는것으로 나타나며 황궁안에서 황후와 후궁, 하옥주와 공주와의 갈등도 투기와 모해에 그치지 않고 후궁이 황후를,

공주가 하옥주를 죽이려고 하는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작품은 하나의 갈등이 해결되면 편이어 새로운 갈등을 조성하면서 기본이야기줄거리를 줄기차게 끌고나가고있다. 이것이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이 가지는 구성상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또한 비교적 섬세한 묘사로서 형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이 소설도 총체적으로 볼 때는 고전소설의 사설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여러 측면에서 섬세하고 생동한 묘사로 하여 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고있다. 이것은 새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두 주인공이 함께 지내며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에서 제일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자기의 약혼녀를 방불케 하는 남북의 하재옥을 가까이 대하면서 느끼는 진세백의 심리, 부끄럽고 딱하지만 그를 뿌리치면 녀성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나겠기에 참고 견디는 하옥주의 심리를 섬세하고 진실하게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이와 같이 청춘남녀들의 사랑이야기를 단순한 생활세태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불의와 악을 반대하고 정의와 선, 의리를 지키는 사회정치적인 이야기와 밀접히 결부시켜 그려나가면서 우리 나라 봉건사회현실을 잘 반영한 우수한 고전작품의 하나로 된다.

고전소설 《하진량문록》은 중세소설일반이 그러한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형상에 있어서 일련의 제한성과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작품은 우선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남존녀비의 봉건유교도덕과 봉건적인 가족제도에 기초한 일부 다처제의 불합리성을 반영하고 황제와 봉건관료들의 반동성과 무능성을 폭로하면서도 작품의 이야기를 끌고나감에 있어서는 철저히 봉건유교사상과 충군사상에 기초하고있다. 또한 인간의 운명이 천명에 의해 이미 정해져있는듯이 그리고 비과학적인 환상과 도술을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적지 않은 손상을 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형식적측면에서 볼 때도 지루한 사건반복식구성과 사설체, 언어문체의 난해성 등으로 하여 부족점을 가진다.

그러나 소설은 모순으로 일관된 당대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통치배들의 반동성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오늘날에 와서도 일정한 인식적의의를 가지며 또한 비교적 높은 사상예술적성으로 하여 우리 민족문학유산을 풍부히 하고 중세고전소설의 발전정형을 잘 알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나를 알겠느냐

-북에 있는 아버지와 남에 있는 아들이
《통일 축구》 기간에 평양에서 만났다-

권강일

할아버지 손자간도 아니고
사오촌 친척은 더욱 아닌
친아버지 친아들이 꿈같이 만났건만
선뜻 부둥켜안지 못하고
-나를 알겠느냐?

함께 늙은 아버지와 아들
함께 앓은 흰머리
보아도 바라봐도 알길이 없어
생리별의 그 먼날을 더듬으며
-나를 알겠느냐?

대답하라
대답하라
분열을 안고 흘러간 세월아
너는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낮도 길고
밤도 긴
날과 날이 흘러
해와 달이 흘러
때이른 주름살이
두볼을 찌어도

그리운 마음
간절한 소원은
헤어지던 그 순간과
헤어지던 그 모습만을
아프게 쓰리게 안고 왔거니

분계선표말아
콩크리트장벽아
저 아버지의 옛모습을 살려내라
저 아들의 애어리던 얼굴을
그대로 살려내라 되살려내라

칠순이 넘었다
마흔다섯해
자식과 갈라져 산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동생과 헤어진
형들이
누이들이

이제 더 이대로
땅이 갈린채

하루하루를 미루며
세월이 흐른다면
보아도 얼굴을 모르고
들어도 이름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남과 남이 되리라

운명의 머리말을 지켜선
절박함이 여기 있다
이제 더 이대로
해와 달이 흐른다면
북에 살던 아버지
남에 살던 어머니의
풀조차 돋지 않는 무덤만이 남아
땅을 치는 통곡에
하늘도 꺼떻게 명이 들려니

그날에 누가 감히
그 쓰라린 눈물을 닦아주며
그 터지는 가슴을 달래일수 있으랴

들으라 랑심이어
민족을 영영 등진
역적이 되지 않으려거던,
들으라
조국앞에
거레앞에
후대들앞에
만고 대죄를 지지 않으려거던

저 목소리를 들으라
통일을 한정없이 료원하며
권좌를 지키고
리기만을 꾀하는
그 더러운 속심을 버리고
장벽을 무너라
아이들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민족의 성업을 론하는
만남의 자리에 마주 앉으라

이것이 조국의 하나됨을 바라는
조선의 모습이다
일각이 천추같은
조선의 시간이다
인민의 몸부림이다
-나를 알겠느냐?
나를 알겠느냐!

피의 웨침

차영도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진
내 조국
내 땅!

이 나라 하늘밑에
비를 뿌리고 눈을 뿌리며
피롭게도 흘러간 그 세월을
이제 더이상 손을 쏴아 무엇하랴

분하다
그래도 행여나
바라는 마음 일일로 조이며
이날까지 기다려온 통일

더는 못견디겠다
가지 못한 고향, 찾지 못한 피줄을 두고
차마 눈감지 못한
그 술한 부모들의 한과 유언을
이 땅의 흙으로 묻기엔
오, 가슴의 눈물이 이제는 모자란다

민족분렬의 아픔이란
이리도 모진것인가
이 땅 어디서나 서로 그리는 마음들엔
산은 하나를 넘으면 뿔뿔히고
들은 한끝이 끝나면 땅을뿔뿔이
꿈에조차 가끔가끔 불쑥 내여미는 손!

하지만 오늘도 막혀있는 장벽
오히려 콩크리트로 더욱 굳어졌으니
이 장벽 부시려 배를 가르고 간 련사들앞에
그리고 몸에 불을 달고간 그 많은 청춘들앞에
분렬강토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느냐

남녘이여
통일성전에 피흘리고 간
그 어린 녀들앞에서
밤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땅이여
내 나라 절반땅이여

통일의 원썬들은
만대에 씻지 못할 죄를 의식하라
하나의 언어로
자자손손 살아온 한겨레, 한민족
그래 판문점도 이 땅인데
거기 마주앉으면 왜 말이 통하지 않아
이 세월, 이 시대를 또 넘겨야 하느냐

남북을 오간 산, 이어뻗은 산
그 산허리를 자르면
숨없는 흙에서조차 혈액의 피가 솟음칠
한지맥, 한강토

조국이여, 분렬조국이여
이제 더이상은
이 나라 지리교원들이
아이들의 어린 가슴에
쓰린 마음으로 말해주던 그 분계선을
용서치 말자, 용서치 말자!

이는 다만
분렬조국에 태를 묻고 자란
한 시인의 몸부림이 아니어니
오직 통일을 부르짖는
이 나라 인민의 이 가슴타는 목소리를
력사의 폐지우에 글로 쓰면
피같이 새겨질것이다
점점이 가슴들에서 뿌려진,